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5 호 8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5호 (37)

1949년8월15일

내 용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맞으며

전세계적으로 공고한 평화운동의 거류가 노도치는 환경속에서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총진군하면서 민족재생의 날 해방 四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있어서 조선인민들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일제통치의 기반으로부터 우리민족을 해방시켰으며 조선인민의 민주독립국가수립을 백방으로 원조하여준 쏘베트군대와 그의 위대한 수령 쓰딸린대원수에게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린다。

제二차세계대전후 미 영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한 국제반동파들의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발악적 음모는 쏘련을 선두로한 제인민민주주의국가 및 평화옹호 인민들의 강대한 력량앞에서 폭로 분쇄되고있다。

동시에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과 그와 야합한 조선민족의 원쑤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배족적 망국정책을 타도분쇄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국토를 완정하려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애국적 구국운동은 날이 갈수록 치렬히 전개되고있다。

쏘베트군대가 진주하였던 우리조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해방된 그 첫날부터 우리인민들의 자주적 정치경제생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전조선 방방곡곡에 창설된 인민위원회들은 북반부에 있어서는 쏘베트군대의 적극적 원조에 의하여 날로 강화되어 강력한 인민정권으로 확고 발전되였으며 이 인민정권은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령도밑에 세기적 제반 민주개혁을 승리적으로 실행하였다。

쏘베트군대의 형제적 원조와 인민들의 창조적 노력으로 북반부의 민주건설은 눈부신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일제가 파괴한 모든 산업시설들은 단기간내에 복구되었으며 피폐했던 농촌은 부흥되였다。

인민경제가 성과있게 부흥발전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였으며 조국통일독립의 물질적 기초는 확고히 구축되였다.

동시에 국가사업을 자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수많은 민족간부들이 육성되였으며 조국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능히 보위할수 있는 인민군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어떠한 외래 제국주의자들도 다시는 조선인민들을 망국노예로 만들수 없게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 성취한 이 성과들을 어느때든지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다.

특히 지나간 한햇동안은 조선의 민주발전과 완전통일독립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한 력사적 시기였다.

一九四八년八월二十五일에 실시된 전조선적 민주선거에 의하여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최고립법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였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한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력사적 승리는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민족의 투쟁사에 있어서 새계단을 열어놓았으며 우리조국에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리공화국정부는 쏘베트동맹을 위시한 제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쏘베트정부는 공화국정부를 승인하고 자기의 군대를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철거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동맹은 우리민족의 해방자일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친근한 벗이라는것을 전세계인민 앞에 명백히 실증하였다. 우리인민에 대한 쏘베트정부의 시종일관한 원조정책은 조쏘량국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서도 표현된다. 지난 七월七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이 협정은 조쏘량국인민의 생활상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동시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막대한 기여를 할것이다.

이와같이 해방후 四년간에 조선인민들은 외국침략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은 아직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으로 분리된채 남아있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공화국 남반부에 미제국주의 군대가 철거하지않고 남아있는 까닭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식민지 노예화정책을 실시하며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 반동적 매국노들과 야합하여 온갖 술책으로 조선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며 그 분렬을 백방으로 책동하고 있기때문이다.

미국군대는 그의 상전인 월가의 지시를 받아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우리의 국토와 민족을 분렬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면서 갖은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총칼로써 五·十단선을 강행하고 소위 망국「국회」와 괴뢰「정부」를 조작함으로써 우리조국과 우리인민의 리익을 더욱 로골적으로 배반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군대는 우리조국의 남쪽땅에 계속주둔하고 있을 하등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철퇴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선인민들의 동족상쟁을 도발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흉악한 정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조국의 남쪽땅을 자기들의 식민지 및 동방침략의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려는것이다.

해방후 四년간 조선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우의적 방조와 조선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로 하여금 인민들의 완전한 자유세계로 전변시킨 반면에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정책과 리승만 도당의 매국행위는 공화국 남반부를 빈궁과 억압, 무권리와 학살의 생지옥으로 화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해방후 四년간 경험을 통하여 누가 조선인민의 진정한 벗이며 누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가를 똑똑히 알고있다.

만일에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대신에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정확히 실천하였다면 우리조국은 벌써 一九四六년에 통일되었을것이며 만일에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쏘미량국군대동시철거에 대한 쏘련의 제의를 접수하였다면 우리조국은 벌써 그때에 통일되였을것이며 만일에 미국이 조선인민의 요청에

로 쏘련군대와 같이 우리강토로부터 작년말까지에 철거하였다면 금년초에는 벌써 우리조국은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조국의 통일을 지연시킨 모든 책임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망국도당에게 있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맞이하면서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하여 애국적 증산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반부인민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괴뢰『정부』타도、미군과『유·엔조선위원단』철퇴를 절규하면서 강력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조선인민들의 민주력량이 거대하게 장성된 조건하에서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절대 다수의 조선인민들은 현하 우리조국에 조성된 민족분렬의 위기를 제거하고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나섰다。 애국적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조국의 정치정세가 요구하는 모든 구체적 대책들을 세워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그의 선언서에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을 명백히 제시하였으며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못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우리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빛나는 승리적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뿐만 아니라 이를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평화의 방법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강조하였다。

조국통일과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당은 중심적 역활을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다。 특히 우리당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여 투쟁하는 각계각층인사들과 행동 통일을 취하면서 백절불굴의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더우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남북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당 대표의 제의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새 계단에로 추진시키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선인민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않다。

오늘 국제무대에 있어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와 반민주와의 투쟁은 조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끊을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은 전세계인민들이 자기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과 련결되어 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정부의 원조와 중국인민해방군의 혁혁한 승리와 인민민주주의국가 인민들의 성원은 우리의 승리를 보다더 고무한다。

오늘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총집결하여 공화국정부와 김일성수상이 령도하시는 길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승리를 위하여 더한층 과감히 진군하여야 할것이다。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철통같이 단결된 민주력량은 반드시 미군을 우리강토에서 물러가게하며 리승만매국도당들을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선인민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위하여 분투 매진한다

최 창 익

一、

一九四五년五월八일 히틀러독일은 쏘련을 주력으로 한 반팟쇼련합국에 무조건항복을 하지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서구라파에서 독、이 파시스트는 영원히 패망되고 그들의 야수적 통치와 강도적 침공하에 있던 여러 민족과 여러나라들은 해방되였고 구라파 전쟁은 끝났으며 쏘련의 조국전쟁은 승리적으로 결속지였다。

一九四五년八월八일 쏘련정부는 동방에 있어서의 력사적 침략국인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내리었다。

八월九일 쏘일전쟁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전쟁이 벌어진 첫날부터 쏘련군대의 예봉(銳鋒)은 적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만주에 집결되어 있는 백만 일군에게 전격적 타격(電擊的 打擊)을 주었다。 이러한 전쟁형세하에서 八월十일 일본은 쏘련측에 향하여 항복할것을 애걸(哀乞)하였다。 드디어 八월十四일 일본은 쏘련과 그의 련합국인 미영중에 향하여 무조건항복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동방에서 장구한 기간을 두고 압박당하고 착취받으며 또 전쟁의 재란중(災亂中)에서 고뇌(苦腦)를 마지못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여러나라 인민들은 일제의 기반하에서 해방되었고 일제침략전쟁의 와중(渦中)에서 구출되었다。 동시에 쏘련을 근간(根幹)으로한 세계 반팟쇼 정의전쟁은 최후적 승리의 총결을 완수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국제 반팟쇼전쟁의 승리적 총결과 함께 一九四五년八월十五일 조선민족은 위대한 쏘련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되었다。 八•一五

해방은 조선민족이 재생한 날이며 조선민족이 자유민족으로 등장한 날이었다。 또한 八•一五해방은 조선민족의 새로운 력사가 창조된 날이며 조선민족의 발전과 행복의 길이 개벽된 날이었다。

조선민족은 八•一五해방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생활을 민족자신의 힘으로 운영할수 있는 력사계단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선 근로대중을 비롯하여 광범한 애국인민들은 인민적 력사의 창조과정에서 국가생활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민정권형태의 민주조국 창건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들은 해방된 첫날부터 자유의사의 발동(發動)에 의하여 전국적 지역에서 인민정권형태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즉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는 곧 조선인민들이 높은 정치의식으로부터 인민적 민주정권이 없이는 자주적 국가생활을 운영할수 없으며 인민적 민주정권이 없이는 새조선의 질서를 유지할수 없으며 인민적 민주정권이 없이는 경제、정치、문화、각부면에 긍하여 제민주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달은 표현이었다。

이제 八•一五해방후 이 순간의 력사계단에서 제기되는 민주조국건설문제는 진보적인 일개 계급、일개 정당의 력량만으로 달성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민족적 과업으로서 전민족적 힘이 아니면 수행할수 없는 즉 그러한 력사적 성격을 띤 문제로 나서게 되었으며 또 나서고 왔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우리는 해방된 첫날부터 새로운 력사계단에서 새로 구성되며 새로 발전되는 새조선의 사회성질을 구명(究明)하면서 새로 편성되는 새조선의 각 계급 및 각 계층 간의 력량비중을 고계(考計)하면서 또 조국에 조성된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면서 민주건국의「련사적 창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보적 계급과 각정파(各政派)의 력량을 집결하며 단결하여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며 또 그를 발전하여 왔다。

그리하여 八•一五 해방 이후로 로동계급의 전위정당을 비롯하여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조선 사회현실에서 력사적으로 부여되는 민주정권 수립을 위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하에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따라서 민주를 애호하고 반동을 증오하며 독립을 요구하고 예속을 반대하는 무당무파(無黨無派)의 애국인사들도 광범한 근로대중과 함께 민주조국 건설사업에 동원되어 왔다。

그러나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면서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는 남북조선이 부동하였다。 다 아는

바와같이 쏘련군이 진수하고있던 북조선에서는 민주세력이 자유롭게 발전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고 그와 정반대로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민주세력의 자유롭게 발전할수 있는 아무 보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반동적 미군정의 실시하에서 일체 민주세력은 억압되어 왔다。

이와같이 남북조선정세의 부동한 조건하에서 북조선에서는 국제적 민주력량으로서의 쏘련군대의 진정한 원조에 의하여 지방적 인민정권의 육성발전(育成發展)과 아울러 각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통일적 기초위에서 一九四六년二월八일 력사적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창전되었고 또 그는 자기의 발전과정에서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중요산업 국유화법령과 八시간 로동법령들을 실시하여 인민정권의 물질적 기초로서의 인민경제체계를 확립하였다。이와 정 반대로 남조선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하에서 조선인민의 자유의사로 수립하였던 인민위원회는 억압되었고 제민주과업은 수행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반동적 미군정의 억압하에서 남반부의 인민경제는 여지없이 파산되고 그 대신에 미국상품은 시장에 충척(充斥)되어 왔다。그런까닭에 八•一五 해방직후부터 남조선에서는 각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또 근로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인민들이 침략적 미군정과 매국적 리승만도당을 반대하여 전면적 애국투쟁에 총궐기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은 조국에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의 부동한 각도에서 민주조국건설의 력사적 임무수행에 있어서 북반부에 있어서는 민주건설투쟁을 수행하였고 남반부에서는 미제에 대한 반(反)침략투쟁을 진행하여왔다。그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민주건설투쟁은 인민정권의 령도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과 근로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인민의 력량으로 추진하여 왔고 남조선의 반침략투쟁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령도하에서 근로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인민들의 인민항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순간에 있어서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은 부동한 두개력량의 체계로 즉 부동한 두개력량의 배합으로 관찰할것이 아니고 동일한 민주력량이 부동한 투쟁각도(鬪爭角度)에서 공동한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특수한 투쟁임무를 실천하는 통일된 력량인것이다。다시말하면 금일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은 조선사회발전을 가능하게하는 내재적 련계(內在的 聯繫)의 통일된 력량일뿐만 아니라 민주조국건설에 있어서 근동적 추진력(根動的 推進力)이 되고왔으며 또 되고있다。

이미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八•一五해방 이후로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은 완전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적 민주정권수립투쟁이 주적 방향(主的 方向)으로 되어왔다。이러한 정권수립투쟁에 있어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전조선인민정권의 수립을 가능하게한 력사적 로대로 되어왔다。왜그런가 하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따라서 이 정권은 정치、경제、문화등 각부면에 있어서 비인민적(非人民的)인 구사회의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인민적 민주주의의 신제도를 수립한 까닭이다。그리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의 리익과 완전히 일치되는 인민의 정권으로서 또 인민에게 복무하는 실천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옹호지지를 받고 왔던것이다。

이와같이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창전되었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자기발전의 력사 행정에서 一九四六년十一월三일 민주주의선거를 통하여 一九四七년二월十七일 북조선최고정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회의가 창전됨과함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되였다。그후 一九四八년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이 일층 로골화함과함께 남조선의 매국도당들은 미군정의 비호하에서 소위「五•十단선」을 감행하였다。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시 남북조선의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인민정권이 수립된 북조선평양시에서 남북조선각정당사회단체의 협의회를 열고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자행하는「단선단정」을 반대하고 국토완정과 민족통일과 민주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족적 투쟁(擧族的 鬪爭)을 전개하였다。그리하여 남북조선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통일로、보다 강장한 력량으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며 민족반역자 리승만도당의 매국적 단선을 반대하는한편 전조선의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전국적 민주주의 선거투쟁을 통하여 一九四八년八월二十五일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리적으로 창전하였다。

이래 남북조선의 민주진영은 통일된 력량과 단결된 의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은 민주건설투쟁을 보다높은 계단에서 진행하였고 공화국 남반부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정책과 리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여왔으며 또 전개하고있다。

다시말하면 八•一五 해방이후로 남북조선인민들은 북조선에서 진립된 인민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

회를 받들고 전조선적인 인민정권수립을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그리하여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과감한 투쟁의 결과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달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에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반부인민들은 미제에 대한 반침략투쟁과 북반부인민들은 정치、경제、문화、각부면에 걸친 민주건설사업에 총궐기하여왔고 또 궐기하고있다。

二、

이제 우리들은 력사적인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맞이하면서 조선인민은 어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지지하고 남조선괴뢰「정부」를 반대하는가? 조선인민은 무슨까닭에 사회주의쏘련과 친선을 도모하고 제국주의미국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깊은 리해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치、경제、문화 각부면에 긍하여 인민민주주의 내용과 그의 력사적 성격을 잘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들의 사회생활상 리익과 어떻게 일치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략론(略論)하고자 한다。

첫째 인민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성격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二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하였고 제十一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제十二조에는「만二十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二十조에는「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였다。

둘째 인민민주정권의 경제정책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五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삼림、하해、주요기업、은행、철도、수운、항공、체신기관、수도、자연력 및 전일본국가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라고 하였고 제六조에는「전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노력으로 경작하는자만이 가질수 있

다。……」라고 하였다。

공화국헌법에 제시된 이상 문제들은 문법화한 문제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화한 문제들이다。 력사적으로 말하면 一九四六년 三월五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정권의 경제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전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토지와 조선인 지주토지를 무상몰수하여 토지없는 농민과 토지적은 농민에게 무상분여하였고 一九四六년 八월十일 전일본국가 일본인의 사유 및 법인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있는 일체의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등의 전부는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로 한다는「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실시되었다。

이와같이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결과로 전농호 七二%에 해당한 七十二만四천五백二十二호의 토지없는 농민、토지적은농민 또는 고용살이하던 농민들이 지주의 토지로부터 해방되어 토지의 주인이 되었고 산업국유화법령의 실시에 의하여 중요산업은 인민경제수립의 기본토대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一九四六년十월四일에 개인소유권 보호와 산업 및 상업에 있어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킬문제에 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 의미로 론급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봉건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하며 독점자본을 몰수하여 신민주주의국가의 소유로 하며 중소 상공업을 보호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상 창발력을 발휘시키는 즉 인민민주주의의 경제강령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는것을 증좌한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에 의하여 로동자와 사무원은 八시간 로동제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조선인민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녀성들은 락후한 봉건적 유제에서 해방되어 사회활동에 있어서 남녀평등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니 이는 모두 인민민주주의 국가생활의 진실한 내용이 아니됨이 없는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지지하며 그와 반대되는 국내외의 일체 반민주적 반동세력과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여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건지주의 가혹한 착취에서 해방되어 토지의 주인이된 농민들과 독점자본의 야만적 착취에서 해방되어 인민국가의 기업소와 기관에서 인민경제 건설을 위하여 활동하는 로동자 및 사무원들과 남존녀비의 봉건적 유습에서 해방된 녀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받들어 수호함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조선인민들이 남조선괴뢰「정부」를 반대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은 이도 또한 우연한 일이 될수 없다。 력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다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정부」의 구성요소는 미제국주의의 력사적 주구인 매국노 리승만을 수괴로 하고 일제시대의 경찰、군관、판검사、형사、정탐、밀정、친일지주、친일자본가를 비롯하여 매국적 친미분자와 八・一五해방전기에 있어서 중국 장개석의 속관으로 있던 일부 반동분자들을 규합한 집단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들과 또 그들이 말하고있는 정부 즉 남조선괴뢰「정부」는 공화국북반부와 같이 토지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과거에 있어서 친일이었고 금일에 와서 친미적 행위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소수 봉건적 반동지주층을 도와서 대다수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할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식량을 여지없이 략탈하고 있다。

남조선괴뢰「정부」는 공화국북반부와 같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 八시간로동제의 로동법령과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는 도리어 과거에 있어서 친일이었고 금일에 와서 친미적 행위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감행하는 반동자본가와 미제국주의침략자본을 도와서 로동대중을 야만적으로 박해하며 착취하고 있다。

남조선괴뢰「정부」는 공화국북반부와 같이 남녀평등권을 실시하였는가? 아니다。 그는 오직 남존녀비의 봉건적 유제를 고집하지 않으면 히틀러식으로 녀성은 가정비복으로 인종시킬뿐만 아니라 리승만도당과 월가의 상인들의 완롱물로 취급하여 마지않고있다。

남조선괴뢰「정부」는 공화국북반부와 같이 중요산업국유화 문제를 실시하였는가? 아니다。 그는 다만 미제의 독점자본가와 리승만 김성수 기타 매국적 반동자본가들을 도와서 중소 상공업자의 경제활동을 억압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지없는 파산의 운명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八・一五해방 이후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즉 근로인민을 비롯하며 광범한 애국인민들이 민족반역자 리승만도당과 매국집단인 남조선괴뢰「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고 투쟁하고있으며 또한 격렬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인민들의 친쏘를 도모하고 미제를 반대함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력사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十월혁명 이후로 사회주의쏘련은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부단한 투쟁을 지속하여왔고 또한 조선인

족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쏘련은 언제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여본 때가 없었다。

특히 세계반팟쇼전쟁이 진행되던 력사행정에서 쏘련정부와 쏘련인민들은 조선민족의 해방사업을 위하여 기회있는 때마다 적극 노력하여 마지않았다。

이제 동방에서 일본파시스트 침략군대를 타도하고 조선땅에서 일본제국주의 통치세력을 소멸한 군대가 어느나라 군대인가? 위대한 쏘련군대이다。

이제 쏘미영 모쓰크바 三상회의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한 나라가 어느나라인가? 위대한 쏘련정부이다。

이제 조선의 민주주의 제개혁과 민주조국건설을 적극 원조하여준 군대가 어느나라 군대인가? 북조선에 진주하여 있던 위대한 쏘련군대이다。

이제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위하여 조선땅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주장하고 자기나라 군대를 철거한 나라가 어느나라인가? 이 역시 위대한 쏘련정부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하였는가? 누구나 없이 다 아는바와같이 쏘련을 주력으로한 세계 반팟쇼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영중 카이로회의에서 소위「상당한 시기」에 조선독립을 실현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상당한 시기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정책을 외식화(外飾化)한 선언이 아니될수 없었다。 쏘 미 영 모쓰크바 三상회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소위「十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쏘 미공위사업을 의식적으로 파탄하고 식민지정책을 강행하여왔다。 그도 부족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선에 파견하여 남조선미군정의 비호하에서 매국노 리승만도당을 책동하여 소위「五・十단선」을 강행하고 민족반역자 리승만을 수괴로한 남조선괴뢰「정부」를 수립하고 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대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이러한 침략정책하에서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해결에 맡기고 쏘미량군이 즉시 철거하자는 쏘련제의를 거부할뿐만 아니라 조선을 동방침략의 병참기지화를 시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八・一五해방이후 이래(爾來) 四년간에 궁하여 조선인민은 극 소수 매국도배를 제한 외의 로동자、농민、진보적 지식인、청년、녀성 및 광범한 학생군중들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남조선에서 一九四六년 十월 인민항쟁을 비롯하여 一九四七년 二월 로동파업과 一九四八년「五・十단선」반대투쟁과 금

일 각지방에서 봉기하는 무장투쟁은 모두다 조선인민들이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합법적 대리기관인 남조선괴뢰「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닌것이 없다。요약하여 말하면 조선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받들어 남조선괴뢰「정부」와의 투쟁과 쏘베트동맹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은 첫째 민주세력의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이고、둘째 애국세력의 매국세력과의 투쟁이며、셋째 인민민주주의의 조국건설을 위하여 근로대중을 비롯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국내외의 반동세력과의 투쟁이다。동시에 이 투쟁들은 이 순간의 력사 계단에 있어서 국내적 민주세력이 쏘베트동맹을 근간으로 한 국제적 민주세력과의 통일된 힘으로 즉 미제국주의를 주력으로한 일체 국제반동세력과 결탁되어있는 일체매국도당과 리승만괴뢰「정부」를 타도하고 국토완정과 민족통일과 완전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인민적인 거족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왔으며 또 전개되고있다。

三、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해방후 四년동안에 조선인민은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드디어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투쟁경험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해방전기의 일제식민지통치를 답습(踏襲)하려는 한편 인민민주주의 신질서를 파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또 금일 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력사적 침략행위를 잘알고있다。

말하자면 一八六六년八월에 미함(米艦)「샤만」호는 침략적 행위로 대동강에 침입하여 만경대하의 두로도(豆老島)에 상륙하여 그 지방 촌락을 략탈하다가 농민들의 대항에 의하여 분쇄된 사실을 조선인민들은 잘알고있다。一八七一년三월에 미함「고로로다」호는「샤만」호의 격파에 대한 숙감(宿感)을 품고 침략적 행위로 병사 일천여명을 탑승(搭乘)하고 강화해협에 래침하여 광성진(廣城鎭)을 진공하다가 당시 조선군대의 반격전에 의하여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간 사실을 조선인민들은 잘알고있다。

그후 미국은 서구자본주의의 동방진출에 박차(迫車)를 가하여 一八八二년五월에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의 장기적 타산밑에서 자본주의적. 전초병사인 선교사단(宣敎師團)을 조선에 파견하여「자유 평등 박애」를 가장하고 대소도시(大小都市)와 농촌에 허다한 교회다을 설치하고 후진국의 시민층과 농민군중에게 미신적 천당설을 주입시키는 한편 숭미(崇米) 사상의 보급에 부심하여온 사실을 조선인민들은 잘알고있다。

이래 미제국주의는 동방침략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자본주의 제국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한때에는 중일간의 충돌을 조화(調和)한다는 형식으로 다른 한때에는 로일간의 전쟁야기를 추동하는 형식으로 즉 조선에 대한 침략적 술책으로 어부지리(漁夫之利)를 꾀하여 왔다는 사실을 조선인민들은 잘알고있다。특히 一九○四년 로일전쟁의 폭발 전야에 있어서 미제국주의는 극동침략에 대한 제三세력의 시도로써「만주에 있어서 로씨야가 세력을 확대하는데 균형되기 위하여 일본은 조선을,점령하여야 된다」라고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베르트의 력설을 조선인민들은 언제나 잊을수 없는 문제로 기억에 남겨두고 왔던것이다。

어찌 그뿐일까? 八·一五해방이후 四년동안에 걸쳐 조선에 대하여 국토완정을 방해한자도 미제국주의이며、조선민족의 분렬을 조장한자도 미제국주의이며、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자도 미제국주의이며、매국노 리승만도당을 비호하는자도 미제국주의이며、민족패류(敗類) 친일분자를 망라한 토대위에 민족반역자 리승만을 수괴로한 남조선 괴뢰「정부」를 조작한자도 미제국주의라는것을 조선인민들은「五·十단선」반대투쟁의 류혈적 사실로써 잘 기억하고있다。

이와같이 국내외적 반동세력이 발호하는 조건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의 탄생과 그의 존립과 그의 발전에 있어서 어느 한조건을 위하여서도 영웅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수요(需要)하지않음이 없었다。또 이 투쟁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농민과 근로지식인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였다。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투쟁에는 광범한 애국인민들의 힘이 절대로 요청되었다。동시에 우리들은 분산된 힘을 요구한것이 아니고、근로계급을 대표한 진보적 정당을 비롯하여 각 계층의 토대위에서 조성된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의 조직된 힘을 절대로 필요로 하였다。그리하여 과거에 있어서는 남북조선의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역시 남북조선의 각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통일적 조직력량으로 민주조국건설의 력사행정에서 재민주개혁 운동과 반침략투쟁을 같이 전개하여왔다。현재에 와서는 남북조선의 각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더、높은 계단에서 전국적 통일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발전되고있다。그리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국토완정」、「민족통일」、「완전자주독립」을 당면적 긴급한 실천적 투쟁과제로 내세우고 전국적으로 애국인민을 총동원하여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고있다。이리하여 과거 四년간에 있어

서 조선사회발전의 력사행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의 조국건설사업은 단순한 평화적 노력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있어서 조선사회의 식민지적 력사조건을 금일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 그를 리용한 점에서 설명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일 미제국주의는 반팟쑈전쟁 당시의 련합국에 참가하였다는 일원국(一員國)의 명의를 가장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력사적 조건을 리용하여 조선사회의 인민민주주의발전의 진로를 억제하려는 험악한 반동을 시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인민들은 민주조국건설의 력사행정에서 류혈의 투쟁이 없을수 없다。

더우기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투쟁은 어느때보다도 격렬성(激烈性)을 띠고있다。 그는 반동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고있는 조건하에서 또 조선인민들이 목전 생활현상을 더 인수(忍受)할수없는 조건하에서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은 결정적 시기에 도달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것을 남북조선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이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내세운 평화적 통일방침에 관한 제조건중 첫째항목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 인민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라고 하였다。 물론 한 민족의 해방과 한나라의 인민민주주의 파업은 국제적 민주력량의 원조에 의함이 없이는 특히 세계민주력량의 주력인 사회주의쏘베트동맹의 원조가 없이는 승리를 재래할수 없는것이다。 또 쏘베트동맹은 일찌기 우리의 몸에서 일제의 쇠사슬을 벗겨주었다。 그러나 금일 민주조국건설사업은 외래 민주력량의 원조로마는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그런까닭에 우리는 전민족적 범위내에서 전국적 민주력량을 총동원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의 힘으로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리승만괴뢰 『정부』를 타도하여야할것이다。

다음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내세운 평화적 통일방침에 관한 제조건중 넷째항목에는 「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립법기관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제의한다」라고하였고 일곱째 항목에는 「립법기관선거는 一九四九년九월에 실시하며……」라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이것은 말할것도없이 이 순간에 있어서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가 긴박하고있음을 증좌

(證左)하는것이며 동시에 이 긴박한 정치정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이 전국적 투쟁을 전개할것을 긴급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정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간성 문제는 투쟁이 결정하는것이다。 말하자면 적에 대한 투쟁이 강하면 강할쑤록 문제의 해결은 시간적으로 단축될것이고 그와 반대로 적에 대한 투쟁이 약하면 약할쑤록 문제의 해결은 시간적으로 지연될것이다。 그렇다고하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평화적 통일방침으로 나선 모든 조항도 우리 투쟁의 강약에서 시간적 조만성(早晩性)이 규정될것이다。 또 그렇다고하면 국토완정과 민족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조국건설투쟁의 력사적 행정을 단축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거족적으로 결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투쟁은 조속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개정당 사회단체와 전체 인민에게 정치적 경각성을 요청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지말고 현실적 투쟁에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구가(謳歌)하지말고 당면한 투쟁을 집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적을 증오함과 함께 기회주의자를 경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동맹자를 옹호함과 함께 그들을 교육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서만 민주진영은 강화될수있고 따라서 반민주진영을 제승(制勝)할수 있는것이다。

목전 형세에 비추어 우리는 방어의 자태를 취할것이 아니고 공격의 태세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또 이것은 주관적 원망(主觀的 願望)으로 주장하는것이 아니고 객관적 정세에서 요청되고있다。

이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은 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와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며 제기한 재조건은 무엇을 의미하고있는가? 말하자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내세운 평화적 통일방침은 그는 결코 선전에 한한 선언이 아니고 실천을 약속한 선언이다。 그는 결코 적과 타협을 의미한 선언이 아니고 적과의 강력한 투쟁을 지향한 선언이다。 그는 결코 적을 위협하는 선전적이 아니고 적을 소멸하려는 선언이다。

만일 모든 반동이 평화적 통일사업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아니할것이고 조선인민은 그를 다른 방법으로 처단할것이다。 만일 모든 반동이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를 독과하지않을것이고 조선인민은 그를 다른 방법으로 소멸할것이다。

八·一五해방은 위대한 쏘련군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가져온 조선인민의 력사이다。 이제 조선인민은 인민민주주의 조국건설의 력사행정에서 八·一五해방의 四주년을 맞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강령과 선언을 당면한 투쟁과제로하고 국토완정 민족통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분투매진하고있으며 또 분투매진하여야 할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조선독립의 진정한 원조자이다

양 영 순

一九一七년에 레닌과 쓰딸린을 수령으로하는 볼쉐위크공산당의 령도밑에 十월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결과 전제적 짜리제도를 전복시키고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정권인 쏘베트정부가 수립되었다。

쏘베트정부는 그의 탄생 첫시기로부터 벌써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가져도 보지못하였고 또 가질수도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책— 대내 및 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다。국내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며 한 민족이 다른민족을 억압하는 온갖 제도를 숙청하고 전체인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등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였다。대외적으로는 약소국가를 침략하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침략주의적 전쟁을 도발하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적 도배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안딴뜨와 국내의 반혁명적 도당들을 소탕하는 정의(正義)의 투쟁을 계속하여 왔으며 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 쏘베트동맹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백수십여 민족의 지지와 참가밑에 또 전세계 선진인류의 원조로써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하였고 청소한 쏘베트정부를 국내외의 침략도당들의 침공으로부터 방위할수 있었던것이다。

전세계 근로인민의 스승이시며、피압박민족의 구성이시며、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쓰딸린대원수는 자기 대외정책의 기본로선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우리는 모든 나라들과의 평화와 실무적인 련결의 강화를 주장한다。이것이 우리의 립장이며 이들 제국(諸國)이 쏘베트동맹과 이와같은 관계를 유지하는한 또 그들이 우리나라의 리익을 침해하려고 하지않는 한 우리는 장래에도 이 립창을 고수할것이다。

2. 우리는 침략의 회생이 되고 자기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제(諸)민족을 지지하는 립장을 고수한다。

3. 우리는 쏘베트동맹과 접양하고있는 모든 린방들과의 평화적이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주장한다。이것이 우리의 립장이며 이들 제국(諸國)이 쏘베트동맹과 이와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또 그들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쏘베트국가의 제국경의 보전과 불가침을 해하려고 하지않는 한 우리는 장래에도 이 립장을 고수할것이다。

4. 우리는 침략자들의 위혁을 두려워하지않으며 쏘베트국경을 침해하려고 기도하는 전쟁방화자들의 공격에 대하여서도 그 배(倍)의 공격으로써 응수할 용의가 있다。(쓰딸린)

이상과같이 다른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히하며 약소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진력함은 쏘베트동맹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것이다。

쏘베트국가의 창조자이며 건설자인 천재적인 레닌과 쓰딸린은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전에 이미 쏘베트국가가 장차 가져야할 국제정책상의 기본 방침을 지적하였다。레닌은 一九一六년에『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제국주의의 국제정책에 대립하여 모든 민족의 완전한 평등권、그들의 자결권과 자유로운 정치적 분리에 대한 권리、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동맹의 원칙을 승인하는『완전한 민주주의』를 력설하였고 또 당시에 레닌은『각민족들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것……』을 강조하였다。

민족적 해방운동과 로동계급의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투쟁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레닌은 식민지 국가들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식민지의 해방을 즉시 주장할것』과 모든 민족 및 식민지 해방운동과 쏘베트로씨야와의 간에 가장 밀접한 련락관계를 실현하는 정책을 수행할것을 레닌은 볼쉐위크들에게 가르쳐주었다。

레닌은 정의의 해방전쟁과 부정의의 침략전쟁에 관한 학설을 완성하였고 또『제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권원칙에 기초하여 병합이 없고 배상이 없는』평화인『민주주의적 평화』의 개념을 명확히하였다。

레닌의 위대한 전우이며 계승자이신 쓰딸린대원수는 민족과 민족문제에 관한 자기의 저서에서『민족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을 건설할수가 있다。민족은 자치의 원칙위에서 자기의 생활을 건설할 권리를 가진다。또한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련맹관계를 맺을수도 있으며 완전히 분리할수도 있다。민족은 독립권을 가지며 모든 민

족은 평등하다」라고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쏘베트동맹은 자기의 전력사를 통하여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약속을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그의 실천을 위하여 항상 투쟁하여왔다。쏘베트동맹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제국주의전쟁과 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한 민주주의적 평화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또 언제든지 그를 위하여 투쟁할것이다。쏘베트동맹은 또한 여러민족의 평화적 협동과 우의적인 공존 공영을 위하여 싸우며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독립을 옹호한다。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쏘베트동맹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법칙의 준수와 모든 국가들이 약속을 충실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위에 말한 모든 원칙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도저히 가질수 없고 사회주의적 쏘베트국가가 가지고있는 영구불멸의 특성인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쏘베트동맹의 대외정책의 일반적 원칙들은 실지에 어떻게 실천되어왔던가。

모든 인민의 평화적이며 평등적인 자유발전을 위하여 또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쏘베트국가의 투쟁은 그의 주권이 수립된 첫시기부터 시작되었다。

一九一七년十一월七일에 전로 로동자 및 병사대의원 쏘베트의 명의로 전로씨야 로동자와 병사 및 농민들에게 보내는 격문가운데에는 쏘베트주권은 모든 인민들에게 즉시 민주주의적인 평화를 제의하며『로씨야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다음날인 一九一七년 十一월八일에는 브·이·레닌이 기초한 평화에 관한 법령이 제二차 전로쏘베트대회에서 채택되었다。이 법령가운데서는 강화체결에 대한 교섭을 즉시 개시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이 평화는『병합이 없고 배상이 없는 평화』가 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쏘베트정부는 짜리정부가 약소제국과 압박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히 체결하였던 여러가지 조약의 폐기를 공포하기에 착수하면서「이 조약들의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로씨야의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리익과 특권을 제공하며 대로씨야인의 식민지병합을 유지·또는 확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즉시 폐기를 선언한다」라고 성명하였다。또 一九一七년十一월十五일에는 로씨야의 제인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었다。

一九一七년 十二월三일에는 브레스트 리또브쓰크에서 강화교섭이 시작되어 로씨야를 결국 제국주

의적 세계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였고 一九一七년 十二월五일에는 로씨야와 동방의 전회교도(全回敎徒)근로자들에게 레닌과 쓰딸린의 서명으로서『자기민족의 생활을 외부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수립하는 각민족의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이미 전복된 과거의 짜리정부가 체결하였으며 께렌쓰끼정부가 다시 확인한 꼰쓰딴찌노브르의 점령에 관한 비밀조약은 오늘에는 이미 파기되었고 없어졌다는것을 우리는 선언한다』『뻬르샤의 분활에 관한 조약은 이미 파기되었고 없어졌다는것을 우리들은 선언한다』『토이기의 분활에 관한 조약은 이미 파기되었고 없어졌다는것을 우리들은 선언한다』라는 격문이 발표되었다。一九一八년 一월四일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분란의 국가적 독립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고 동 一월十一일에는 쓰딸린이 작성한 토이기 아르메니야에 대한『완전 자주독립을 보장할 자유로운 민족자결권』을 승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아르메니야 인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되는 기본』들도 거기에는 지적되었다。즉 외국군대의 철거,망명자들과 강제 이주민 및 피난민들의 자유로운 귀국등이었다。

쏘배트국가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적인 강압과 억압의 제도를 숙청하였다。즉 부르조아와 지주의 제정로씨야가 체결한 불평등조약들을 폐기하였으며 비밀외교문헌들을 공포하였다。또 제인민들이 종전의 예속국가로부터 분리하여 자주적인 국가를 조직하는 권리를 원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인정하였다。그리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제국가의 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힘껏 원조하였고 한나라가 다른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온갖 형태의 기도를 배격하였다。쏘베트국가는 민족자결권을 실지에 실현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건된 정의의 군대 쏘베트동맹의 붉은군대는 부단히 장성하는 위력으로써 외국의 간섭자들 및 국내의 반혁명도배들의 루차의 침범을 무자비하게 격퇴하였다。타방으로 외교면에 있어서는 항상 평화를 위한 투쟁을 완강히 계속하였으며 간섭자들의 제국주의적 략탈적 의도를 여지없이 폭로하였고 또 하고있다。

또 쏘베트국가는 평화를 위하여 제국주의적 제국가간의 모순을 리용하여『강도놈과의 타협』이라는 레닌적 정책을 수행하였다。

쏘베트국가는 발직크연안의 여러국가,분란 및 파란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제국가의 독립권을 승인하였다。

이 여러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승인하는 어외

에도 그들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며 그의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킬데 대한 용의로서 짜리로씨야가 준 차관을 면제하고 물질적 원조를 하여 주었다。

그리고 쏘베트동맹과 식민지 동방제국가와의 조약 즉 一九二一년의 아프가니쓰딴、페르샤 및 토이기와의 조약과 一九二四년의 중국과의 조약은 국제법의 력사상에 있어서 새기원을 여려놓았던것이였다。이 조약들에 있어서 쏘베트정부는 이들 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승인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제정로씨야가 그들에게 강요한 치외법권、령사재판권 및 기타의 제한들을 철폐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주독립을 더욱 확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이들 제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주었다。즉 一九二一년 二월二十八일부로 체결한 아프가니쓰딴과의 조약에 있어서 량측은 「자립성에 근거하여 또 그 각인민의 일반적 희망에 일치하여 동방민족의 자유를」서로 승인하였다(제七조)。쏘베트정부는 정의와 또 인민들과 그 거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원칙을 준수하여(제九조) 이전 그에 속하여있던 국경지대를 아프가니쓰딴에게 이양할데 동의하였다。쏘베트정부는 「아프가니쓰딴에게 금전상 원조와 또 기타의 물질상 원조를 줄데 대한」의무를 자담하였다(제十조)。

一九二一년 二월二十六일부 이란과의 조약에 있어서 쏘베트정부는 로씨야 대부은행의 재산과 이란지역내에 있는 로씨야시설(도로、철도、부두、상품창고、기선、전신、전화선 및 엔제리항구)과 모든 로씨야의 리권 및 로씨야 전도사의 재산등을 무상으로 이란에 이양하였다(제九、十、十二、十五조)。

이 조약에 있어서 쏘베트정부는 오직 한가지의 조건을 이란에게 제의하였다。그것은「이란인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옹호권을 보존하면서」(제十三조) 이란에게 반환된 일체 재산을 제三국 또는 그 공민에게 소유、관리 또는 리용에 이양하지않을데 대한 조건이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一九二四년 五월三十一일부로 중국과의 간에 체결된 조약에서 쏘베트정부는 「의화단 폭동」의 의무로써 로씨야가 받게되어있는 권리를 거부하면서 이 거부의 조건으로서 반환된 재산이 중국정부에 의하여「중국인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창조하는데 전적으로 또 완전히 리용하도록 할것을」규정하였다(제六조)。국경、항행 및 통상문제에 관하여서도 량측은 평등과 정의와 또 상호 리해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할데 관하여 서로 책임을 졌다(제八、제十三조)。중동철도를 공동사용할데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쏘베트정부는 중국공화국의 민족적 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리에 저촉되는 모든 문제는「중국정권의 관리하에 있게될것이다」라는것을 예견하였다。

一九二一년 三월十六일부 토이기와 체결된 친선우의 조약에 있어서 량 체약국 각방은「체약하는 량방중에서 타방이 강제당하게되어 수행되는 어떤 평화조건도 또는 어떤 국제적 조서(調書)도 승인하지않을것」을 동의하였다(제一조)。량국은 동방제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새 사회제도를 위한 투쟁과의 접촉을 승인하면서 자유권과 독립권 또 인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통치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이 인민들에 대하여 엄숙히 승인하고있다」(제四조)。흑해 해협정책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연안 제국대표로써되는 특별 대표회의에 넘기어야 할것이었던바 이 해결은「그 특별회의의 결정이 토이기의 완전독립권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토이기의 안전과 그 수도 꼰쓰딴찌노브르의 안전을 침범하지않는 조건에서」라는것이였다(제五조)。

쏘베트정부가 동방린국들의 독립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사실은 이들 제국과 자본주의 렬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자주독립을 공고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쏘베트동맹의 우호정책에 의거하면서 아프가니쓰딴은 영국의 피보호국이였던 처지를 벗어나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승인받게되었으며 토이기와 이란은 치외법권을 청산하였으며 중국은 자국에 강제된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일정(日程)에 올릴수 있게되었다。

중국의 위대한 혁명가며 레닌여 표현한「전투적이며 승리한 민주주의의」대표자인 손일선이가 자기의 정치적 유훈에서 중국의 자유와 평등의 달성은 중국인민대중의 향상과 또「평등한 민족으로서 대하는 제인민과 중국인민대중과의 단결에서만이 보장될수 있느니만큼」쏘베트인민과 중국인민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것은 당연한 것이다。

一九二五년 손일선은 림종기를 맞이하여 쏘베트동맹정부에 보내는 자기의 서한가운데서「당신들은 자유로운 공화국동맹의 수령입니다。이 자유로운 공화국동맹은 불멸의 레닌여 피압박민족에게 남겨준 세계의 진정한 유산인것이며 제국주의하에 재난을 당하고있는 인민은 장차 이것에 의지하여 그들의 자유를 보위할것이며 고대로부터의 오직 노역과 전쟁을 기초로한 국제제도중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할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그 서한의 맨끝에서 「멀지않아 동이 틀 이때에 쏘베트동맹은 량우(良友) 및 동맹국으로서 강성하며 독립한 중국을 환영하며 두나라는 세계피압박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대업에 있어서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

승리를 쟁취할것을 희망합니다。」라고 썼다。

또 一九四四년七월二十一일 씨리아 외무상은 쏘베트동맹외상 몰로또브에게 보낸 전보에서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침략과 지배의 정신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노력과 성과는 모든 대소국가들을 위한 미래의 자유평등에 대한 합법적 기대의 근거로 되고있다。

이와같이 쏘베트동맹은 전세계 선진인류와 그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절대한 신망을 받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오직 그의 대내외정책의 공명정대하고 확고부동한 정책과 그의 철저한 실천에 있는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쏘베트동맹의 결정적 역활에 의하여 서방의 팟쇼독일과 동방의 제국주의일본이 반팟쇼민주진영앞에 패망된결과 전세계인류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해방되였다。 야만적 팟쇼독일과 제국주의적 일본의 질곡에서 독립과 정치、경제 및 문화등의 온갖 권리와 자유를 유린당하고 가혹한 억압과 착취와 학대에 신음하던 세계각처의 수억만 인민들과 같이 조선민족도 해방되였고 세계에는 전체인민들이 갈망하던 항구한 평화와 민주를 확립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닦아놓았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탐욕적인 월가의 독점자본가들이 지배하고있는 미국은 전후문제 해결을 위한 얄타 및 포츠담 협정을 배반하고 그의 침략주의적 본질을 여실히 표현하고있다。 그는 패전독일과 일본의 비군국주의화 민주화를 도모할 대신에 각국의 민주운동을 탄압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원한깊은 적이였던 팟쇼잔재들을 비호 조장하여 그들을 군국주의로 재생시키고있다。

세계제패의 야욕에 눈이 어두운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 군사적으로 타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자의하면서 새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다。 악명높은 마샬계획의 실시는 전패국뿐만 아니라 전승국인 영국과 중국에까지 침략적 마수를 뻗쳐 수많은 국가의 경제를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그 나라의 내정에 직접 간섭하고있다。 한편 태평양과 대서양에 산재한 도서와 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까대륙에까지 수백개소의 항공기지를 설치하고 「북대서양동맹」「태평양동맹」「지중해동맹」을 조작하여 세전쟁 도발음모에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같은 침략적 본질은 작금(昨今)에 비로소 생각하여낸 정책이 아니다。 우리가 잘아는바와같이 미제국주의는 一八八六년 한미수호조약에서 그리하였고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에서 그리하였고 로일전쟁후 一九〇五년 보츠마쓰로일강화회의 시의 일본의 조선강점승인에서 그

려하였고 제二차대전후 독일에서、일본에서、중국에서、희랍에서、이태리 및 기타 그의 피묻은 발길이 미치는 세계의 도처에서 그러하였다。 이와같이 미제국주의 군대가 주둔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역시 그러하다。

국제협약에 의하여 조선에서 일제를 완전히 구축하고 조선민족이 잃었던 권리와 자유를 찾게하고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창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에는 一九四五년 八월十五일 해방과함께 북위三八도를 경계로 하고 북반부에는 쏘베트군대가 진주하고 남반부에는 미국군대가 각각 림시로 진주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미제국주의가 상륙하자마자 해방후 전체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전조선 방방곡곡에 창설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함으로써 자기의 반민주정책의 본질을 벌써 적라라하게 내놓았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그들의 출판물과 언론기관을 압수 또는 폐쇄 혹은 파괴하며 수많은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학살하였다。 한편 그들은 일제통치때에 일제와 야합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팔아먹던 친일파와 력사를 역행시키려는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민족분렬과 예속화 정책을 감행할수 있는 지반을 닦아놓았다。 이 기초위에서 모든국가 및 사회생활에서 인민의 정치、경제、및 문화적 권리를 여지없이 박탈하고 조선을 자기의 상품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로 영원히 예속시킴으로써 미래의 아세아대륙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진정한 해방자인 쏘베트군대는 자기가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모든 정권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조선인민에게 이양되었고 사회의 각계 각층은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 창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정당 및 사회단체를 조직하며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 및 신앙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에서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찾게되었다。

쏘베트군대는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원조하여 주는 그 역활을 실지로 수행하였다。 쏘베트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함에 제하여 조선인민에게 고하는 선언서에서 약속한 해방군의 사명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우리 공화국 북반부는 오늘과같은 튼튼한 민주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베트동맹인민과 그의 군대가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원조하여 주었으며 또 원조하여 주고있는 사실들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북조선민주건설에 대한 쏘베트군대의 원조는 첫째로 쏘베트군대가 일본강점자로부터 조선인민을 직접 해방한 북조선에서 우리민족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주며 우리민족이 자기의 국가기구를 창설하고 민족경제를 복구발전시킴으로써 능히 자기운명의 주인이 될수있는 전제조건들을 지어주는데로 부터 출발하였다。 반세기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통치의 결과 해방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부문에는 일본의 가혹한 봉건적 식민지적 착취제도와 그에 기초한 악독한 낡은 통치기구들과 노예적 식민지적 문화유습 및 일제적 사상잔재들이 남아있었다。

조선농촌에는 수천년을 두고 내려오는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에 의한 야만적인 토지략탈제도가 아직 존재하였다。

로동자들의 상태는 전세계에서 그 류례를 보지 듯할만큼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었다。八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 그리고 로동보호같은 제도는 전연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의 녀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유습에서 해방되지못하였었다。조선의 문화인 지식인들은 아직 일제노예교육의 여독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다。

八·一五이후 우리조국은 해방민족의 애국적 열성에서 인민이 요구하는 민족의 부활과 독립의 길로 힘찬 걸음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자체의 내부적 력량으로써 해방을 쟁취하지 못하였기때문에 해방직후의 조선인민은 일제가 반세기동안이나 기만적으로 선전하고 교양해 오던 탁후한 반민주적 사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민족적 재생의 길에 올라선 조선민족의 앞에는 조국을 자주독립국가로 회복하며 이를 부강한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발전시켜야할 엄중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 정치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조선의 방방곡곡에는 조선인민의 창발적 의사로 되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무릇 어떠한 민족이나 인민을 물론하고 자기의 정권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아무런 승리도 쟁취할수 없으며 민족적 독립도 인민의 권리도 결코 보장할수 없는것이다。그러므로 쏘베트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하는 즉시로 정권을 조선인민들자신의 손에 맡겨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민주발전의 기본적 전제조건을 지어주었다。

둘째로 우리조선인민이 모든 부원과 토지와 산업 경제 운수등의 제기관 시설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선의 자주적 독립국가건설의 경제적 토대

를 튼튼히 구축하여 일제가 파괴하고간 제반 시설들을 복구하고 선진적 기술을 인입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해방전에 있어서 동양척식회사、조선식산은행、금융조합등은 기타의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과 함께 조선의 농착지와 수리조합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조선의 농촌경리를 빈궁과 파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었던것이다。그러므로 쏘베트군대가 진주한 북조선에서 이상과 같은 착취기관들은 해방과 함께 완전히 청산되었고 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들은 인민의 소유로 되었다。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사태가 계속되고있다。

조선내에서 일본인의 소유로 되었던 자본은 일제가 조선에서 식민지적 리윤을 획득하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군사기지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의 고혈로써 축적된것이었다。따라서 이 자본으로서 건설된 일체의 산업—경제시설들은 당연히 전체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것이었다。

쏘베트군대가 진주한 북조선에서는 해방전에 일본국 및 일본인의 소유이던 一、○三四개소의 기업소 및 기타 일체의 산업경제시설들이 조선인민의 완전한 소유로 되었다。만약에 이것이 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완전한 소유로、되지않았더라면 오늘과같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발전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위대한 인민의 나라인 쏘베트동맹은 제국주의 철쇄에서 해방된 약소민족에게 대하여 쏘베트동맹 인민들이 쓰고있는 온갖 진정한 원조정책들을 우리 조선민족들에게 아낌없이 써왔다。

쏘베트동맹의 이와같은 우호적 정책은 벌써 조선문제에 관한 모쓰크바三상회의의 결정에서 명백히 표현되었다。이 결정은 우리 조국이 독립국가로 될수 있는 전제조건을 지어주었다。

또한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달성한 시책과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결과의 뒤에는 쏘베트군대와 쏘베트인민의 진정한 방조와 협력이 있었던것은 물론이다。일본인들은 패망시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三백개소의 기업소와 탄광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였던바 이를 복구시키며 재건한는데 있어서 쏘베트군대와 쏘베트기술자들의 활동이 거대하였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쏘베트기술자들은 미숙한 조선기술자들을 직접 방조하여주었고 그들이 방조해준 二八○개소의 공장 기업소가운데는 흥남화학공장、성진、송림、강선에 있는 제철공장들과 남포、해주에 있는 유색금속공장들과 곡산、검덕、성흥광산등이 포함되어있다。그들은 파괴된 군수공장의 토대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

동차 수리공장 기계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방조하여 주었다。 조선기술자들은 쏘베트기사들의 열성적 방조밑에 자기의 애국적 창발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력으로 꼭쓰와 강철을 만들어내고 철선을 건조하고 인견사를 뽑아내는 영용한 건설사업에 성공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조선의 농촌경리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막대한 기여를 다하였다。 특히 관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결과 一九四七년 一년간만 하여도 二二、一二九정보의(국가에서 一九、七五三정보、농민들자신이한것 二、三六八정보) 토지가 새로이 관개(灌漑) 되었다。 쏘베트동맹은 우역(牛疫)과 돈역(豚疫) 예방에도 많은 약품의 원조를 주었다。 많은 쏘베트동맹 수의(獸醫)들과 농촌경리기술자들은 조선인 기술자들을 원조하였다。

쏘베트동맹은 보건 및 교육문화방면에 있어서도 많은 원조를 주었다。 쏘베트동맹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약품을 제공하였으며 쏘베트동맹 의사들은 조선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쏘베트동맹은 선진과학과 예술의 위대한 교사로 되어있다。 해방후 쏘베트동맹은 과학과 예술을 위한 도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쏘베트동맹은 조선의 민족간부양성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와 원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미 많은 대학생과 연구생들이 쏘베트동맹의 대학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대학을 방조하기위한 사업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벌써 一九四五년 十二월 모쓰크바三상회의에서 볼수 있는바와같이 쏘베트대표단은 조선의 진정한 원조자로서 그 정당한 대외정책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조선을 또다시 노예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미국의 제의에 반대하고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의 기본으로 된 자기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정이 발표된지 수일후인 一九四六년 一월초에 전조선 각지에서 개최되었던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지지군중대회와 시위운동은 실로 조선인민의 진정한 의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이 결정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조선인민들을 탄압하는 한편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에 의하여 응당 숙청되어야할 조선인민들의 원쑤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백방으로 옹호육성하였다。

진체조선인민은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실시하려고 시종일관한 노력을 다한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쏘베트동맹은 자기군대가 진주하고 있었던 북조선에서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의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을뿐만 아니라 쏘미공동위원회에서는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루속히 민주주의적 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하도록 협력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립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적 조선림시정부수립에는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친일、매국노들과 결탁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파탄시키고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방해 파괴시키는데만 몰두하였던것이다。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는것은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에 예견된 중요한 방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표들은 이와같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협의에서 제외하였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친일 매국노들로써 조직된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유상 무상의 수백을 산하는 유령단체들을 전부 협의에 참가시키려고 책동안 사실과 三국외상회의 결정을 신속히 또한 정확히 실시할 목적으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한 쏘베트동맹대표들의 제출한 모든 제의들을 아무 근거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실은 이것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책동으로 말미암아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실시하는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쏘베트동맹대표는 조선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쏘미량국군을 一九四八년초까지 동시에 철퇴시키고 련합국들의 참가 없이 또한 간섭이 없이 조선문제해결을 조선인 자신에게 맡기자는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당시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문제를 급속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은 간단한 길이었다。

미국은 쏘베트동맹의 량군동시 철퇴에 관한 적당한 제의를 반대하였을뿐만 아니라 통일선거로서 최고 립법기관을 창설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한지 이미 오랜 오늘날까지 아직도 우리강토에 머물러있다。

조선침략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미국은 유·엔을 리용하였다。 거수기를 리용하여 자기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국련총회에 미국은 조선문제를 끌고갔으며 미국은 조선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통일민주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의 부흥을 방해하기 위하여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동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제三차 총회에서 자기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또다시 소위 신조선위원단을 날조하여

남조선에 과견하였다。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의 직전에 있는 남조선 리승만 괴뢰정부를 구하려는 희극을 폭로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조선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선인민들의 숙망을 실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다。전조선인민들의 절대다수의 지지하에 실시된 통일선거로써 조선최고립법기관이 창설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조직되자 쏘베트동맹은 이를 솔선 승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제一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량군의 동시철퇴를 요청하자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에서는 대소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타민족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을 옹호하는 자기원칙에 의거하여 즉시 결정을 채택하여 조선인민의 요청을 수락하고 자기정부에 지시하여 작년말에 쏘베트군대를 우리강토에서 완전히 철거시켰다。쏘베트동맹은 조선완전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난 三월에 조선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 최혜적이고 또 완전한 평등적 립장에서 체결하였다。

이와같이 우리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세계민주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가하게된것은 실로 쏘베트동맹의 큰 원조가 있었기때문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상투적 수단인 민족분렬정책으로써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감행할 목적으로 五•十망국단독선거를 조작한후 그것을 통하여 우리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미군이 주둔한 리승만 괴뢰「정권」하의 남조선에는 오늘 비참한 민족적 불행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참혹하게 심각화되고 있다。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유린되었으며 공장은 파괴 폐쇄되고 거리에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방황하고 있으며 물가는 폭등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참혹하게 령락되었다。농민들은 가혹한 량곡수탈과 지주들의 착취에 의하여 파산과 기아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민족문화는 와해와 퇴폐의 일로를 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애국적 인민들은 야수적 탄압과 잔인무도한 대중적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경찰테로제도가 지배하는 암흑한 팟쇼전제의 천지로 화하여 버리고 말았다。

전체조선인민과 완전히 절연 고립되여 오직 자기의 상전인 미제국주의군대의 총칼하에서만 자기들의 여명을 보존할수 있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주둔의 구실을 주어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이러한 엄중한 조국의 위기에 직면하여 민족분렬의 음흉한 기도를 분쇄하고 미군을 우리조국강토에서 즉시 철거케하며 리승만매국도당을 철저히 타도 소탕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우리조국을 통일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총궐기하였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강령과 선언서는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위업을 성취하려는 애국적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되는것이다。

오늘 전체 애국적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들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자체의 수중에 장악하고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을 일층 추진시키기 위하여 이 대회의 력사적 선언서에서 호소한 투쟁임무를 관철하는 문제가 가장 긴박하고도 숭고한 민족적 당면 과업으로 제시되었다。반동이 아무리 광포한 최후발악을 다한다 할찌라도 승리는 반드시 민주의 편에、인민의 편에 있다는것을 력사는 가르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길에서 민족적 위업에 장애를 주는 모든것을 배제 처단하고 위대한 쏘베트인민과의 영원불멸의 친선과 상호협조를 일층강화하며 새 전쟁도발자들을 반대하는 세계자유애호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승리의 길로 용감하고 자신있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현하 조건하의 정치정세하에서 국내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은 오직 위대한 쏘베트인민과의 친선하에서만 가능한것이다。진정으로 약소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쏘베트동맹은 앞으로도 우리조선인민들에게 아낌없는 방조를 줄것이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쏘베트인민과의 영원불멸한 친선의 강화는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맞이하면서 악독한 일제의 기반에서 신음하던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회상하면서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주었을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에게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할 광명의 길을 열어준 쏘베트군대와 그의 수령이신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에게 전민족적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조쏘인민의 영구불멸의 친선은 영원히 앞으로 더 공고화될것이다。

남조선에 있어서의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화정책

신 성 호

전후「세계제패」를 망상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 도처에서 다른 국가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몰렴치하게 침해하며 세신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로서 감행되고 있다。

소위「마샬안」에 관련된 주로 서구라파 제국가들에게는 불평등적 일방적 노예적 조약에 근거하여 자기의 잉여상품을 강제로 침입시키고 그나라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고 있다。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미제국주의자의 전권위원과 월가의 전권대리인들에 의하여 그 정부의 교체와 정부구성의 변경이 지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회랍 및 중국같은 곳에서는 로골적 무장간섭으로、근동 및 중동제국가에 있어서는 차관、군사기지화、고문단 설치등의 방법으로 지배하고 있다。독일같은 곳에서는 분활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타민족의 독립을 방해하며 그의 자주권을 과괴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는 방법과 형태는 실로 다종 다양하다。소위『원조』라는 위선적 탈밑에 설정되는『차관』및 노예적 조약、무장간섭과 군사기지설치、고문단의 배치、자기의 거수기들로 조작한 소위『유·엔위원단』의 파종、강제 분활과 동족상쟁음모、월가의 지령에 의한 정부교체와 정부구성의 변경등등 각종 각양의 형태와 방법을 쓰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이상의 다종다양한 야수적이고 교활한 방법과 형태를 하나도 빼어놓음 없이 총동원하여 정치적 경제적 예속화정책을 강화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 × ×

정치적 방면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중세기적 군사 경찰제도를 강화한 기초위에서 총검으로써 민주진영을 위협 탄압하고 반동세력을 비호 조장하며 나아가서 민족부렬과 동족상쟁을 불지르면서 자기군대의 남조선 장기주둔과 항구적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지반을 고정화시키려고 갖은 흉악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제국주의 군대는 남조선에 진주하던 첫날부터 자기의 무력에 의하여 군사적 독재를 수립하는데 그 주력을 두었다。이것은 一九四五년 九월八일 소위 태평양 련합군 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에서 벌써 명백하여졌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륙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三十八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함。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좌와 여히 포고함。

조선 북위 三十八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직접 종사할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한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용시없이 엄벌에 처함」。(방점은 필자)이 포고령은 실제에 있어 미제국주의자의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조금도 은폐함이 없이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이 포고령은 사실에 있어 군정기간 중이나 그것이 폐지된 후에나 남조선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신성불가침적』인 권력으로 되어있다。이 포고령중에는 조선인민의 자주권이나 독립이나 민주주의발전에 대한 고려가 터럭끝만큼도 없다。

『모든 행정권』을 미제국주의자 자신이 완전히 틀어쥔다는 것과 미제국주의자의 하고싶은 일을 조금이라도 반대한다면『용서없이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미제국주의자의 계획이었으며 명령이었다。만약 얄타협정과 포쯔담선언에서와 같이 조선을 독립국가로 발전시킬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모든 행정권』을 미국인자신이 전부 틀어쥐다고 선언할수 없었을 것이다。만약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자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미군의 명령에 복종할것을 감히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제국주의자의 남조선에 대한 모든 침략정책은 이 포고령을 기초로 하였으며 그후 四년간 미제국주의자는 이 정책을 추호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이 포고령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미제국주의자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一해방직후 조선인민들의 창발적 의사에 의하여 북조선에서와 같이 남조선 방방곡곡에 조직된 인

민위원회는, 조선인민을 자기의 식민지 노예화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들어온 미제국주의자에게 실로 눈에 든 가시와 같았다。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민위원회들을 탄압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 군대의 총칼은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무장해제와 일본식민지통치 기구를 소탕하기 위한 본래의 사명에 사용될 대신에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치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탄압 해산하는데로 돌렸던 것이다。

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기반밑에서 해방시키려 온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려 왔다는것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었다。

미제국주의군대의 총검은 그후 남조선민주진영과 애국적 인민을 탄압 학살하는데 더욱 로골적으로 향하여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매국적 반동도당들을 조장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실시를 파탄시키려고 날뛰었다。그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지지찬동하는 시위군중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으며 애국인사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一九四六년 五월에 개최되었던 제一차 쏘미공동위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의 정확한 집행과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절규하는 조선인민들에게 더욱 혹심한 탄압의 총탄을 퍼부었다。미제국주의 자들은 직접 자기의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 민주진영의 중심적 정당인 조선공산당 중앙본부를 습격하고 그의 중앙위원회 기관지 『해방일보』를 폐쇄하였다。비행기 전차를 출동시켜 적수공권의 화순탄광 로동자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하의도 농민들을 대량적으로 사살하였다。九월에 이르러서는 조선공산당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지도자들을 미군이 직접 검거하여 갖은 고문을 감행하였다。一九四六년 九월 철도로동자들의 평화적 총파업도 十월인민항쟁도 미제국주의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탄압해산되고 수만의 애국인민들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투옥 학살되었다。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민주진영을 지하로 구축하고,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초보적인 민주주의 자유까지 박탈하였다。

민주진영과 인민에 대한 미군의 직접적인 무력적 탄압은 남조선 반동세력을 조장육성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미제국주의자가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면 소위 조선인의 『방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조국의 통

일과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거대한 민주세력 앞에서 조국을 재차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의 정책을 지지하는것은 그 숙청이 예정되어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이외에는 참을수 없었다。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정책 실시에 있어 강대한 방해물이 되는 민주진영을 약화 내지 말살시키기 위하여 온갖 탄압을 감행하는 동시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비호하여 남조선 반동세력을 규합하기에 급급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해방직후 북조선은 고사하고 남조선에서만도 국내의 정치적 세력배치에 있어서 민주진영은, 현저한 세력으로서 매국적 반민주진영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조선공산당을 위수로 하여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위신은 인민들 속에서 강대하였으며 반동세력은 보잘것이 없었다。이것은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남조선에 반동정당이라고는 그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현재 남조선 반동진영의 중심세력인 한국민주당까지도 미군이 상륙한 후에야 비로소 그 당나귀의 귀를 내놓기 시작한것만으로도 넉넉히 알수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남조선 매국적 반동세력은 오직 미제국주의의 총칼위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수명이 미제국주의의 무력에 의하여서만 유지되고 있음을 명백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만약 남조선에서도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자유의사가 용납되었다면 반동세력이란 전연 그 머리도 들지못하였을 것은 三척동자에게도 분명한것이다。이러한 반동세력의 미약한 형편은 미제국주의자로 하여금 남조선에 상륙하던 첫시기부터 반동진영을 육성조장하는데 총검의 위력과 아울러 그 세심한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一九四五년말에 벌써 친일과 거두 김성수를 군정청 수석고문으로 들어앉히고 매국노 리승만을 미국에서 다려왔다。리승만과 김성수는 이래 미제국주의자가 쥐어주는 총검으로써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애국인민들에 대한 테로 학살을 감행하며 동족살상의 총지휘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리승만도당의 이러한 망국행위와 야만적 학살정책을 묵묵히 받아들일만큼 락후하고 무력하지는 않았다。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소망하는대로 되는 민족이 아니다。조선인민들은 앙양된 정치적 자각과 열렬한 애국정신으로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에 투쟁을 거듭하였다。이러한 투쟁은 남조선 로동당을 위수로한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단체들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자주권과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이 거족적 투쟁으로서 자기들의 변함없는 지향과 거대한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쏘련군대가 진주하였던 북조선에서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인 김일성장군의 지도밑에 제반 민주개혁의 승리적 실시와 날로 확대 공고화되는 그의 찬란한 성과와 아울리 남반부인민들의 이와같은 치렬한 구국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도배를 초조 당황케 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량군 동시 즉시 철퇴에 대한 쏘베트정부의 제의와 북조선 주둔 쏘베트군대의 솔선 철거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랑패하게하였다。 미제국주의군대는 이제는 남조선에 계속 주둔할 하등의 구실도 없게되었다。

그러나 철면피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켰다。 그들은 「유·엔」에서 자기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 괴뢰집단을 조선에 파송하여 총칼로써 五·十망국 「단선」을 감행하고 리승만 괴뢰 국회와 망국정부를 조작하였다。 이럼으로써 자기군대의 남조선 장기주둔을 획책하며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을 영구적으로 계선화하여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렬된채 남겨두고 자기의 식민지예속화 정책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것이다。

리승만 괴뢰정부 조작이후 미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정책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여져가고 있다。 전조선인민들의 절대적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유·엔신조선위원단」이라는 괴뢰집단을 재차 우리 강토에 끌어 들여다 놓고서 자기들의 흉악한 식민지략탈정책에 대한 전세계 인민들과 조선인민들의 여론을 기만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리승만 괴뢰정부의 탈뒤에 숨어 소위 「국방군」과 반동경찰들을 인민 학살에 총출동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 四월 이후 소위 「국방군」과 반동경찰들은 거의 십만명의 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남조선 각지를 초토화하고 있으며 三八선 도발행위를 거듭하면서 동족상쟁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는 악명높은 「병역법」을 괴뢰 국회에서 통과시켜 무고한 인민의 아들 딸들을 동족상쟁의 죽음터로 강제로 쳐몰아내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국토의 분활을 고정화하고 동족상쟁을 선동하고 있는 음모의 리면에는 비단 남조선 뿐만 아니라 전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예속시키려는 흡혈귀와같은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다。

물론 조선을 남북으로 분활하는것은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그 첫째 야욕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의 팽창야욕은 남북을 분활하여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드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전조선을 식민지화하려면 우선 남북을 분활하여 남조선에서 반동기지를 건설하여야되겠다는데 있는것이다。 이것은 八월二일 우리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께서 중앙신문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언명하신데서 분명하게 알수 있다。 「리승만도배들은 자기들의 주권이 튼튼하지 못하며 또 민주주의적 총선거가 그들로 하여금 주권을 잃어버리게 할수 있는것을 인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데 대한 제의는 리승만의 마음에 맞지않으며 그는 미군벌들의 지지하에서 준비하는 전쟁방법으로써 전조선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설정하려고 야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리승만도당이 「전조선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설정하려고」하는것은 즉 미제국주의자가 전조선적으로 자기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야망하는것과 똑 같은 것이다。

미제국주의자의 분활정책속에는 참으로 흉악한 음모가 포함되어 있다。 북조선의 민주주의개혁을 파괴하고 전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위하여 원쑤들은 一억五천만딸라의 차관설정、四十만군대편성운운을 떠들어대면서 최후적 발악을 다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야당」은 터럭끝만한 실현성도 없는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 자가 그사이 아무리 조선민족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책동하였지마는 그것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조리 실패된 것으로도 력력히 증명된다。 오늘날 우리민족은 미제국주의 자가 온갖 테로 학살의 방법으로 그 방해에 열광하였지마는 三八선을 넘어 남북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기의 총력량을 집중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조직하기에 성공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조선인민들은 벌써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남북인민들의 통일선거로써 통일적 중앙정부를 가지지 아니하였는가? 미제국주의자의 분활정책이 실패에 돌아갔거든 하물며 분활에 의하여 전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이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우리공화국정부 수상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셨다。

「그녀나 리승만외 야망과 실현간에는 거리가 멉니다。그것은 우리의 조선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의 초소에 튼튼히 서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리승

만도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고 있는 내문입니다.」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무장투쟁의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의 빨찌산 전통을 직접 계승한 인민군대가 우리조국에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상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의 야망이 어찌 일거에 분쇄되지 아니하겠는가? 이와아울러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항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치렬화되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열화같이 지지하고 궐기하는 조선인민들 앞에 미제국주의사의 분활정책은 반드시 실패할것이며 이 정책의 실패는 미제국주의자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 ×

미제국주의의 야수적 정치 군사적 예속화정책과 병행하여 그의 악랄한 경제적 예속화정책은 남조선 경제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무력과 정치적 지배권을 리용하여 전시 잉여상품들을 남조선에 강매하며 불평등적 망국적 「협정」들과 「차관」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미제국주의의 상품시장과 원료원천지로서 그의 예속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파괴정책도 역시 남조선에 자기군대를 상륙시키던 첫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一九四五년에 벌써 남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인 부평조병창, 삼릉제강소, 소림제련소, 조선비행기공장, 진해공창, 조선전기제강소등의 기계를 파괴하여 혹은 땅에 파묻고 혹은 바다에 던져버린 사실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一九四六—一九四七년 량년간에 남조선사업이 벌써 三분의 一이하로 축감된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一九四八년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더욱 혹심하게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도당들이 가장 활기를 띠고 그 운영이 진행된다고 자랑하는 섬유공업의 실례만 보더라도 一九四八년도에 남조선산업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력력히 알수 있다. 괴뢰 정부의 소위 상공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 면직물이 六七%로, 마직물이 四○%로, 피복이 二五%로, 내의가 二○%로 각각 격감되었다. 그러면 남조선의 소위 기계공업은 어떠한가? 역시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는 정밀기계가 三八○톤에서 二五○톤으로, 일반 기계가 一,○三八톤에서 六○○톤으로, 농기구가 一二,五○○톤에서 六,○五○톤으로, 운수기계가 三,二二○톤에서 一,八○○톤으로 각각 감소되었다 한다.

이상의 두가지 실례만으로도 우리는 남반부의 산업이 어떻게 파멸되어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만약 우리가 一九四八년도의 소위 수출 수입을 보면 이러한 산업파멸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것을 더욱 명확히 알수 있을 것이다. 워싱톤 八월三일 에이·피통신에 의하면 一九四八년도 남조선 수입은 一억八천九백만딸라요, 수출은 겨우 八백九十만딸라로 즉 수출은 수입의 겨우 四·七%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국내산업이 파멸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一九四八년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정부사이에 체결된 두개의 경제협정 즉 「재산 및 재정이양에 관한 한미협정」과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하여 그 기초가 완전히 닦아졌다. 그후 월가의 주인들은 소위 이·씨·에이를 통하여 소위 직접투자 또는 대부의 형식으로서 철도 체신에 대한 전권리의 독점과 아울러 소위 「대한석유회사」 「대한석탄회사」「광물개발공사」「광업진흥회사」 「대한 전기회사」및 「대한해운회사」등을 조직하였다. 이상의 회사들은 혹은 미국인 단독투자로 혹은 미국인과 괴뢰정부와의 합자로서 설립되었다. 그 형식이 어떻든 이상의 회사들은 그 전권이 미제국주의자의 손에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으로써 남조선의 동력, 연료, 각종 지하자원, 운수, 통신등의 전권을 틀어쥐었다. 남조선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미국인의 수중에 들어간것을 부인할자 그누구이런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완강히 거부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농업위축을 무제한으로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은 통일의 방해로 인한 비료의 고갈과 위에 말한 농기ㅣ 생산의 격감으로 력력히 알수 있다.

무제한적인 통화람발은 남조선경제를 더욱 극심한 혼란속에 집어넣고있다. 해방후 전조선을 통하여 八十억밖에 아니되던 통화가 一九四九년 七월말 현재로 四백四十억에 달하였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九월말에는 五백억을 돌파할것이라고 소위 재무부장관 김도연은 뻔뻔스럽게 공포하였다.

남조선경제는 실로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하여 파멸 혼란 위축 및 예속화의 일로를 달리고있다.

인민들의 각계각층을 물론하고 생활에 대한 빈궁 기아 실업 파산등의 도탄을 면할수 없다. 다만 살수있는자는 대지주와 대자본가 뿐이다.

× × ×

미제국주의의 남조선식민지화정책의 특징은 무력으로써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분활통치의 방법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활을 고정화하며 자기의 주

구 리승만도당을 조종하여 인민과 민주진영을 탄압학살하고 경제적으로 파괴 예속화를 더욱 심각케 함에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전세계 각국가와 민족에 쓰는 모든 침략방법을 모조리 쓰고있다。

조선인민들이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 군대를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철거케하고 리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더우기 리승만도배가 평화적 통일방책을 방해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개혁의 성과와 민주건설을 파괴하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때이랴?

전조선인민은 우리의 수상 김일성장군 주위에 더욱 튼튼하게 단결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통일방책의 기치를 높이들고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를 자기의 진로에서 단호 소탕하면서 더욱 앞으로 돌진하자!

참 고 자 료

인민민주독재에 대하여

—중국공산당 二十八주년기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모 택 동

一九四九년七월一일은 중국공산당이 이미 二十八주년을 경과한 날이다. 사람이 유년, 청년, 장년과 로년이 있는것과같이 중국공산당은 벌써 어린아이도 아니며 또 십여세되는 철없는 소년도 아니고 이미 한개의 어른이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것과같이 당(黨)도 이와마찬가지이다. 계급이 소멸되면 계급투쟁의 일체도구들인 정당과 국가기구들은 이로 말미암아 그의 역활을 잃어버리어 필요없게될것이며 점차로 조락(凋落)하여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며 보다더 높은 인류사회에 이르는것이다. 우리들은 부르죠아지 정당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계급의 소멸, 국가권력의 소멸 및 당의 소멸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이런 물건의 소멸을 재촉하기 위하여 조건들을 창조하기에 분투 노력하고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성명한다. 공산당과 인민독재의 국가권력은 곧 이러한 조건인것이다. 이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맑쓰—레닌주의를 읽어본적이 없는 입당한지 얼마되지않은 젊은동무들은 어 진리를 알지못할수도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만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게된다. 그들은 반드시 계급을 소멸하고 국가권력을 소멸하고 당을 소멸한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전 인류가 모두 이 한가지 길로 나아가야하는바 문제는 다만 시간과 조건뿐이라는것을 알아야한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죠아지보다 총명한바 그들은 사물의 생존과 발전법칙을 알고있으며 변증법을 알고있으며 또 멀리 앞을 예견한다. 부르죠아지가 이 한가지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것은 그들이 못사람에게 전복되기를 싫어하기때문이다. 전복 당하는것 례를 들면 지금 국민당반동파가 우리들에게 전복되었고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들과 세계인민들에게 전복되었는바 이것은 전복된 자들로서 볼때에는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또 상상할수도

없는 일인것이다. 로동계급, 근로인민 및 공산당원들은 전복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 국가권력 및 정당으로하여금 아주 자연스럽게 소멸되게하며 인류를 대동경역(大同境域)에로 들어가게하는 조건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다. 우리가 아래에 말할 문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여기서 이 인류진보의 장래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다.

우리당은 二十八년을 지나왔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당은 평화스러운 길을 걸어온것이 아니라 곤난한 환경속을 걸어왔으며 우리들은 국내외, 당내외의 적들과 싸우지않으면 안되었었다. 우리에게 무기를 준 맑쓰, 엥겔쓰, 레닌 및 쓰딸린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무기는 기관총이 아니라 맑쓰—레닌주의이다.

레닌은 一九二〇년 자기의 저서「좌익소아병」이란 책에서 로씨야사람들이 혁명리론을 찾은 경과를 묘사하였다. 로씨야사람들은 몇十년동안 갖은 곤난과 고초를 겪고서야 비로소 맑쓰주의를 찾았던 것이다. 중국에는 十월혁명 이전의 로씨야와같거나 또는 근사한 사정들이 많이 있다. 봉건주의의 압박 이것은 그와 같은것이다. 경제와 문화가 락후된것 이것은 근사한바 두나라가 모두 락후되었었으나 중국은 보다더 락후되었다. 선진적 사람들이 자기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곤난속에서 분투를 아끼지않고 혁명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 점은 같은것이다.

一八四〇년 아편전쟁이 실패된 그대로부터 선진적 중국사람들은 천신만고(千辛萬苦)를 거쳐서 구라파 여러국가들로부터 진리를 찾았던 것이다. 홍수전(洪秀全), 강유위(康有爲), 엄복(嚴復) 및 손중산(孫中山)들은 중국공산당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기전에 있어서 서방으로부터 진리를 찾던 일련의 인물들을 대표한다. 그때 진보를 욕구하는 중국사람들은 서방의 새 리치(理致)가 씌어있는것이라면 어떠한 책이고 다 보았다. 일본,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등에 파견한 류학생들의 수가 많음은 실로 놀랄만한 정도의 것이었다. 국내에서 과거제(科擧制)가 철폐되었고 마치 우후죽순(雨後竹筍)과같이 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서방의것을 배우며 노력하였다. 내자신이 청년시대에 이런것들을 배웠다. 이러한것들은 서방부르죠아민주주의의 문화인 소위 신학(新學)이라하여 그때의 사회학설과 자연과학을 포함한것이며 중국봉건주의의 문화인 소위 구학(舊學)과는 대립되는것이었었다. 이런 신학을 배운사람들은 오랜 기간 신심(信心)을 가지고 이것으로써 능히 중국을 구할수있다고 인정하였기때문에 구학과를 제외한 신학과들중 이를 의심한자는 매우 적었다. 나라를 구(救、

하려면 유신(維新)하여야만 하고 유신을 하려면 오직 외국에 배워야만되었다。 그때의 외국은 다만 서방자본주의국가만이 진보적이어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부르죠아지의 현대국가를 건설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서방에 배운것이 성과있어서 중국사람들도 일본사람에따라 배우려고 하였다。 그때의 중국사람들은 로씨야는 락후된것으로 보았기때문에 로씨야에서 배우려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 이것이 곧 十九세기四十년대로부터 二十세기초엽까지의 중국사람들이 외국을 배우던 정형이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은 중국사람들의 서방을 배우던 꿈을 깨뜨렸다。 이상하게도 선생은 왜 학생을 침략할까? 중국사람들이 서방의 것을 배운것은 적지않았다。 그러나 리상은 통하지를 아니하고 신해혁명(辛亥革命)과같은 전국적 규모의 운동들이 수차있었으나 모두 실패하고말았다。 국가의 형편은 나날이 나빠져서 인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살아나가지 못하게되었다。 의심은 커지고 발전되었다。 제一차세계대전은 전세계를 진동시켰다。 로씨야사람들은 十월혁명을 일으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주의국가를 창전하였다。 과거 외국인들이 보지못한 지하에 묻혔던 위대한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들의 혁명위력은 레닌과 쓰딸린의 령도밑에서 화산과같이 폭발되어 중국인민과 적인류가 다른눈으로써 로씨야사람들을 보게되었다。 이때 또한 오직 이때에야 비로소 중국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으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대 혁신적 시기가 출현되었다。 중국사람들이 전세계적 보편적 진리인 맑쓰—레닌주의를 찾게되자 중국의 면모는 곧 변화되었다。

중국사람들은 맑쓰주의를 로씨야사람들의 소개에 의하여 찾아내었던것이다。 十월혁명 이전에 있어서 중국사람들은 레닌—쓰딸린을 알지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맑쓰와 엥겔쓰도 알지못하였었다。 十월혁명의 포성(砲聲)은 우리들에게 맑쓰—레닌주의를 가져다 주었다。 十월혁명은 전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선진분자들이 프로레타리아세계관으로 국가운명을 관찰하는 도구로 삼아 자기의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로씨야사람들의 길을 따르자— 이것은 곧 결론으로 되어있었다。 一九一九년 중국에서 『五·四』운동이 발생되었고 一九二一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손중산(孫中山)은 절망가운데서 十월혁명과 중국공산당을 맞이하였다。 손중산은 十월혁명을 환영하였으며 로씨야사람들의 중국사람들에 대한 방조와 중국공산당의 그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손중산은 서거하고 장개석이 일어났다。

二十二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장개석은 중국을 막다른 골목에로 이끌었다。 이때에 쏘련을 주력군으로한 반팟쇼적 제二차세계대전은 三대 제국주의국가를 격멸하고 두개의 제국주의국가를 쇠약케하여 세계에는 다만 한개의 제국주의대국 즉 미국만이 아무 손해없이 남아있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그는 세계를 노예화 하려고 하며 장개석에게 무기를 주어 수백만의 중국사람들을 도살하였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일본제국주의를 구축한후 三년간의 인민해방전쟁을 계속하여 기본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리하여 서방부르죠아지의 운명과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 부르죠아공화국의 계획은 중국인민의 눈앞에서 동시에 파산되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에로 그 자리를 내주었고 부르죠아공화국은 인민공화국에로 그 자리를 내주게되었다。 이렇게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조성하였으니 그것은 인민공화국을 거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도달하며 계급의 소멸과 세계대동(世界大同)에로 도달하는것이다。 강유위(康有爲)는 『대동서(大同書)』란 책을 썼으나 그는 대동에 도달하는 길을 찾지못하였으며 또한 찾을수도 없었다。 부르죠아공화국은 외국에는 있었지만 중국에는 있을수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던 나라이기때문이다。 유일한 길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공화국이다。

다른 모든것은 모두 시험하여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일찌기 해당되지않는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두고있던 사람들중에서는 걸리어 넘어간자들도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으며 또 지금 깨닫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있다。 이와같이 사변들은 빠르게 발전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연(突然)적이라고 여기게 하였으며 다시 학습을 하여야한다는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심정은 능히 리해할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이와같이 학습을 요구하는 선량한 태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중국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는 十월혁명 이후에 맑쓰—레닌주의를 배워 중국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이에 뒤이어 곧 정치투쟁으로 들어가 곡절의 길을 거치면서 二十八년동안을 걸어 지금 비로소 기본적 승리를 획득하였다。 二十八년을 쌓아온 경험은 손중산이 림종유서(遺書)에서 『四十년을 쌓아온 경험』이라고 하면서 말한바와 마찬가지의 동일한 결론으로서 『승리에 도달하자면 반드시 민중을 환기시키고 우리를 평등으로 대우하는 전세계의 민족들과 련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손중산과 우리와는 상위(相違)한 세계관을 가지고 상위한 계급적 립장에서 출발하여 문제들을 관찰하며 처리하여왔다。 그러나 二十세기 二十년대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와 어떻게

투쟁하느나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상 그는 우리와 일치되는 결론에 도달하였던것이다。

손중산이 서거한지 二十四년이 되었으나 중국혁명의 리론과 실천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대대적으로 전진 발전되고 근본적으로 중국의 면모를 개변시켰다。현재에 이르러 중국인민이 이미 쟁취한 주요하고도 기본적으로되는 경험은 다음의 두가지이다。첫째로 국내에 있어서 민중을 환기시키는것인바 이것은 로동계급、농민계급、소부르죠아지 및 민족부르죠아지를 단결시키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국내에 있어서는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아울러 이로부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하는 인민민주독재의 국가를 수립하는데까지 발전시키는것이며 둘째로 국외에 있어서는 우리를 평등으로 대우하는 세계의 민족 및 각국인민과 련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것이다。이것은 쏘련과 련합하며 제인민민주주의국가와 련합하며 기타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광대한 인민과 련합하여 국제적 통일전선을 결성하는것이다。

「너희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바로 이러하다。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것은 손중산의 四十년의 경험과 공산당의 二十八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어 주는것으로서 승리에 도달하며 승리를 공고히 하자면 반드시 한쪽에 기울어져야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였다。四十년과 二十八년을 쌓은 경험에 의하면 중국사람들은 제국주의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쪽으로 넘어가야만 되게되어있다。절대로 이밖에 다른것이란 없다。중립은 안되며 제三로선은 없는것이다。우리는 제국주의쪽으로 기울어진 장개석반동파를 반대하며 제三로선의 환상(幻想)도 반대한다。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로 기울어지지않으면 곧 사회주의에로 기울어지는것으로서 절대로 이밖에 다른것이란 없다。중립은 가장(假裝)이며 제三로선은 없는것이다。

「너희들은 너무 자극을 준다。」우리가 말하는바는 국내외 반동파 즉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을 대항(對抗)하는데 관한것이요、어떤 다른 사람과 서로 대하는데 관한것이 아니다。그들에 대하여서는 자극을 주고 안주는 문제란것이 서지않는다。자극을 주어도 그렇고 자극을 주지않아도 역시 그렇다。왜냐하면 그들은 반동파이기 때문이다。반동파와 혁명파와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고 반동파의 음모 흉계를 폭로하고 혁명파 내부의 경각성과 주의를 일으켜 자기의 사기(士氣)를 북돋아주며 적의 위풍을 없새버리어야만 반동파를 고립시키고 싸워 이겨 이를 대신할수 있는것이다。야수앞에서는 금도 겁내서는안된다。우리는 경양강(景陽崗)의

무송(武松)을 본받아야한다。무송에게는 경양강(景陽崗)위의 범을 자극 주어도 그렇고 자극 주지않아도 그러했다 여하튼 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였다。범을 때려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에게 물려죽는 두가지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장사를 하겠다。」옳다。여하튼 장사는 해야한다。우리는 우리가 장사하는것을 방해하는 내외반동파들을 반대할뿐 그외의 다른 어떤 사람을 반대하지않는다。우리가 외국과 장사하는데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와 외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는데 방해하는것은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자와 그의 주구 장개석 반동파란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다。국내 및 국제의 모든 력량과 단결하여 내외 반동파를 격파한다면 우리는 곧 장사할수 있으며 평등 호상리익……및 호상간 령토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설정할수 있을것이다。

「국제적 원조가 없어도 승리할수있다。」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제국주의가 존재하고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나라의 진정한 인민혁명이든지 만일 국제혁명력량의 각종 방식의 원조가 없이 자기의 승리를 획득하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설사 승리하였다할찌라도 그것을 공고화시키는것이 또한 불가능한것이다。위대한 十월혁명의 승리와 그의 공고화가 바로 그러하다는것을 일찌기 쏘딸린동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세개의 제국주의국가를 격멸하고 제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창건한데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였다。인민중국의 현재와 장래도 또한 그러하다。여러분은 생각해보라! 만약 쏘련의 존재가 없다면、만약 반팟쇼적 제二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없었다면、만약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 승리가 없었다면、만약 제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출현이 없었다면、만약 동방의 피압박민족이 일어나서 투쟁함이 없었다면、만약 미국、영국、불란서、독일、이태리、일본등등 자본주의 국가내부의 인민대중과 그들을 통치하는 반동파들과의 투쟁이 없었다면、만약 이 모든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머리위를 누르는 국제 반동세력이 지금보다 몇배나 더 클는지 알수 없는것이다。이런 정형밑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수 있겠는가? 분명히 불가능한것이다。승리하였다 할찌라도 이를 공고화 하는것이 또한 불가능한것이다。이 일에 관한 중국인민의 경험은 너무도 많은것이다。손중산이 림종시에 반드시 국제혁명력량과 련합하라고한 그 말은 벌써 이 한가지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미정부의 원조가 필요하다。」지금에 있어서 이것 역시 유치한 생각이다。지금의 영미 통치자들은 아직도 제국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인민민주국가를 원조해줄수 있을까? 우리가 이 국가들과 장사를 하거나 만약 이 국가들이 장래에 호상 유리한 조건밑에서 우리에게 돈을 꾸어주려고한다면 그것은 무엇때문일것인가? 그것은 이런나라의 자본가들이 돈을 벌면 은행가들이 리자를 벌어 이것으로써 그들 자신의 위기를 구하려는 것이요、중국인민들에게 원조를 주려는것은 아니다。이런 국가들의 공산당과 진보당파들은 우리와 장사하며 나아가서는 외교관계를 설정할것을 촉진시키고있다。이것은 선의적인것이요、이것은 원조인것이며 이것은 이런 국가들의 부르죠아지의 행위와는 같이론할수 없는것이다。손중산은 일생을 통하여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원조하여달라고 수없이 부르짖었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허공으로 돌아갔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손중산이 일생중에 단 한번 국제적 원조를 받은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쏘련의 원조였다。독자들이여! 손선생의 유서(遺書)를 한번보라! 그가 거기에서 심심 부탁한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원조를 바라는데 관심을 돌리라고 한것이 아니라『세계에서 평등으로 우리를 대하는 민족과 련합』하라고 하였다。손선생은 손해를 보고 피에 넘어간 경험을 가졌던것이다。우리들은 그의 말을 잘 기억하고 다시는 피에 넘어가지말아야 할것이다。우리는 국제상에 있어서 쏘련을 선두로한 반제국주의전선에 속하여 있으므로 진정한 우의적 원조는 다만 이 방면에서만 얻을수 있을뿐 제국주의전선에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독재다。』사랑하는 선생들이여! 당신들이 옳게 말했다。우리는 바로 그렇다。중국인민이 몇십년동안을 두고 쌓아온 모든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獨裁)를 실행하게 한다。

즉 반동파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인민에게만 발언권이 있게하는것이다。

인민이란 무엇인가? 중국에 있어서 현계단에서는 로동계급、농민계급、소부르죠아지 및 민족부르죠아지이다。이 계급들은 로동계급 및 공산당의 령도밑에 단결하여 자기들의 국가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정부를 선거하여 제국주의의 주구 즉 지주계급과 관료자산계급 및 이런 계급들을 대표하는 국민당반동파와 그 졸도들에게 대하여 독재를 실행하며 그들을 압박하며 함부로 짓거리거나 움직이지못하게하고 꼼짝못하게한다。만약 함부로 짓거리거나 행동한다면 즉시 취체하고 이를 제재할것이다。인민내부에 대하여서는 민주제도를 실행하여 언론、집회、결사등의 자유권을 준다。선거권은 인민에게만 주고 반동파에게는 주지않는다。인민내부에 대

한 민주와 반동파에게 대한 독재、이 두 방면이 서로 결합된것이 곧 인민민주독재이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똑똑히 알고있는것이다。이렇게 하지않는다면 혁명은 실패되고 인민은 재난을 받게되며 국가는 멸망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국가권력을 소멸하려하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려한다。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하지않으며 또 아직 그렇게 할수도 없다。왜?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직 존재해 있으며 국내반동파가 아직 존재해 있으며、국내에 계급이 아직 존재해 있기때문이다。지금 우리의 임무는 국가기구를 강화하는데 있다。주요한것은 인민의 군대、인민의 경찰과 인민의 법정이며 이로써 「국방(國防)」과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며 이 조건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로동계급 및 공산당의 령도밑에 튼튼한 보조로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에로 넘어가며 신민주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가 계급을 소멸하고 대동(大同)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갖게하는 것이다。군대、경찰、법정등 국가기구는 계급이 계급을 압박하는 도구이다。이것은 적대되는 계급에 대하여서는 그를 압박하는 도구이며 폭력이며 무슨 인자(仁慈)한 물건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질지 못하다。』바로 그렇다。우리는 반동파와 반동계급의 반동적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인정(仁政)을 실시하지 않는다。우리는 다만 인민내부에서만 인정을 실시하는것이지 인민외부의 반동파와 반동계급의 반동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인민의 국가는 인민을 보호하는것이다。인민의 국가가 있어야만 인민이 비로소 전국적 범위에서와 전체적 규모에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자기를 교육하며 또 자기를 개조하며、자기를 내외반동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하며(이 영향은 지금 매우 큰것이며 또 앞으로 장구한 기간 존재할것이며 그렇게 빨리 소멸되지 않을것이다)、낡은 사회로부터 내려온 나쁜 습관과 나쁜 사상을 개조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반동파가 끌어들이는 그릇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하며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에로 발전하는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쓰는 방법은 민주주의적 즉 설복하는 방법이고 강박(强迫)하는 방법은 아니다。인민이 법을 위반하면 역시 처벌도 하고、감금도 하고、사형도 한다。그러나 이것은 약간 개별적 정형으로서 반동계급에 대한 계급적 독재로써 말하는것과는 원칙적 구별이 있다。

반동계급과 반동파들에 대하여 그들의 정권이

전복된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않고、파괴하지않고、교란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토지를 분여해 주고 일을 주어 살아나아가게하며 그들로 하여금 로동과정에서 자기를 개조하여 새사람이 되게한다。

만약 그들이 로동하려 하지않는다면 인민의 국가는 그들을 로동하도록 강요할것이다。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미 포로군(捕虜軍)들에게 해온것과 마찬가지로 선전교육공작을 세심히 충분하게 할것이다。이것 역시「인정(仁政)」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지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본래 적대되는 계급의 사람들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하는것으로서 우리가 혁명내부의 인민들에게 대하여하는 자아교육공작과는 같이 론할수 없는것이다。

반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개조공작은 오직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에서만이 할수 있는것이다。이 공작을 잘한 그날에는 중국의 주요한 착취계급—지주계급과 관료자본계급 즉 독점자본계급은 곧 최후로 소멸되어 버린다。그러면 단 하나의 민족부르죠아지가 남게된다。현계단에 있어서는 그들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적당한 교육공작을 진행할수 있다。그렇게 하였다가 장래에 사회주의 즉 개인기업을 국유화하는、 그때에가서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대하여 교육과 개조공작을 하게된다。인민의 손에 강대한 국가기구가 있는 이상 민족부르죠아지가 반란을 일으키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서 엄중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농민에 대한 교육이다。농민의 경제는 분산적이다。쏘련의 경험에 의하면 매우 장구한 기간에 걸쳐 세심한 공작을 하여야만 비로소 농업의 사회화가 가능한것이다。농업의 사회화가 없이는 전반적 공고한 사회주의가 없으며 농업을 사회주의화 하려면 반드시 국유기업을 주체로한 강대한 공업을 발전시키어야한다。인민민주독재의 국가는 반드시 절차있게 이 국가공업화 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여기에서는 경제문제를 더 상세히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一九二四년 손중산이 친히 령도하였으며 공산당원이 참가한 국민당 제一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저명한 선언서가 통과되었는데 이 선언서에는「근세(近世) 각국의 소위 민권제도(民權制度)는 왕왕(往往) 부르죠아지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압박하는 도구로 되어있다。국민당의 민권주의(民權主義)는 일반평민의것이며 소수인들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누가 누구를 령도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 정치강령으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말한 민권주의는 우리가 말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신민주주의와 서로 부합되는것이다。이것은 다만 일반 평민의 소유로만 되는것이며 부르죠아지의 개인소유의 국가제도로 되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여기에 로동계급의 령도를 가한다면 곧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제도로 되는것이다。

장개석은 손중산을 배반하고 관료자본계급과 지주계급의 독재로써 중국평민을 압박하는 도구로 삼았다。이 반혁명적 독재는 二十二년간 실시되어 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령도하는 중국평민에게 전복되었다。

우리들에 대하여「독재」혹은「극권주의(極權主義)」를 실행한다고 욕하고있는 외국반동파가 바로 독재 혹은 극권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인것이다。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및 기타 인민에 대한 부르죠아지 한계급의 독재제도와 한계급의 극권주의를 실시하였다。손중산이가 말한 평민을 압박하는 근세각국의 부르죠아지란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한것이다。장개석의 반혁명적 독재는 곧 이런 반동하는 놈들에게서 배워온것이다。

송(宋)나라 철학가 주회(朱熹)는 많은 책을 썼고 또 많은 말을 하였으나 모두 거의다 잊어버리었다。그러나 그중 한마디는 아직 기억하고있다。즉「그 사람의 도리로써 도로 그 사람들을 다스려줄것이다」라는것이다。우리 역시 제국주의 및 그 주구 장개석반동파의 도리로써 제국주의 및 그 주구 장개석반동파를 다스리는것이다。다만 이렇게 하는것 이외에 다른방법은 없는것이다。혁명의 독재와 반혁명의 독재의 성질은 서로 상반되는것이며 전자는 후자로부터 배워온것이다。여기에 있어서 배운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만약 혁명적 인민이 반혁명계급에 대한 통치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그 정권은 내외 반동파들에게 전복되고 말것이며 내외반동파들은 다시 중국에서 소생(蘇生)하여 혁명적 인민들이 토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될것이다。

인민민주독재의 기초는 로동계급 및 농민계급과 도시 소부르죠아지와의 동맹이며 그중 중요한것은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이다。그것은 이 두 계급이 전중국인구의 八〇내지九〇%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파를 타도하는것은 주로 이 두 계급의 력량이다。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이르는데는 주로 이 두 계급의 동맹에 의거한다。

인민민주독재는 로동계급의 령도가 필요하다。그것은 오직 로동계급만이 가장 멀리 내다보며 공명정대하며 혁명의 철저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으면 혁명이 실패되고 로동계급의 령도가 있으면 혁명이 승리한다는것은

전체 혁명력사가 증명하는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나라에서나 다른계급이 혁명을 명도하여 승리할수는 없는것이다。 일찌기 중국의 소부르죠아지와 민족 부르죠아지가 여러번 혁명을 령도한적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다。

현계단에 있어서의 민족부르죠아지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아직 우리 옆에는 가장 흉악한 적인 제국주의가 서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려면 아직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한다。 오직 중국의 공업이 발전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외국에 의뢰하지 않는데서만 전반적 진정한 독립을 획득하게된다。 중국의 현대공업이 전체 국민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지금 아직 믿을만한 숫자는 없으나 일부 자료에 의하여 추산(推算)한다면 현대 공업은 전국민경제의 총생산량에 있어서 불과 一○%내외밖에 차지하지못한다。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항하고 락후된 경제지위를 한걸음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중국은 반드시 국가경리와 인민생활에 유리하고 해가 없는 도시 농촌의 모든 자본주의 요소를 리용하여 민족부르죠아지와 단결하고 공동으로 분투하여야한다。 지금 우리의 방침은 자본주의를 절제(節制)하는것이지 자본주의를 소멸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부르죠아지는 혁명의 통일전선의 명도자가 될수 없으며 또 국가정권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할수 없다。 민족 부르죠아지가 혁명의 령도자로 될수 없으며 또 국가 정권에서 주요지위를 차지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부르죠아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들의 연약성을 규정하였으며 원견(遠見)이 결핍하며 충분한 용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민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손중산은 「민중을 환기시키자!」 또는 「로농(勞農)을 돕(扶助)자!」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누가 「환기시키며」 또 누가 「도와」 주겠는가? 손중산의 의사는 소부르죠아지와 민족부르죠아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불가능한것이다。 손중산의 四十년 혁명이 실패된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소부르죠아지와 민족부르죠아지는 어떤 진정한 혁명일찌라도 승리에까지 명도해나아갈수 없기때문이다。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우리의 二十八년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는 많은 귀중한 경험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규률이있는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리론으로써 무장하고 자기비판의 방법을 가진 인민군중과 련계를 가진 당이 있다。

이러한 당이 명도하는 군대가 있다。 이러한 당

이 명도하는 각혁명계층과 각혁명당파들의 통일전선을 가지고있다。

이 세가지는 주요한 경험이다。 이 모든것들은 우리와 이전사람들과 구별되는것이다。 이 세가시에 의거하는것이 우리로 하여금 혁명전쟁에 있어서 기본적 승리를 얻게한것이다。 우리는 험한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당내기회주의와 투쟁하였으며 우경 및 좌경과 투쟁하여왔다。 어쨌든 이 세가지에서 엄중한 착오를 범하는 때에는 혁명은 곧 좌절 당한다。 착오와 좌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으니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더 총명하게하여 우리일을 좀더 잘되게하였다。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개인이나를 물론하고 착오는 면하기 어려운것이니 우리는 좀 적게 범하는것을 요구한다。 착오를 범한다면 곧 시정하여야하며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철저하면 철저할쑤록 더욱 좋은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총결하여 한곳에 집결시킨다면 곧 로동계급(공산당을 통하여)이 명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한 인민민주독재이니 이것이 곧 우리의 공식(公式)이며 우리의 주요한 경험이며 우리의 주요한 강령이다。

당의 二十八년은 매우 긴 기간이다。 이 긴 기간에 • 있어서 우리는 겨우 한가지 일을 하였으니 이것은 곧 기본적으로 승리를 획득한 그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승리이며 이것은 중국이란 큰나라에 있어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경축할만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아직도 매우 많으니 례를 든다면 지나간 사업은 만리장정(万里長征)을 하는데 겨우 첫 한발자욱을 내어디디었다는데 지나지않는것이다。 나머지 적들은 아직 우리의 소탕을 기다리고있다。 엄중한 경제건설의 임무가 우리들 눈앞에 놓이였다。 우리들에게 숙련(熟練)되어있는 일은 머지아니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숙련되지 못한 일이 우리들을 긴급하게 재촉하고있다。 이것은 곧 곤난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이 경제를 잘 경영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내리고있다。 그들은 한쪽옆에 서서 우리들이 실패하는것을 고대하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곤난을 극복하며 자기가 알지못하는것을 배워야한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전문가들(어떠한 사람을 물론하고)로부터 경제공작에 대한것을 배워야한다。 그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공손히 그리고 순직하게 배워야한다。 모르는것은 모른다고하고 아는척하지말며 관료적 작풍을 하지말아야한다。 파고들어간다면 몇달、一년、二년、三년이나 五년이면 꼭 배워 알게될것이다。 쏘련공산당원들도 처음에는 경제공작에 그다지 정통하지못한 사람도 좀 있었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실

패를 기다렸던적이 있었던것이다。그러나 쏘련공산당은 승리하였다。레닌과 쓰딸린의 령도밑에 혁명만 할줄알았을뿐 아니라 건설도 할줄알게 되었다。그들은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한개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쏘련공산당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이니 우리들은 반드시 쏘련공산당에게 배워야한다。국제적 국내적 형세는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었다。우리들은 완전히 인민민주독재란 이 무기에 의거하여 전국에 있어서 반동파를 제외한 일체 사람들과 단결하여 튼튼한 보조로 목적지로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一九四九년七월六일「쁘라우다」지에서)

경제와 정치에 관한 레닌—쓰딸린의 리론

끄·오쓰뜨로위쨔노브

맑쓰와 엥겔쓰 이전에 있어서는 경제와 정치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주관적 관념론적 견해가 지배하고있었다。맑쓰와 엥겔쓰는 사고와 리념의 기본에는 각종의 경제적 리해관계가 놓여있는바 이는 사회에서의 일정한 인간의 계급적 처지에 의존되었으며 계급적 관계는 그 사회의 경제에、결국 생산력의 달성된 수준에 근거된것이라고 맑쓰와 엥겔쓰는 진술하였다。

그 사회의 경제적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생산관계의 일정한 체계는 생산력의 그 각개 수준에 적합되며 그 하부구조는 그 위에 건설된 정치、법률、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一八九〇년 九월 二十一—二十二일부 이·블로흐에게보낸 서한에 엥겔쓰는 다음과 같은것을 강조하였다。「현실적 실제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은 결국 결정적 모멘트로 되는것이다。」(맑쓰—엥겔쓰「서한선집」一九四七년판 四二二폐지) 그러나 이것으로부터「경제적 모멘트가 유일한 결정적 모멘트라고」(동서) 결론한다면 전연 그릇된것이라고 엥겔쓰는 말하였다。

하부구조—경제—와 상부구조 특히 정치간에는 일정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바 거기에서는 결국「불가결한것으로서의 경제운동은 무수한 우연을 통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한다」(동서)

정치적、법률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는 일정한 경제적 하부구조 위에서 발생되면서 자기의 장래운동과 발전에서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그의 (상부구조=역자주) 일반적 의존성의 범위내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다。

이 정치적、법률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은 자기의 표현을 다음과같은데서 찾아본다。(1)、그는 (상부구조=역자주) 경제적、하부구조에 대한 그의 일반적 의존성의 범위내에서는 자기의 운동에 있어서 자체 내부의 법칙에 복종하며 (2)、그는 자기의 선행자들로부터 일정한 정치적、법률적、이데올로기적 자료를 계승하는바 그 자

묘는 그의 발전의 출발점으로되며 일정한 정도로 그에 영향을 주며 (3), 그는 경제적 하부구조의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 작용을 한다。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각종 상부구조의 관련은 동일하지않다。 가장 직접적인 관련은 경제적 하부구조를 한편으로하고 정치적 및 법률적 상부구조를 다른편으로한 량자간에 존재한다。 가장 거리가 먼 관련은 경제적 하부구조와 이데올로기의 형태—종교 및 철학—간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는 정치와 도덕과 법률을 경유하여 결국 다부분 간접적으로 철학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엥겔쓰는 크·스미트에게보낸 서한에 철학에 대한 경제의 영향에 관하여 「결국 이 분야(철학=역자주)에 대한 경제 발전의 우세는 나에게 있어서는 명백한것이나 그러나 그는 그 분야 자체로서 제정된 조건 범위내에서 지위를 가지고있는바 례를 들면 철학에서는 선행자들이 전하여준 목하에 존재하여있는 철학적 자료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작용(그 영향은 역시 다부분 자기의 정치적 및 그와 류사한 외형속에서만이 작용하는것이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경제는 무엇이든지 새로이 창조하지못하나 그는(경제는=역자주)목하에 존재하고있는 사유(思惟)자료의 변경과 일층 발전의 형태를 결정하는바 이것도 그가(경제=역자주) 다부분 간접적으로만 결정하는것이며 철학에 대한 중대한 직접적인 작용은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반영이 하는것이다。」 (동서 四三〇페지)라고 썼다。

엥겔쓰는 다음과같은 결론을 하였다。「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치적 운동의 일체의 반작용과 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운동의 반향을 부인하였다고 바르트가 생각한다면 그는 바람방아(風車)와 싸우고있는것이 될것이다……만일 정권이 경제적으로 무력한것이라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독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가? 폭력(국가 주권)—이것은 역시 경제적 세력이다!」 (동서)

국가의 정치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엥겔쓰는 다음과같은 대답을 주었다。「경제발전에 대한 국가 주권의 작용은 三종이 있을수 있다。 사업이 급속히 진행될때에는 그는(국가 주권은=역자주) 이전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현하 각개 대민족에 있어서 그는(국가주권=역자주) 일정한 기간을 걸쳐 몰락될때 그는 경제발전에 반대하여 작용할수 있으며 또 그는 일정한 방향에서는 경제 발전에 장애할수 있으나 다른 방향에서는 앞으로 추동할수 있는것이다。 이 경우가 결국 이상의 조건들중에서의 하나에로 귀결하는것이다。 그러나

제二 제三 경우에 있어서 정권은 경제 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것이며, 대량적으로 력량과 자료를 허비케할것이다」(동서 四二七—四二八페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문제를 맑쓰와 엥겔쓰는 이렇게 해결하였다。

× × ×

경제와 정치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은 레닌과 쓰딸린의 로작에서 더 발전되었다。

레닌의 위대한 공적은 우선 그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의곡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를 격파한데 있는것이다。 엥겔쓰는 이·블로흐에게 보내는 서한에도 대대로「경제면의 의의를 무엇보다도 과도히」(동서四二四페지) 평가하는 청소 맑쓰주의자들에 대하여 썼던것이다。

이 엥겔쓰의 명제는 제二국제당의 령수들에게 전적으로 관계될수 있는것이다。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정적 역활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의곡하면서 사회발전과 혁명운동에서 사상과 정치기구의 역활을 무시하였다。 이것으로부터 카우츠끼의 소위「생산력리론」이 발생하였는바 그로부터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수동적 산물이 된것이 출발되었다。 카우츠끼와 제二국제당의 거타「리론가」들은 그「리론」에 근거하여 생산력의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제자본주의 국가에서만이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며 로씨야는 사회주의 혁명에까지 성장되지못하였다는 결론을 하였다。

이「리론」은 쏘베트 동맹과 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반혁명 투쟁의 무기로된것이다。

로씨야는 자기의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 전제조건을 가졌다고 레닌은 증명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로씨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전의 결정적 공간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인정하였는바 그의 국가 형태는 쏘베트 주권인것이다。

멘쉐위크 쑤하노브를 반대한「우리 혁명에 대하여」란 론문에 브·이·레닌은 이렇게 썼다。「만일 사회주의를 창조하기 위하여 일정한 문화수준이 요구된다면(이 일정한「문화 수준」이란 어떤것입을 누구든지 말할수는 없지만) 그 일정한 수준을 위한 전제조건을 혁명적 방법으로 쟁취하는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로동자—농민 주권과 쏘베트 제도에 기초하여 다른 민족을 따라잡는 운동을 할수 없는가」(레닌 전집 二七권 四〇〇페지)

이와같이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 주권을 장악하는것을 국가의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는 중대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였다。 이런

문제 설정으로부터 정치는 독립적 운동을 가지며 경제를·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대 요인이되며 경제 발전을 대단히 촉진시킨다는것이 출발된다。

레닌은 제二국제당의 성서학자(聖書學者)들과는 반대로 경제에 관한 정치의 능동적 역활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레닌은 결국 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명제를 발전시켰다。이것은 경제의 집중된 표현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레닌의 분석에서 자기의 명확한 표현을 얻어내였다。이 레닌적 명제는 제九차 전당대회의 직업동맹에 대한 결의문에서 가장 완전히 전개되었다。즉「정치는 경제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그의 일반화이며 완성이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전당대회、대표회、중앙위원회회의 결의문과 결정서」一권 三三八페지)

여기에서는 우선 정치에 관한 경제의 결정적 역활이 강조되었다。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그를 일반화한것이다。다른면으로는 경제에 관한 정치의 능동적 역활을 강조하였는바 그것은 정치가 경제발전 경향의 일반화한것뿐만 아니라 그를 완성한것이다。

경제와 정치에 관한 맑쓰와 레닌의 학설에서 브·이·레닌의 고귀한 공헌은 사회 및 경제 현상과 과정에 대한 그의 테제인것이다。

브·이·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시기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역활에 대한 문제에 관한 뜨로쯔끼와 부하린의 반(反)볼쉐위크적 진지를 폭로하면서 이렇게 썼다。「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라고 나는 자기의 연설에서 중복하였다。그것은 나의「정치적」태도에 대한 무엇에든지 부합되지 않으며 맑쓰주의자들의 입에서는 용허할수 없는 그 비난을 나는 과거에 벌써 들었던 까닭이다。정치는 경제에 대한 우선을 가지지 못할수 없다。이와 달리 론의(論議)하는것은 맑쓰주의의 초보를 망각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레닌 전집 二六권 一二六페지)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사회주의 조건에서는 경제에 적합하게 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관한 사적 유물론의 기본 법칙은 소멸된다는 결론을 한다。

이상에 인증한 레닌의 말로부터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와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언급된것이라는 결론을 할수 있는가? 아니다。못한다。

여기에서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대한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의 우선에 대하여 언급한것만큼 첫째로 그 론문에서 브·이·레닌은 생산적 민주주의에 관한 부하린의 테제를 격파하면서 생산 관계의 즉 정치에 관한 경제의 결정적 역활을 강조하였다는것을 볼수 있는것이다。이 문제에 관하여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일반적으로 각종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각종 민주주의는 결국 생산에 봉사하며 결국 그 사회의 생산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레닌 전집 二六권 一二四페지)

둘째로 레닌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에 관한 테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관한 사상이 포함된 경제의 집중된 표현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자기의 분석을 새로 회상시켰다。

브·이·레닌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을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직업동맹 사업에 대하여、특수적으로는 쏘베트 경제분야에서의 그의 과업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우선을 념두에 두었던것이다。

레닌은 경제 과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 과업의 우선을 맑쓰주의의 초보라고 인정한다。이것을 레닌은 일상적 리익을 위한 경제적 투쟁만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으로 보고있는「경제주의자」들과의 론쟁에서 이미 지적하였던것이다。

「경제적 리해관계가 결정적 역활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직업동맹)투쟁의 一차적 의의에 대한 여하한 결론도 있을수 없는것이다。그것은 계급의 가장 본질적이며「결정적」인 리익은 일반적으로는 근본 정치적 개혁만이 만족시킬수 있으며 특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 경제적 리익은 부르죠아지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로 교체하는 정치적 혁명의 결과에만이 만족될수 있는 까닭이다。」(레닌 전집 五권 三六二페지)

주지하는바와같이 자본주의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일상적 경제적 투쟁은 로동계급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에 대한 자본주의 법칙의 작용을 방지하지 못하는것이다。자본가들을 반대한 로동자들의 경제적 투쟁의 목적은 로동임금을 로동력의 가치에 근접하게 하려는것이나 실업 후비군이 존재하는것과 자본주의적 집적의 전반적 법칙이 작용하는 결과에 그것을 도달할수는 없는것이다。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자본수의적 법칙은 직업동맹적 투쟁에 의하여 파괴되지않으며 리행되는것이라고 엥겔쓰는 이미 지적하였다。이와 박대로 로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려는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설정할 과업을 제기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제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계급의 기본 리익은 정치적 투쟁의 원조하에서만이 만족

될수 있으며 림시적 일시적 리익은 직업동맹의 경제적 투쟁의 원조하에서 만족될수 있는데 그것도 부분적인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정치적 파업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청산하며 근로자의 물질—문화 수준의 꾸준한 장성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조직하려는 로동계급의 기본 경제 리익과 합치된다는것이 명백하다。 다른 방면으로는 자본주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로동계급의 일상적 림시적 경제적 리익은 그의 정치적 리익에 반드시 복종되어야 할것이다。

이 레닌의 사상은 제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기의 해방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있어서 전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죠아지 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로동계급을 각종 수단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전체 자기의 로력을 바치고있다。

이 목적으로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쏘련—사회주의 국가—을 반대하여 비방적 깜빠니야를 실시하며 현하 자본주의적 영국을 특별한「민주주의적 사회주의」국가로 표시하려고 로력하며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한 반동 세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적 및 경제적 파업을 금지하기 위하여 진출하며 극히 낮은 근로자의 로동임금을「동결(凍結)시키며」 인하하는 정책을 지지하고있다。

레닌은 한때에 사회—민주주의자, 기회주의자들에 관하여 썼는바 그들은「자본주의를 지키는 세빠또」「로동운동을 타락시키는자」의 역활을 논다고 하였다。

이 평가는 로동계급의 리익을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희생시키려는 현하 우익 사회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적용할수 있는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에 관한 레닌적 학설은 경제적 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우선을 포함한것인바 그 대책은 국내 계급들의 호상관계의 견지에서 우선 로동계급의 지도하에서 로동계급이 농민과의 동맹의 견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뜨로쯔끼주의의 경제 정치는 농민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을 파탄하며 결국 로동계급의 독재 또한 혁명의 경제적 쟁취를 파탄하는것에로 지향하는것이다。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에서 뜨로쯔끼파들은 급히「직업동맹을 국가화」할 사상을 제의하였으며 소위「로동」반대파라고하는 그루빠는 이 론쟁에서 직업동맹을 당과 쏘베트 국가에 대립하며 로동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의 직업동맹에 대한 반당

적 무정부—로동조합주의적 (아날호—신지칼리즘)진지를 옹호하였으며「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그루빠는 쏘베트와 직업동맹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파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던것이다。 부하린은 소위·완충(緩衝) 정강하에서 악독한 분파주의자들—뜨로쯔끼파들을 엄폐하였고 지지하였다。 一九二五년 一월十七일부 로씨야 공산당(볼세위크) 중앙 위원회와 중앙 검열위원회의 전원회의 결의문에 지적된것과같이 실지에 있어서는「전시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궐기한 농민에 관하여, 비당원 로동대중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민전쟁이 벌써 끝난때인 령역에 있어서 대중에 대한 당의 태도에 관한」론쟁이었던것이다。

레닌과 레닌주의자들은 뜨로쯔끼파, 부하린파,「로동」반대파,「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의 대표자들의 반당적 반혁명적 설정에 대립하여 공산주의의 학교, 관리하며 주인노릇하는 학교로서의 직업동맹에 대한 사상을 옹호하였으며 직업동맹은 자기 사업을 설복의 방법으로 건설할것을 요구하였는바 그것은 오직 그 방법으로써만이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끌어넣을수 있는것이었다。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정책은 로동계급과 단절하려는것이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과 쏘베트 국가의 지도적 역활을 약화하려는것이었는바 이것은 그 결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파탄하며 쏘베트 동맹의 경제적 쟁취를 청산하며 우리국가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것이었다。

이런까닭에 레닌은「또한번 직업동맹에 관하여」란 론문에 이렇게 썼다。「정치적 태도, 이것은 즉 직업동맹에 대한 태도가 옳지못하다면 그것은 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멸망시키는것이요,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태도가 없다면 그 계급은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지 못할것이요, 결국 자기의 생산 과업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레닌 선집 제二六권 一二六폐지)

경제 대책을 평가함과 경제적 활동을 평가함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우선은 경제는 하부구조요, 정치는 상부구조라는 사적 유물론의 기본명제에 어떤 정도로든지 모순되는것이 아니다。

정치가 올바른 것이라면 경제적 대책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활하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해관계의 견해로부터 출발하며 정치에서 자기의 집중적인 표현을 찾아내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숙된 요구와 진보적 경향의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것이다。

쏘베트 국가의 경제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경제적 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필요에 대한 레닌적 학설은 자본주의의 분자들을 구축하며 제한한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완전히 숙청하기 위한 투쟁기에 있어서 막대한 역활을 놀았던것이다、

당은 레닌의 학설을 지침으로삼아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하에서 로동 계급이 농민과의 동맹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였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파탄하려는 뜨로쯔끼파, 부하린파, 사회주의의 기타 적들을 격파하였다。

당은 농민을 착취하는것으로써 공업발전을 촉진하려는 원시적 사회주의 축적에 관한 뜨로쯔끼주의적「리론」과 동시에 갱사(更紗) 공업과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 복구의 목적을 가진 부농(꾸라크)이 사회주의에로 재생한다는 부하린의「리론」을 격파하였다。

당과 쏘베트 국가는 인민 경제를 지도하는 경제적 공간과 근로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방법과 또한 자본주의적 분자에 관한 비경제적 강제와 억압방법을 리용하면서 착취계급의 숙청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달성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쓰—레닌의 학설과 농민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을 백방으로 견고히하며, 이 동맹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활을 견고히하며, 자본주의 분자들을 구축하며 숙청하기위한 쏘베트동맹에서의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투쟁 경험은 사회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선 제인민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사회주의적 경제 개혁에 있어서의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의 중대한 역활을 인식함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는 부르조아 혁명과 구별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특징에 관한 레닌의 학설에 있는것이다。 제七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전쟁과 평화에 관한」보고에서 브·이·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부르죠아지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간의 근본차이중의 하나는 봉건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부르죠아 혁명에 있어서는 구 제도의 품속에서 봉건사회의 각면을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경제조직이 점차적으로 조성되는데 있는것이다。 부르죠아 혁명의 앞에는 오로지 한개의 과업만이 서있나니 즉 과거 사회의 모든 철쇄를 소탕하며 물리치며 격파하는것이다。 각종 부르죠아 혁명은 이 과업을 실행하면서 그로부터 요구되는 모든것을 실행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장성을 강화한다。

사회주의의 혁명은 전연 다른 처지에 있다。 력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의 혁명을 시작하게된 국가가 더 락후된것일쑤록 구 자본주의의 관계로부터 사회주의의 관계에로의 이행하는것은 그 혁명에 있어서 더 곤난한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파괴의 과업에 새로운 들어보지못한 곤난한 과업—조직적 과업이 첨부된다」(레닌 전집 제二二권 三一

五페지)

자본주의적 생산 방법은 와해되는 봉건주의의 품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르죠아 혁명의 과업은 봉건의 정권을 전복하며 부르죠아 정치적 상부구조에 해당한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을 완성하는데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불가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자본가와 지주에게서 근본 생산수단을 몰수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를 위시로한 사회의 수중에로 그것이 이행되는것이다。 사회주의적 형태는 자본주의의 품속에서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며, 부르죠아지의 수중에 정권이 보전되어있는 조건에서는 발생될수 없는것이다。 자본주의는 그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물질적—기술적 및 주관적 전제조건만을 조성하는것이다。

만일 부르죠아 혁명이 부르죠아사회 탄생의 종결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승리적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장악하는것은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모든 체계의 사회주의적 개혁의 서막으로 될뿐이다。

그런고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로동계급의 독재로서의 새 정치적 상부구조를 수립하는것부터 시작하는바 그는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분야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적 변혁의 기본 공간으로 되는것이다。 브·이·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경제적 역활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좌익」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전개하면서 이렇게 썼다。「페제의 필자들에게 있어서 경제 생활 부면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의의에 관한것이 한마디도 없는것이 극히 특수하다。 그들은 오로지「조직」등등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관계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독재를 금지하려고하는 소부르죠아지도 시인하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자는 자본주의의 경제 기초를 반대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이「중심」에 관한것을「망각」하는 그런 모멘트는 있을수 없다」(동서 五二六페지)

여기에서 브·이·레닌은 사회주의적 경제 개혁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결정적 역활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브·이·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걸음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사회주의의 장성 정도에따라 인민 경제 지도에 관한 사회주의의 국가의 기능은 점점더 강화될것이라고 천재적 선견력으로 예견하였다。 브·이·레닌은 一九一八년 五월 二十六일 인민 경제 쏘베트 제一차대회에서 진술한 연설에 이렇게 말하였다。「…착취자들의 반항이 종결적으로 격파된후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생산을 조직하기 시작한 후에는

협착하고 협소한 말의 의미에서 그 관리의 기관, 낡은 국가 기관은 멸망될것이요, 최고 인민경제 쏘베트 형태의 기관은 장성, 발전, 견고할것이요, 조직된 사회의 전체 중요 활동을 감당할것이다」(레닌 전집 二三권 三六페지)

국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혁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결정적 역활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공산주의에로 가는 우리 운동의 정도에 따라 쏘베트 국가의 경제 조직적 기능이 점점 장성하는 의의에 대한 레닌의 예언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의하여 빛나게 증명되었다。

× × ×

정치와 경제 문제에 관한 브·이·레닌의 학설은 쓰딸린동지의 로작에서 가일층 발전되었다。

쓰딸린은 레닌과 같이 정치와 경제에 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의곡하는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하였다。이·브·쓰딸린은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자기의 훌륭한 로작에 카우츠끼의 악명높은 「생산력 리론」에 치명적 비판을 하였던것이다。

쓰딸린은 레닌과같이 생산력의 낮은 수준으로 인하여 로씨야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단언하는 멘쉐위크, 뜨로쯔끼파, 부하린파와 투쟁하였다。

쓰딸린동지의 로작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은 정치와 경제의 협동을 올바로 인식함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가졌다。쓰딸린동지는 구체적 력사적 현실은 대립적 경향의 투쟁, 죽어가는 낡은것과 발생되는 새것간의 투쟁이란것을 표시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견고한듯이 보이나 그러나 벌써 사멸하여 가기 시작한 그러한것이 중요한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는 견고치 못한듯이 보이더라도 생성하며 발전하면서있는 그러한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으로 된다。왜 그러냐하면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생성하며 발전하는 그러한것만이 오직 불가제승적(不可制勝的)인것이 되는때문이다。」(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五三七페지)

이것으로부터 경제발전을 협조하는 올바른 정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진보적인 경향과 요구에로 지향하는 정치만이 될수있다는 결론이 생긴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정치적 상부구조의 역활이란 어떤것인가?

제九차 전당대회의 결의문에 표현된것을 우리가 이미 본바와같이 레닌의 명제 분석에는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일반화한것일뿐만 아니라 그를 완성한것이라는 심오한 리념이 있는것이다。

이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란 쓰딸린동지의 로작에서 가일층 발전되었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썼다。「이처럼 사회적 사상 및 리론 정치적 기구들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과 사회적 존재의 발전의 긴절한 제 임무에 기초하여 발생되고나서는 그 자신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긴절한 임무를 끝가지 수행케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가능케하는 그러한 필요조건들을 지어주면서 사회적 존재에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 반작용을 주는것이다。」(동서 五四七페지)

쓰딸린동지는 이상에 지적한 로작에서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레닌적 분석을며 발전시킨것으로되는 정치와 기타 상부구조에 관한 하부 구조로서의 경제의 결정적 역활에 대한 맑쓰의 명제를 우선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화하였다。 정치에 관한 경제의 결정적 역활은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기구의 뿌리(根)를 경제에서 찾아보아야 하며 새로운 정치적 사상과 새로운 정치적 기구는 「사회의 물질 생활의 발전과 사회적 존재의 발전의 성숙된 과업」의 토대위에서 발생한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쓰딸린동지의 로작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반작용에 대한 맑쓰—레닌의 학설이 가일층 발전되었고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기구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긴절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케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가능케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창조한다。쓰딸린동지는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기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그의(정치의=역자주) 조직적, 동원적, 변혁적 작용이 없이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의 당면한 임무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까닭에 발생되는것이다」(동서 五四七페지)

이와같이 정치는 경제의 진보적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으로되면서 경제를 조작하며 변혁하며 사회 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는 위대한 력량인것이다。

이와반대로 정치는 경제의 퇴폐하여가는 경향외 집중적인 표현으로되면서 사회 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의 해결을 지체시키는 반동력량으로도 되는것이다。

례를 들면 독일 파시즘의 정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려는 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의 해결을 정지하며 노예소유제적 및 봉건적 착취방법을 부활시키는 길로 력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는데로 지향하는 독점 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이였던것이다。

팟쇼 정치는 결국 파탄될것이었다。그것은 어떠한 무기와 포탄으로든지 사회의 경제발전 법칙을 총살하여 버릴수는 없는까닭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법칙은 인간의 동작에서 표현되며 실시되는것이다。히틀러주의를 격파하기위하여서는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노력과 쏘베트 인민의 용감한 로동과 또한 파시즘을 반대한 자유애호 인민들의 루쟁이 요구되었던것이다。

팟쇼 정치의 직접 계승자는 현하 미국 지배층의 정치이다。그 정치는 자본주의 전반적 공황기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의 락후된 반동적, 퇴폐되어가는 경향의 표현이며 독점 자본의 거두들의 리익을 표현하며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하려는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와의 심각한 모순에 처한것이다。어느한때의 독일 파시스트들처럼 아메리카제국주의자들은 원자탄으로써 경제발전의 법칙과 성숙된 요구를「총살」할수 있다는것을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아메리카 반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선행자—히틀러 강점자들에게 차려졌던것보다 못하지 않으리라는것은 의심할것없다。

그와반대로 쏘베트 국가의 정치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하려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의 집중된 표현이다。여기에 그 정치의 비상한 생활성과 막대한 변혁적 력량의 비밀이 있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로작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도하는 중대원칙으로서의 경제와 정치의 통일에 관한 테제를 발전하였고 확립하였다。

쓰딸린동지는「당사업의 부족점과 뜨로쯔끼적 및 기타 량면주의자들의 숙청 대책에 관한」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실천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수 없는것이다。그들은 같이 존재하며 같이 작용한다。우리의 실지 사업에서 경제를 정치에서 분리하려고하며 정치 사업을 감소하는 댓가로 경제사업을 강화하려고하며 반대로 경제사업을 감소하는 댓가로 정치사업을 강화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불피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것이다」(쓰딸린「당사업의 부족점과 뜨로쯔끼파 및 기타 량면주의자들의 숙청대책」一九三七년판 三二폐지)

정치와 경제의 통일에 관한 테제를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에 관한 테제에 대치한다면 옳지못할것이다。

경제 현상과 그 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옳지못한 협소한 경제적 태도와는 모순되나 그러나 그는 경제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와 진보적 경향을 타산한 광범한 국가적 경제태도와는 완전히 합치되며 통일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와 정치에 관한 쓰딸린동지의 명제는 경제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우선에 관한 사상을 포함한것이다。

「우리의 의견부동」이란 론문에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썼다。「로동자—농민 국가에서 국가적 의의가 있는 특히 그것이 로동자에게 직접 관계된것이라면 한개의 중대한 결정도 그것이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반영하지않고는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없다。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우스운 일이며 삼중하지못한것이다。바로 이런까닭에 각개 그러한 결정은 정치적 견해에 의하여 미리 평가되어야 하는것이다。」(쓰딸린 전집 五권 一二폐지) 이러하므로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할때에 반드시 경제적 대책은 우선 정치적 견해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것이다。

당은 정치로선을 연구할때에 일정한 시기에서의 경제—정치 과업을 규정하며, 그것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실현할데 관한 일반적 지도적 지시를 국가계획기관에 주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당은 산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문화건설방면에 있어서 어면 주권기관의 사업계획을 작성할때 그 계획의 작용 기간내에서 이 기관들 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반적 지도적 지시를 주는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一〇판 一七四—一七五폐지) 당과 쏘베트 국가가 제출하는 경제—정치과업은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 계획의 위력은 그가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과 쏘베트 국가가 제기하는 총과업을 해결하는데로 국가의 전체 물질 자원을 집중함에 기초한것이다。

이와같이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지반을 건설하는 경제—정치 과업을 해결함에 복종되었던것이요, 제二차 五개년 계획은 착취계급을 청산하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경제—정치과업을 해결함에 복종되었고 제三차 계획은 제十八차당대회에서 쓰딸린동지가 제기한 계급없는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성취하며 공산주의에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경제 정치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진으로 반드시 될것이었다。

쏘련에서 경제법칙의 힘을 가진 인민경제 계획화는 경제—정치 과업 해결에 복종된것만큼 그는 정치적, 법률적, 기타 상부구조에 대한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의 결정적 역활에 관한 사적 유물론의 법칙에 어떤 정도에서든지 모순되지않는다。그것은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경제 로선에는 우리 경제 발전의 성숙된 새로운 요구와 진보적 경향

이 집중적인 형태로 반영되는까닭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구체적 인민경제 계획과 경제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광범한 국가적 경제적 태도간에는 통일이 존재하고있는것이다。

경제적 대책의 평가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태도간의 모순은 부분적 경제 지도자들이 인민경제의 부분적 분야와 기업소들을 지도할때 협소한 실무주의적—국가적이 아닌 협소한 경리적인 국부적이며 지방적인 견해에서—태도를 취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바 그것은 정치적 전망을 상실하며 실천에서 경제를 정치에 대립시키는것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우선은 우리의 당 및 경제 일꾼들로부터 그들은 어떤 경제적 대책이든지 협소한 실무주의적、국부적 견해에서가 아니라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적 과업의 견해에서 평가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지도는 그 자체의 본질에 의하여 쏘베트 경제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이 광범한 국가적 시야를 가질것과 공산주의사회에로 나아가는 우리 운동의 전망을 봐야할것과 경제리론으로 무장할것과 정치적 견해에서 어떤 경제적 대책의 평가에 대하여서든지 취급할줄 알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가르치었다。즉 쏘베트의 당 및 경제 일꾼은 자기의 사업을 잘아는 전문가만이 될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사회발전 법칙을 알며 그 법칙을 리용할줄 알며 국가의 정치적 지도의 적극적 참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정치가—사회활동가가 되어야 할것이다。」(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五九九페지)

쓰딸린동지의 이 사상에 대한 비상한 생활성은 사회주의 건설 실천의 매 걸음마다 증명되고있다。

당과 쏘베트 국가는 경제 건설에서 반(反)국가적 경향과 무자비한 투쟁을 하고있다。그 경향은 국부적 또는 지방적 리익을 국가의 리익에 대립시키는것이며 부분적 일꾼들이 계획、로동、재정 규률을 위반하는것이며 사회주의 공동소유를 탕진하는것이며 부분적 꼴호즈에서의 공동경제의 손해의 댓가로 개인 부업 경제를 전개하는것이다。

쏘베트 국가는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쏘베트 사회제도의 이 확고한 기초를 견고히 하기위한 투쟁을 하고있다。

× × ×

사회주의적 사회제도의 승리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정치와 경제간에 새로운 호상관계를 가진다。

쓰딸린동지는 국가에 대한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 제十八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사회주의 이전의 모든 사회—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활동은 二개의 기본 기능으로 특징된다고 하였다。즉 「내적 (중요한것) 기능은 피착취자 다수를 억제하기 위한것이며 외적 (중요하지 않은것) 기능은 다른국가의 령토를 략탈하여 자기의 지배계급의 지역을 확장하거나 혹은 다른국가의 침공으로부터의 자국의 령토를 호위하는것이다」(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六〇四페지)

고유한 의미에서의 경제라는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수중에 있는것이 아니다。반대로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의 수중에 있는것이다。

쏘베트 국가의 특징중의 하나는 그가 정권의 전부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한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본 생산수단의 소유자가된데 있는것이다。쏘베트 국가는 정권과 경제、위력의 통일을 체현한것이다。쏘베트 국가의 수중에 기본 생산수단을 집중하며 계획적 기초위에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경제 발전에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변경시킨다。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에서 브르죠아 국가의 역할은 그가 경제 발전의 자연발생적 행정에 협조하든지 혹은 그에 방해하는것에만 국한될수 있는것이다。제국주의 계단에서 부르죠아 국가는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반동세력으로 나서는것이다。

만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적 성격을 산출한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는 경제발전에 대한 의식적 계획적 지도의 가능과 필요를 조건부하는것이다。

이것때문에 쏘베트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경제발전을 협력하는것에만 국한하는것이 아니다。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국가는 결정적 세력으로되며 인식된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인민경제발전을 결정하며 지향하는 세력으로된다。

자본주의의 조건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와 자본주의적 착취와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맹목적 력사를 창조하며 경제 법칙은 엥겔쓰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를 지배하는 악마의 명령자로 나서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 방법의 조건에서 경제 법칙은 악마의 명령자로부터 충직한 노복으로 변환된다。

그 법칙은 인간의 의사를 지배하는 자연발생적 세력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인식된 세력으로 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의 실천에서 의식적으로 리용되며 적용되는 세력으로 작용하고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경제의 작용이나 경제에 대한 정치의 작용의 성격이 변경되고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기구의 발전에 대한 경제적 하부구조의 작용은 새로운 성질을 띠며 그것이 강화된다。

자본주의 조건에서 정치적 상부구조에 대한 경제의 결정적 역활에 관한 사적 유물론의 기본적 법칙은 인간의 의사를 지배하는 자연발생적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쏘베트 국가는 그 법칙을 인민 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의 실천에서 의식적으로 적용하는것이다。

당과 쏘베트 국가정치의 비상한 생활성과 커다란 개혁적 력량은 그가 사회주의적 인민경제 체계와같은 그런 강유력한 경제적 하부구조에 기초하였으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진보적 요구에 대한 과학적 통계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를 의식적으로 리용함에 기초한데 있는것이다。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으로서의 정치를 모범적으로 분석한 레닌은 혁명적 개혁이 만일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긴절한 요구에 보답하는 경우에서만이 실시될것이라고 하였다。

「어떠한 개혁이든지 경제적 현실에서나 압도적 다수 인민의 의식에서 절대적으로 성숙되지 않은것은 콤무나 즉 로동자와 농민의 대의원 쏘베트는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하려고도 하지않으며 또 실시되어서는 안될것이다」(레닌 전집 제二〇권 一二〇페지)

사회의 경제발전의 요구를 타산하지않은 각종 정치는 피치못하고 실패될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말며 헛된 공상가들의 처지에 빠지지말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당이 자기의 활동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간성의 제원리」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이되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구체적 제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이며…」(「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제二〇一페지)

사회주의 조건에서 정치에 대한 경제의 결정적 역활은 당과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정치로선을 세우면서 다음과같은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있다。

一、물질적 자원을 가진 달성된 생산력 수준을 세밀히 통계하는것。

二、쏘베트 경제의 성숙된 새 요구와 진보적 경향。

三、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의 우월성과 그의 경제법칙과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적 참가자인 대중의 창조와 창발에 있는 그 사회주의적 생산앙양의

가능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는 쏘베트 경제발전의 진보적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성숙된 새 요구인것이다。

이것은 쏘베트 국가와 쏘베트 인간에게 자본주의 경제에 특유한 그런 비용이 없이 생산력 발전을 전진시키며 맑쓰의 말대로, 말한다면「가장 가치있고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해당한 조건하에서 힘을 가장 적게 허비하면서」(맑쓰「자본론」七二二페지) 경제발전의 지도를 실천할 가능을 주는것이다。

다른면으로는 경제에 대한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의 반작용은 막대한 정도로 장성되는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질을 띠는것이다。

첫째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작용의 새로운 성질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와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우리가 본바와같이 사회주의 경제의 성격과 그 표현의 특수형태를 결정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은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는 자연발생적 세력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경제를 계획적으로 지도하는 실천에서 인식되며 의식적으로 리용되며 적용되는 세력에 의하여 표현되고있다。

인식된 필연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특징은 그것이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를 걸쳐서,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걸쳐서 실현되는데 있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국가의 경제 정치의 대책에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적용하지 않으면 쏘베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대한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의 작용에 있어서 그에게 새로운 성질을 주는것이다。

둘째 경제에 대한 정치작용의 새로운 성질은 사회주의 사회의 새로운 계급적 구조와 관련되었는데 그 구조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二개 형태 즉 국가적―전인민적 소유와 꼴호즈 협동조합 소유의 지배로 결정된다。

다 아는바와같이 정치는 계급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기전까지는 계급이 존재한다는것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관련되었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사적 소유의 리익이 지배하고

있다。각자의 물질적 처지는 그의 계급적 처지와 생산 수단에 대한 그의 관계가 결정하는것이다。

생산수단의 대소유자들은 생산수단을 상실한 로동자들을 착취하는것에 의하여 살아가고있다。대토지소유자들은 고농과 빈 중농 대중을 착취하는것에 의하여 살아가고있다。

소소유자—농민、수공업자는 대소유자—자본가、지주、부농(꾸라크)의 착취 대상으로된다。

지배 계급의 내부에서는 잉여가치를 분배하기위한 경제적 투쟁이 진행되고 분배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이 진행되고있다。잉여가치 분할을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는 자본가들이 호상 적으로 나선다 할찌라도 로동계급과의 투쟁에서는 맑쓰의 표현과 같이 그들은 후리메손조합식 형제적 관계로 나서는 것이다。

통치계급은 제국주의적 목적으로 민족적 편견을 리용하며 민족간에 적개심을 부식한다。그리하여 계급투쟁은 민족간 반목(反目)의 성격을 띄게된다。

상대적 적대적 리해관계를 가진 제계급과 계급적 그루빠들의 그 다양성(多樣性)은 정당과 정치투쟁 형태의 다양성을 산출한다。이런 조건에서 국가는 독점자본의 수중에 잡힌 정치적 무기로 즉 경제적으로 가장 강유력한 부르죠아지 그루빠의 정치적 무기로 나서며 부르죠아 국가의 정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성숙된 새 조건의 해결을 장애하는 경제의 반동적이요、부페되어가는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조건에서 정치와 경제의 통일은 적대적 기초에서 설정된다。그것은 부르죠아 국가의 정치가 독점자본의 리익을 표현하면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과 또한 일정한 정도로 착취적 통치계급의 내부에 있는 다른 그루빠의 리익과의 심각한 모순에 처하여있는 까닭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방법의 조건하에서는 「경제 운동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국가 주권의 운동과 또 한편으로는 그 주권과 동시에 발생된 재야당의 운동이 영향을 주는것이다」라고 맑쓰는 크·스미트에게 보낸 편지에 썼던것이다。
(맑쓰 엥겔쓰 전집 四二七페지)

독점 자본의 정치 로선을 표현하는 부르죠아 국가의 정치적 기초의 영향과 병행하여 부르죠아지 내부에 있는 다른 그루빠의 리익을 표현하는 무수한 재야당의 정치도 또는 소부르죠아 주민층의 리익도 경제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것이다。자본주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경제적 및 정치적 투쟁은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로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여압하에서와 강력한 파업과 혁명적 폭동의 결과에

자본가 및 부르죠아 국가는 로동시간과 로동임금 수준에 관하여 로동계급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는때가 있는것이다。그러나 로동계급의 기본적 리해관계는 자본주의 경외에 있으며 그 리해관계는 부르죠아 주권의 타도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립을 요구하는것이다。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전환하려는 성숙된 새 사회—력사적 요구의 해결을 용이하게하는 이 진보적 정치로선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공산당이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전혀 달리 설정되고있다。생산 수단에 대한 二개의 사회적 소유형태가 승리하는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류력사에서 보지못한 쏘베트 사회의 새 계급적 구조가 발생되었는바 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알지못하는 친목한 계급이 존재하는것으로서 특징된다。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며 생산수단이 사회의 수중에로 넘어가면 착취계급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될것을 예견하였던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착취계급을 청산한 후 즉시 계급없는 사회에로 전환하지못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적대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계급과 계급적 차별이 보존되는 시기가 있으리라는것은 예견할수 없었다。

브·이·레닌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첫 걸음을 일반화한 기초에서 자기의 로작에 계급청산에 대한 조건에 관한 문제의 심오하고 구체적인 설정을 하였다。「……계급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착취자 지주 자본가만을 전복할것뿐만 아니라、또한 그들의 소유를 철폐할것뿐만 아니라、그외에도 생산수단에 대한 각종 사적 소유를 철폐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와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간의 차이를 폐지할것이다。이것은 대단히 오랜(永) 것이다。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의 고속도의 발전이 요구되며 수많은 소생산 잔재의……저항을 극복하여야하며 그 잔재와 관련된 관습과 완만성의 막대한 력량을 극복하여야된다」
(레닌 전집 二四권 三三七페지)

레닌은 공산주의의 최고단계에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사회주의 계단에서는 친목한 계급들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계급 청산조건에 관한 문제의 설정으로부터 직접 출발하는것이다。그것은 그가 계급없는 사회에로의 이행을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간의 대립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을 청산하는것과 즉 다른말로하면 공산주의의 고급 단계에로 이행하는것과 관련시켰던 때문이다。

다른면으로는 레닌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처지에서

생긴 근본적 변경을 해부하였던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란 자기의 로작에 레닌은 이렇게 썼다。「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고 정권을 쟁취하고 지•배계급으로 되였다。그는 자기의 수중에 국가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는 사회적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는 동요하는 중간분자와 계급을 지도하고 있으며 그는 착취자들의 장성하는 반항력을 진압하고 있다」(레닌 전집 五一四페지)

다음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기에서의 농민을 평가하였다。「……농민은 일반적으로 각종 소부르죠아지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도 중간적 지위를 차지한다。한편으로는 그것이 지주와 자본가들로부터 해방되려는 근로자의 리익에 련합되는 상당히 중요한 (락후된 로씨야에 있어서 막대한) 근로대중이며 다른 편으로는 그것이 특수한 소경영자이며 소유자이며 상업가인것이다。이러한 경제적 처지는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간에서 불피코 동요하게 하는것이다」(동서 五一四페지)

이것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으로부터의 농민에 대한 지도의 필요가 생기는것이다。브•이•레닌은 이와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을 강조하였다。「농민은 우리 력사의 장구한 세기를 걸쳐 자기를 위하여 로동할수 있는 가능을 언제든지 가져보지 못하였던것이다。그는 수억 뿌드의 량곡을 자본가와 도시와 외국에 공급하면서 기아에 처하였던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 농민은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로동하고 있다……」(동서五一一페지)

착취계급은 그들이 격파되였으나 전멸은 되지않은것이다。

파도기의 계급적 구조에 대한 레닌의 평가는 이러하다。

쓰딸린동지의 막대한 리론적 공적은 그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적대적 모순을 알지못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새 계급적 구조를 자기의 로작에 훌륭히 해부한데 있는것이다。이것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발전에 준 새로운 기여였다。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결과에 전체 착취계급은 청산되였고 자본주의가 발생될수 있는 지반—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근절되였다。쏘베트사회에는 오로지 근로자—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만이 남아있다。쏘련에서는 로동계급 농민 인테리겐챠의 사회적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로동계급은 생산 수단을 상실하고 자본가의 착

취를 당하는 계급으로부터 전체 인민과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으로 착취에서 해방되였고 쏘베트국가에서 지도적 력량으로된 계급으로 전환되였다。

쏘베트 농민은 착취에서 해방되였으며 그의 압도적 다수는 집단적 로동과 선진 기술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하는 꼴호즈 농민으로 되였다。

쏘베트 인테리겐챠는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기본적으로 호상련결된 새로운 인테리겐챠이며 착취계급에게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쏘베트 인민에게 봉사하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된 결과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상실하고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던 프로레타리아트와 이중적 성격을 가졌기때문에 그는 사적 소유자로서의 부르죠아지에게로 끌리며 피착취 근로자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끌리우는、소상품생산자—농민간에 있은 과거의 근본 차이가 근절되였다。사회주의적 소유의 지반위에서 로동계급에게 지도적 역할이 속하는 쏘베트사회의 이 二개의 기본계급의 친목한 통일이 발생되였다。

쏘베트 사회의 기본계급들의 이 위대한 협력에는 쏘베트 인테리겐챠도 역시 참가하고있다。

국가적 소유와 꼴호즈—협동조합 소유는 각이한 성숙정도로 특징되는 사회주의 소유형태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쏘베트 사회에 계급이 존재하는 경제적 기초는 동일한 형태인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형태의 동형(同型)은 로동계급과 꼴호즈농민과의 통일의 확고한 토대가 되어 있으면서 또한 역시 개인적 리해와 사회적 리해를 옳게 결합시키는 토대로 되어있다。

쏘베트 사회에는 올바로 리해한 기본 리해관계가 두개의 형태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견고히하며 발전시키는 리해관계에 적대되는 계급이나 계층이 없다。

국가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동계급의 개인적 수요와 리익을 최대한도로 만족시키는 것은 국가의 소유와 공동 재산을 견고히하며 장성시키는 기초에서 만이 가능한것이다。이와 똑같이 꼴호즈원의 개인적 수요와 리익을 최대한도로 만족시키는것은 꼴호즈의 공동경리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기초에서만이 가능한것이다。로동자와 꼴호즈원의 기본적이요、장구한 리익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발전과 그를 백방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는것이다。이것은 국가기업소에서나 꼴호즈에서 개인과 사회간의 부분적 모순이 발생될 가능을 제외하는것은 아니다。그러나 이와같은 각종 모순은 동시에 당일에 생기는 림시적 리익과 쏘베트 인

민과 각개 공민의 장구한 리익과의 간에 생기는 모순으로 되는것이다。사실상 네쁘(신 경제정책) 초기에 경공업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던 조건하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 수요를 완전히 만족시킬수 있었던것이다。그러나 우선 근로자의 개인적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을 더 열어놓은 이런 정치는 로동자 끌호즈원 인테리겐차의 기본적 리익의 견해에서 본다면 파멸적인것이다。그 정치는 우리 국가를 자본주의 포위에 예속시키며 제국주의 야수들의 수중에로 들어가는 쉬운 희생으로 되게하는것이였다。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과 중공업과 그의 심장으로되는 기계전조업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 승리의 근본 리익에 해당하며 그 정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개인적 수요를 가장 원만히 만족시킬 조건을 보장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개 형태가 동일한 형태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의 새 계급적 구조는 전체 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의 기초로된다。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은 쏘베트 사회에서 견실한 위신을 가졌으며 쏘베트 동맹의 근로대중의 무한한 지지를 받는 유일 지도당—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이 있다는데서 표현된다。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은 쏘베트 사회에서 지도력 및 지향력으로된다。그는 국가기관과 근로자 대중을 조직하는 사업에서 목적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국가 및 사회 조직에서 사업하는 공산 당원들을 걸쳐서 모든 이 복잡한 체계에 대한 자기의 이데올로기야적 지도를 실시한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국가의 정치는 쏘베트 인민의 리익을 표현한다。

계급적 적대적 모순을 알지못하며 근로 대중의 무한한 신임을 받는 유일한 지도적 당을 가진 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 정치의 능동적 작용은 친히 자기의 일로 간주하는 전체 인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강유력한 직용으로된다。이것이 경제에 대한 정치 작용의 효과를 대단히 강화하며 그에 새로운 성질을 주는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에서 당과 쏘베트국가 정치의 역활은 그의 실천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다더 성장되고있다。

맑쓰와 엥겔쓰는『신성 가족』이란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썼다。『력사적 행동의 견실성과 병행하여 대중의 수량도 성장시켜야 할것이니 그것은 (력사적 행동=역자주) 그의 (대중=역자주) 사업으로되는까닭이다』(맑쓰 엥겔쓰 전집 제三권 一〇五페지)

사회주의 건설에 근로대중이 적극 참가하는 경제적 기초는 자본주의적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로동력을 생산수단과 련결시키는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구성되는것이다。쏘베트동맹에서 로동자와 농민은 자본가와 지주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사회주의 사회를 위하여 로동하고있다。

또한 그들이 리용하는 생산수단은 전인민적 혹은 꼴호즈—협동조합 소유인것이다。그러므로 쏘련에서의 생산수단은 적대되는 자본의 세력처럼 로동자와 농민에게 대치되지 않는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강유력한 요인으로되며 과학과 기술을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적 축적의 새로운 보충적 예비를 제공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의 민속한 장성 속도를 보장하는 새 사상、창의、발명의 무진장의 원천을 산출하는 극복되지않는 현대적 운동—사회주의 경쟁이 발생된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경제에 대한 당과 쏘베트국가의 정치 작용의 새로운 성질이란 이런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쏘베트 주권과 볼쉐위크당의 정치는 우리 사회의 생활적 기초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야적 상부구조의 작용도 강화되는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질을 띠는것이다。

엥겔쓰가 지적한바와같이 경제는 다부분 자기의 정치적 의복을 입고 즉 정치를 걸쳐서 철학에 대하여 자기의 작용을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소유의 두개 형태의 동형(同型)과 사회주의 사회의 새 계급적 구조에 기초된 쏘베트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은 쏘베트 인민의 이데올로기야적 통일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조건에서의 각종 계급、계급적 그루빠、정당들의 리익을 반영하면서 정치분야에서와 같이 각종 경향의 투쟁은 이데올로기야 분야에서도 진행되는것이다。부르죠아 학자들과 사회적 활동가들은 이 각종 리론과 견해의 투쟁에서 진리를 해명할에 원조하는 자본주의의의 우월성을 보고있다。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 리론투쟁의 배후에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는데 방해하는 계급적 제한성과 탐욕적 리해관계가 은페되어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조건에서 과학적 탐구는 친절한 변명으로 늘그머니 바꾸어지며 과학적 세계관을 선전하는것은 출판물、문학 서적、예술을 걸쳐 전파되는 극단한 반동주의와 인종적 증오로 교환되었다。

자기의 탐욕적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객관적 법칙을 발명하기 위한 리론투쟁과 과학적 사상의 진실한 자유는 착

취계급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가능한것이다。

착취계급이 자기의 탐욕적 리익을 위한 리론투쟁은 인간의 의식을 명백하게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암담케 하는것이며 진실한 과학의 운동과 발전을 지체시키는것이다。과학적 진리는 이런 조건에서 전진을 장애하는 계급적 편견의 장애물을 걸쳐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적 기초위에서만이 진실한 과학의 발전을 위한 무제한한 가능성이 열리게되는바 여기에서 과학은 그를 쏘베트 인민에게와 전체 진보적 인간에게 봉사시키기 위하여 사회와 자연을 전진시키는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는것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든지 알지못하는것이다。

쏘베트 인민의 이데올로기야적 통일은 가장 선진적이요、진실한 과학적 세계관—맑쓰—레닌주의의 지도하에서 표현된다。

맑쓰—레닌적 리론의 당성은 현실을 연구하는 진실한 과학적 태도에 적합한것이다。그러나 부르죠아지의 리론의 당성은 객관적 진리에 예리하게 모순되는것이다。이것은 현대 사회발전에 있어서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역활의 지위가 각이한것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발생하며 발전하는 그것을 극복하지못하는것이다」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부르죠아지는 생산력의 발전형태로부터 그 제약으로 전환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제시하는 퇴폐되어가는 계급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진보적 공산주의 제도를 건설할 력사적 사명을 가진 성장하는 계급이다。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사회발전의 새 요구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전환하려는 요구에 의하여 발생된것이다。그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인민의 사상가—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맑쓰—레닌주의 리론은 그의 조직적、동원적 역활이 없이는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가 공산주의 기초에서 세계를 재조직할수 없는 까닭에 발생된것이다。여기에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위력의 원천과 극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이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특수적으로 경제적 리론은 사회주의적 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역활을 논다。전(前)사회주의 제도의 조건에 있어서 경제학의 역활은 맹목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연구하는것뿐이다。경제발전에 대한 인간의 작용 자체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그 발전의 맹목성에 의하여 제한된것만큼 경제학의 역활도 제

한된것이다。

경제발전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며 지도하기 위하여、한갖 경제법칙을 인식하는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설정하는것이 반드시 필요된다。이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엥겔쓰의 말은 대단한 흥미를 일으킨다。

「……장구하고 종종 격렬한 경험에 의하여 력사적 자료를 수집하며 해부하는것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산활동의 평범하고 가장 먼 결과를 명확히 타산할것을 점차적으로 습득하였다。이와같이 우리는 그 결과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조절할 가능성을 가지는것이다。

이 조절하는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인식보다 더 큰것이 요구된다。이것을 위하여 현하 지배하고있는 생산방법과 그와함께 우리의 현대 사회제도를 급진적으로 변경할것이 요구된다」(맑쓰 엥겔쓰 전집 제一四권 四六三페지)

이와같이 경제학은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전제조건과 경제법칙의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킨다。그러나 이 조절이 가능성으로부터 현실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산 방법에서의 혁명이 필요하다。즉 생산수단이 사회의 수중에로 이행하는것이다。다른면으로는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자의 수중에서 사회의 수중에로 이행하는것은 경제학의 활무대와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가능을 보다더 확대하는 것이다。

과학은 경제발전을 계획적、의식적으로 지도하는 중대한 무기로되며 인식만 하는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초위에서 세계를 변경하는 무기로 될것이다。

현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있다。

쏘베트 인민들앞에는 최근 제五개년 계획의 구체적 과업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생산—기술적 기초를 창설하며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간 및 도시와 농촌간 대립성을 극복하며 수요에 의한 분배에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수요품의 풍족을 창설하는 문제와 기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막대한 과업들이 나선다。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는 쏘베트 과학앞에 가일층의 기술 진보와 자연력을 더 일층 정복하며 개조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커다란 과업을 대단히 예리하게 내세운다。

쓰딸린동지는 이것을 타산하면서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쓰크바시 쓰딸린 선거구 선거전 선거자 총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쏘베트 학자들앞에 단기간에 외국과학의 성취를 따라갈뿐만

아니라 앞서야될 과업을 제기하였던것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부면에서 쏘베트 과학의 앞에 얼마나 막대한 과업과 흥미있는 전망이 열리고있다는것은 「쏘련 구라파부분의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높은 수확을 확고히 보장하기위한 호전림 재배와 목초재배, 륜작법 침투와 호수와 저수지 건설 계획에 대한」 내각과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증명하여주고있다。 자연을 개조하는 이 굉장한 계획은 一억二천만 헥따르의 지면에서 실시될것이다。 十五년을 결쳐 국가 호전림 지대는 五천三백 키로메—터로 조성될것이며 끌호즈와 쏩호즈의 전원에, 재배되는 호전림의 면적은 五七〇만九천 헥따르가 될것이요, 삼림화하는것과 사지(砂地)를 고착시키는것이 三二만二천 헥따르가 될것이며 끌호즈와 쏩호즈에 四四, 二二八개소의 호수와 저수지가 건설될것이다。

이와같은 계획적 정책은 오로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가능하였던것이다。 그 정책들은 쏘베트 학자들의 과학적 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의 전망을 열어놓으면서 학자들앞에 변증법적 유물론 방법을 철저히 실행하는것으로만이 결정될수 있는 커다란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생물학 분야에서 웨이스만, 몰간, 멘델의 부르죠아적 반동적 관념론적 리론을 반대한 창조적 자연개조를 위한 미츄린 방향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그와같이 예리하게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것이다。

이 모든것은 맑쓰—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야는 쏘베트 경제발전의 강유력한 요인이란것을 말하는것이다。

당과 쏘베트 국가가 쏘베트 인민앞에 경제—정치적 시책을 실시할 과업을 제기할때 과학 문학 예술 출판물은 그 과업 해결을 원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것이다。 당과 쏘베트 국가는 의식에서 자본주의적 잔재를 극복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관계로 교양하며 로동에 대한 열성과 쏘베트 애국주의를 전개시키며 전체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위대한 사업의 의식적 적극적 참가자로 만드는 일에서 근로자들을 원조하기 위하여 그들중에서 막대한 이데올로기야적 문화—교양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맑쓰—레닌주의 사상은 그가 인민대중을 쟁취하는 때에는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경제발전의 강유력한 요인으로 출현하는 진실한 물질적 세력으로 되는것이다。

과거 모든 경제구조에 비하여 쏘베트 사회제도의 막대한 우월성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야적 통일이 있기때문에 우리국가는 사회주의의 전

설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정책의 과업을 실시할때 유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전체 요인—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야적—을 발동시킬수 있는 가능을 가지고 있다는데 결론을 얻게된다。

제기된 경제과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발전의 모든 힘과 모든 요인을 이렇게 집중하는것은 적대적 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분렬되는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것이다。

이 모든것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작용에서 당과 쏘베트 국가정치의 조직적 동원적 력량을 대단히 증가하는것이다。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는 인식된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기초위에서 계획적 질서로 경제발전을 지향하며 조직하는 력량으로 나서고있다。

× × ×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 력사는 경제 발전의 성숙된 새 요구와 진보적 경향의 집중적 표현으로되는 볼쉐위크당과 쏘베트 국가정치의 위대한 개혁적 력량이다。 그의 기초위에 사회주의 경제의 막대한 우월성과 새로운 운동력이 설치되고있다。

이 현상의 명확한 례증은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쓰딸린적 계획과 그를 실현하는것이다。

브·이·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세계에서 동시나 혹은 결정적인 제국가에서의 사회주의의 동시의 승리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낡은 공식은 새 력사적 환경에 적합되지 않으며 사회주의 혁명은 부분적 한나라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브·이·레닌의 이 학설은 이·브·쓰딸린의 로작에서 깊은 지반을 닦아놓았으며 더 발전되면서 인류 력사에서 위대한 변혁—十월 사회주의 혁명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실현하는 향도성(嚮導星)으로 되었던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 법칙과 전망에 대한 명확성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경제발전의 진보적 경향과 새 요구의 연구에 기초한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막대한 조직적 및 개혁적 력량의 명백한 실례를 가지고있다。

로씨야에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직후에 가장 선진적인 정권 형태가 창설되었으나 그러나 그 주권은 그에 적당한 경제적 하부구조에 기초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정권 형태와 락후된 경제간에 있는 이 모순을 볼쉐위크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국가가 해결하게 되었던것이다。

이 시기에 결국 자기에게 적당한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경제에 관한 정치의 상대적 독립성과 또한 경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함에 있어서 당과 쏘베트 국가의 지도적 및 조직적 력량이 전적으로 나타났다.

국가형태가 쏘베트 주권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의 결과에 발생되었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 국가의 력사적 사명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끝까지 즉 먼저 사회주의의 경제의 지반을 건설하며 그다음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해결하는데까지 인도하는데 있다.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전쟁과 공민 전쟁의 결과에 극도로 파괴된 상태에 처한 기술―경제 관계에 있어서 락후된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것이다.

과도기에 대한 맑쓰주의적 리론과 일국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은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적 로선만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를 조성하는 구체적 방도와 형태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과 실지 사업 과정에서만이 발생되며 작성될수 있는것이다.

오로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을 연구하며 일반화하며 새 현상과 법칙을 발로하는 기초위에서만이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구체적 계획작성과 그 실행방법을 연구할수 있었던것이다.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하면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력사에 의하여 비난될것이요, 그는 파탄될것이요, 착취자들은 물피코 몰수될 커다란 방침에 의하여 개혁은 력사적으로 불피코 실행될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에 의하여 확청된것이다」라고 하였다 (레닌 전집 二三권 四〇페지) 그러나 「……우리는 개혁의 형태도, 구체적 재편성 발전속도도 알수 없었던것이다. 오로지 집단적 경험, 오로지 백만대중의 경험만이 이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제시를 줄수있는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즉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주들의 사회에서와 자본가들의 사회에서의 력사를 창조하던 수백 수천의 경험은 불충분한것인 까닭이다」(동서)

레닌과 쓰딸린은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 첫날부터 실천화된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과학적 프로그람을 작성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사회 건설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사회주의사회 건설 계획을 발전하였으며 구체화하였다.

레닌의 창의에 의하여 실시한 신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의 경제의 지반을 건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당과 쏘베트 국가는 사회적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전을 사회주의적 경제의 지반을 건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해당한 정치적,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가 성장하는 각종 사회의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대한 사적 유물론의 기본 법칙에 의하여 지도되며 그를 의식적으로 적용하였다.

사회주의의 경제 지반 건설―이것은 강유력한 사회주의의 공업을 창조하며 소상품 농민경제를 집단화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극단한 파탄은, 국가 공업화와 농업 재편성에로 즉시 이행할것을 용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까닭에 레닌과 쓰딸린의 사회주의의 건설 계획은 사회주의의 공업에 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공업을 부흥시키며 사회주의의 공업화정책의 실시에로 이행할 전제조건을 창설하기 위하여 소농민 경제의 부흥 향상으로부터 경제 부흥을 반드시 시작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전제 조건은 쏘베트 경제발전의 복구기에 조성되었다. 당과 쏘베트 국가의 국가공업화에 대한 총로선은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 무장된 대공업만이 사회주의의 기초가 될수 있다는것으로부터 우선 출발하였다. 그와 동시에 국가 공업화는 쏘련의 경제적 독립과 자본주의적 포위로부터의 그의 독립성의 기초인것이다. 국가 공업화는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원칙 재편의 공갈일것이다. 농업의 가일층 발전과 대 집단적 생산에로의 이행은 새로운 물질생산의 기초―농기, 뜨락또르 등등을 제조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와동시에 국가 공업화는 쏘련의 국방력 견고의 필요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부흥으로부터 사회주의의 공업화에로 이행할 절제적 필요성은 부흥기 말기에 이르러 공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상속한 기본 폰드를 리용함에 제약되었던것이다. 사회주의의 공업의 가일층 앙양은 기업소의 재축과 새 공장―제조소 건축을 강요하였다.

경제 발전의 이 성숙된 요구의 집중적인 표현은 사회주의의 공업화 정책인것이다.

국가 공업화에 대한 레닌과 쓰딸린의 정책은 생산력이 발달한 수준의 경제 상태를 엄격히 통제하며 사회주의의 경제의 법칙과 운동력을 의식적으로 리용함에 기초한 당과 쏘베트국가 정치의 지도적 력량의 빛나는 모범인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제十四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정치보고에서 당의 총로선을 규정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를 농업국으로부터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시설을 할수있는 공업국에로 전환하는 여기에 우리의 총로

선의 본질과 기초가 있는것이다。」(쓰딸린 전집 七권 三五五페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그의 우월성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기초위에서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실천되였다。

자본주의 조건에 있어서의 각분야간에 로동과 생산수단의 분배는 리윤을 추구하며 생산 가격을 중심으로한 시장 가격의 자연발생적 동요에 기초하여 실시되는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쓰딸린동지가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선거자앞에서 진술한 력사적 연설에서 제시한바와같이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경공업부터 시작하는것이다。그것은 경공업이 투자를 적게 요구하고 리윤을 더 많이주는 까닭이다。경공업에서 잉여 리윤을 축적한다음 중공업발전의 조건을 조성하는것이다。이런 방법은 장구한 수십년의 막대한 기간을 요구하는것인바 그 기간은 경공업 발전을 기다리며 중공업이 없이 살아가야할것이다。

쏘베트 경제에서 각분야간에 로동과 생산수단의 분배는 리윤을 보장할 원칙에서가 아니라 당과 쏘베트 국가가 제기하는 경제—정치 과업에 해당하게하며 개혁된 형태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계획적 지도가 점차로 실시된다。사회주의 공업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로 인하여 경공업 발전으로부터 측시 시작하였던것이다。사회주의 경제의 운동력과 그의 우월성을 리용하는것은 력사적인 단기간에 우리 국가를 공업화할 가능을 주었다。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우리 국가를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이행하는데 근 十三년이 요구되였다。十三년이란 기간은 그런 거대한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믿을수 없을만큼 짧은 기간이였다는것을 시인하지 않을수없다。」공업화 정책은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법칙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쏘베트 경제발전의 새로운 법칙을 리용하는 기초위에서 실천되였다。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본법칙을 규정하였다。그는 사회주의적 국가 공업화 방법은 근로대중 그중 농민 기본대중의 물질 형편을 부단적으로 개선하는것을 걸쳐서 실행되나 자본주의적 공업화 방법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층을 빈궁화하는것을 걸쳐 실행되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쓰딸린 전집 八권 二八六—二八七페지)

근로대중의 물질적 형편이 부단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공업화 발전에 견고한 기초로되며 과잉생산 공황의 가능성을 제외하는 부단적으로 장성하는 내부시장을 창조하는것이다。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 지반 건설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된것은 그가 사회주의 공업화 법칙의 지식에 의거하였던것이다。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였다면 우리는 실패하였을것이요、농민과 절단되였을것이요、쏘베트 주권이 멸망되였을것이요、우리국가에 자본주의가 복구되였을것이다。

국가 공업화 정책을 실현하는 결정적 요인중의 하나는 국가 공업화 사업을 친히 자기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한것이다。사회주의 공업 건설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가장 명백한 표현은 사회주의 경쟁과 그의 고급형태—쓰따하노브 운동인것이다。우리 사회발전의 이 새 위력으로 인하여 제一차 二차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 사회를 력사적인 단기간에 건설하였다。

국가 공업화 정책 실현에 있어서 당과 쏘딸트 국가의 이데올로기야적 및 문화—교양 사업이 막대한 역활을 하였다。그것은 즉 사회주의의 적—또로쯔끼스트와 부하린파—을 반대한 당의 총로선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과 맑쓰—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광범한 선전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한 거대한 공산주의적 교양사업이였다。

이와같이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지반을 창설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경제에 대한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 작용의 새로운 성질이 절실히 표현되였다。다른면으로는 쏘베트 경제의 성숙된 새요구와 진보적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으로되는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의 위대한 생활성도 그보다 못하지않게 표현되였던것이다。

사회주의적 경제 개전과 모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당과 쏘베트 국가정치의 위대한 조직적 및 개혁적 력량의 훌륭한 모범은 쏘련에서의 농업의 집단화인것이다。이것은 그 결과에 의하여 一九一七년 十월의 혁명적 변혁과같은 심도한 혁명적 변혁인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기본 생산수단과 류통수단—토지、산업、운수、은행—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한것과 로동계급의 근로농민과의 동맹과 그 동맹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은 자본주의적 예속으로부터 농민을 구원하며 그가 사회주의적 발전의 로정에로 이행할 조건을 조성한것이다。농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개혁에 대한 천재적인 프로그람은 저명한 레닌의 협동조합화 계획에 제시되였고 쓰딸린동지의 로작에서 더 발전되였고 그의 직접 지도하에서 실현되였다。

이 계획은 농민의 二중성을 깊이 인식하는것으

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 재교양과 기본 농민대중을 끌호즈 발전의 길에 인입할 과업을 가진 경제적 정치적 제시책을 세웠던것이다。그 계획은 먼저 농민과의 상업적 련락을 설정하며 기본 농민대중을 각종 형태의 소비적 농업적 협동조합에 인입하면서 그 다음 사회주의적 공업의 원조하에서의 상업적 련락으로부터 생산적 련락、농업의 집단화에로 이행할것을 예견하였던것이다。

당과 쏘베트 국가는 이 막대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야적 작용의 공간들을 리용하였다。즉 소비적 농업적 협동조합의 각종형태를 발전시키는 작용과 생산적 협동조합의 각종 형태를 장려한것과 예매계약의 방법을 리용하며 농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측으로부터의 농민에 대한 원조와 농기 뜨락똘 배급소 조직과 쏩호즈측으로부터의 조직적 농학적 원조를 한것과 당과 쏘베트 국가에 의하여 꾸준히 실시된 부농(꾸라크)을 제한하며 구축하는 로선과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농민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양시키는 막대한 선전사업등이 그것이였다。

당과 쏘베트 국가의 이 거대한 경제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야적 사업은 기본 농민 대중이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게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을 창설하였던것이다。

쏘베트 주권의 두개 지반의 모순—급격히 발전하는 대 사회주의 공업과 자본주의를 산출하며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락후된 소농민 경제—을 청산하는 문제가 대단 예리하게 나섰던것이다。이 모순은 오로지 농업의 집단화 방법으로만이 청산될수있는것이다。

우리 국가의 경제발전의 이 성숙된 요구의 집중적인 표현은 전반적 집단화의 기초위에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하는 쓰딸린적 정책이었다。

뜨로쯔끼스트들은 一九二六—一九二七년에 경제적 전제조건이 아직 창설되지 못하였음을 불구하고 부농에 대한 즉시 공격의 길로 당을 충격하였던것이다。쓰딸린동지는 이 악선동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一九二六—一九二七년에는 아직 농업의 전반적 집단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못하였다고 제시하였다。우리는 부농이 생산하던것을 아직 끌호즈와 쏩호즈의 생산으로는 바꿀수 없었다。이런 조건에서 부농에 대한 즉시의 공격에 관한 문제의 설정은 위험한 모험주의였던것이다。一九二九년도에 였어서는 문제가 달리 설정되였다。이때에 와서는 부농에 대한 결정적 공격과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할 경제적 정치적 전제조건이 벌써 직면하고있은 때였다。농업에 새 기재—농기、뜨락똘 기타—를 공급할 기능을 가진 공업이 창설되였던것이어

다。다른면으로는 농민의 다부분이 벌써 농업 협동조합의 각종형태에 인입되였던것이다。끌호즈와 쏩호즈는 발전되였고 확고히 되었던것이다。一九二九년도에 끌호즈와 쏩호즈는 一九二七년도에 부농이 제공하던것보다 상곡(商穀)을 더 많이 제공하였던것이다。이 모든것이 전반적 집단화의 기초위에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할 물질적 기초를 창설한것이였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을 멸망적「자연발생적」길에 밀어넣으려고 백방으로 시도한 부하린파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끌호즈 건설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였다。쓰딸린동지는 레닌의 협동조합화 계획에 기초하여 부하린파의 반혁명적 리론을 격파하였고 집단화의 리론을 작성 실천하였다。

이와같이 레닌—쓰딸린 당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조성된 우리 경제의 성장되는 진보적 력량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분자에 대한 공격을 지도하였고 우리국가에서 끌호즈 제도의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던것이다。

국가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의 기초위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지반을 건설하는 과업은 제一차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함에 의하여 결정되였던것이다。

이것에 의하여 착취 계급을 청산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혁을 완성하며 사회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건설하는 과업을 세운 제二차 五개년 계획의 지반이 준비되었던것이다。

제二차 五개년 계획을 실행한 결과에 현대적 새 기술의 기초위에서 전체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혁이 근본적으로 종결되었던것이다。

사회—정치 분야에 있어서 제二차 五개년 계획의 중요 결과는 착취 계급의 잔재를 청산하며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를 유일 로동전선에로 결속한것과 쏘련 제민족의 사상—정치적 통일과 친선이 견고된것이었다。

이와같이 국가 정치 생활의 완전한 민주화와 정치적 상부구조에서의 변경된것에 적합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하부구조가 확대될 지반이 창설되였던것이다。쓰딸린동지는 제十七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이 과업을 다음과같이 규정하였다。

「사실은 우리가 벌써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사회의 지반을 건설하였으며 우리에게는 그의 상부구조를 완성하는것만이 남아있는바 이 일은 사회주의 사회의 지반을 건설하기보다 물론 용이할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一〇판 五六四—五六五페지)

이 과업은 새로운 쓰딸린적 헌법을 실시하는것에 의하여 결정되었던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과 쏘베트국가가 사회주의사회의경제적 하부구조에서 생긴 변경을 타산하면서 그 변경에 해당하게 정치적 상부구조를 변경시키는것이다。

쓰딸린적 헌법은 경제에서와 쏘베트 사회의 계급적 구성에서 생긴 심각한 변천으로 되면서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막대한 작용을 하였으며 쏘베트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위력을 대단한 범위로 견고히 하였던것이다。

쏘련에서의 제민족의 친선과 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과 쏘베트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소유의 二개 형태의 동형성(同型性) 과 새 계급적 구성의 지반위에서 발생되면서 평화 건설기에서나 또는 위대한 조국 전쟁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 발전의 강유력한 운동력으로 되었던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건설한것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의 최고양태에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새 요구를 산출하였고 조건을 조성하였던것이다。

이 성숙된 새 요구의 집중적인 표현—무계급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종결하는 당의 총로선은 쓰딸린동지가 제기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가며 앞서가자는 파업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였다。

이 파업을 실현하는 제일보는 제三차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에 예정되었던것이다。위대한 조국 전쟁은 이 파업 실행을 중단하였던것이다。 쏘베트 동맹은 승리로 전쟁을 끝마친후 공산주의에로 가는 자기의 운동을 재흥시켰던것이다。

쓰딸린동지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선거자들 앞에서 진술한 자기의 력사적 연설에서 최근 제五개년 계획에서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우리 전진의 도표(道標)를 규정하였다。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위한 쏘베트 인민의 성공적 투쟁은 우리 국가를 승리에서 승리에로 령도하는 당과 쏘베트 국가 정치의 백전백승의 력량의 새로운 증명인것이다。

이 사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 시기를 걸쳐서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정치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지향적 개조적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표시하였던것이다。 다른면으로는 사회 경제 발전은 쏘베트 사회에서의 계급적 관계에서와 정치 제도에서와 법률적 관계에서와 이데올로기야에서 적합한 변경을 제약하는 하부구조로 되었던것이다。

이 모든것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세계사적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의 강유력한 무기로 되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천재적 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훌륭한 증명으로 되는것이다。

(「경제제문제」 一九四九년 二호)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연구자료 (二十二)

제一차 제국주의 전쟁 전야의 로동운동앙양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당

(一九一二년——一九一四년)

박 태 화

혁명공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스똘리삔반동기에(一九〇八년—一九一二년) 볼쉐위크들은 모든 조건이 이전보다 변하여졌음을 따라 자체의 전술을 변경시켰으며 따라서 짜리정체를 반대하는 직접 투쟁으로부터 이 투쟁의 회로에로 넘어갔다。스똘리삔반동기의 참담한 조건하에서 볼쉐위크들은 대중과의 련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합법적 사소한 가능일찌라도 모두다 리용하였으며 또한 혁명운동을 새로 앙진시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력량을 집결시키였다。

스똘리삔은 여러가지 전제정치적 정책을 진행하면서 몇해 어간에 「로씨야를 무덤과 같은 침묵」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몇해간 안정을 다고。그러면 내가 로씨야를 변혁시키겠다」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결코 혁명의 근원을 근절시키지 못하였으며「로씨야를 무덤과 같은 침묵」으로 만들지 못하였다。 그의 「개혁」, 례를 들면 그의 토지개혁은 농촌에서 계급투쟁을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층더 강화시켰다。 혁명운동에 대한 야수적 탄압은 전체인민들의 분노를 증장시키었다。「인민들에게 채쭉과 교수대 외에는 주지않으려한 그 정부」가 로씨야 인민의 「침묵」을 결코 오랫동안 유지할수 없었다。 一九一一년 이전의 몇해간에는 파업자의 수효가 五만 내지 六만명에 불과하였는데 一九一一년에는 그 수효가 벌써 十만명 이상을 넘어갔다。 그러나

혁명운동의 실제적 앙양기는 렌나의 로동자 총살 사건과 관련하여 대중적 정치파업이 폭발한 一九一二년 四월—五월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一九一二년 四월四일에 씨비리야의 렌나금광에서 파공하였을때에 짜리헌병대 사관의 명령에 의하여 二백七十명의 로동자를 사살하였으며 二백五十명의 로동자를 부상시키였다。

렌나강변 일대의 금광은 十九세기 상반기에 얻어내었다。 많은 삼림중에서 금을 탐구하며 채굴하는 일은 거대한 재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그때에 비로소 자본주의적 주식회사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큰것은 렌나금산업회사였는데 그는 二十세기에 와서 자기수중에 금채굴량의 기본적 부분을 집중시키었다。 수十리에 걸쳐 널리어있는 금광들에서 광주(鑛主)들은 중세기적 질서를 실시하였다。 금광관리인은 전체 금광구역에서 관(冠)없는 왕 노릇을 하고있었다。 로동자들을 회사에서 경영하는 상점에서 조악한 물품을 비싼가격으로 구매하게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에게는 거의나 직접 월급을 지불하여 주지않고 상점을 절쳐서 외상으로준 물품값을 제하고 지불하였다。 그외에 그들은 임금의 계산을 기만하였으며 상점 물품을 속이기도 하였으며 로동자들에게 썩은 파기와 곡물등을 공급하였다。 로동자들은 이 억압적 조건들을 반대하여 한두번만 떠든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금광산업자들에게 매수된 경찰대는 로동자들이 떠들때마다 혹독한 방법으로써 진압하였다。

렌나회사에서 로씨야의 독점적 자본의 형태를 볼수 있다。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그 주식회사가 전제정치기관과 련결을 가지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에 예속되어 있었다。 렌나회사의 수위에는 뻬쩨르부르그의 은행가 긴즈블그가 서있었다。 그는 국가은행으로부터 六백 내지 七백만 루블리의 대차를 받겠금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국가은행의 지배인의 한사람을 렌나주식회사 관리국의 한 성원으로 들어가 있게 하였다。 렌나회사에서 조그마한 재정상난관이 있더라도 짜리정권은 자기의 돈주머니를 풀어놓고 금산업가들의 손을 깊이 넣게하여 주었다。 그러나 짜리즘의 돈주머니는 무한정한것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형편에 있어서 재정상 난관에 처하게 되어 어떤 경우에는 제때에 방조를 주지못한때도 있었다。 이런때에는 짜리재정상은 하는수 없이 불란서、영국、자본가들에게 방조를 요구하였다。

영국은행가들은 이 시기에 아메리카、아프리카 금산출지를 소유하여 가지고 역시 씨비리야 금광에도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一九〇八년에 「렌나—꼴피르스」(렌나금광)란 주식회사가 근一천四백만루

블리의 자본으로써 조직되었다。 이 회사의 주권(株券)의 절반 이상이 이전 렌나회사의 주권과 교환되었다。 그리하여 로씨야인 주주들이 자기손에 「렌나—꼴피르스」의 약 절반을 가지었으며 영국자본가들은 렌나회사의 주권의 七〇%를 자기손에 가지었다。 이와같이 렌나 금산업에는 영국 로씨야자본가가 서로 엉키웠다。

영국자본가와 로씨야의 그의 동업자들은 가장 잔인하게 로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렌나금광에서 해마다 七백만루블리 이상의 거액의 폭리를 흡취하였다。 혹독한 착취와 학대와 참을수없는 모욕들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불피코 환기시키었다。

실지에 있어서 一九一二년 二월말에 안드레옙쓰크금광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 파업의 직접 발단은 一九一二년 二월二十八일에 상점에서 한 로동자에게 썩은 말고기를 준데있다。 불만을 가진 로동자들은 二월二十九일에 상점판매원을 축출하라는 요구조건을 제출하면서 파업을 단행하였다。 금광관리인은 렌나금광중앙관리국의 명령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하지않는 로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축출한다는것을 광포하였다。 그러나 파업을 일으킨 로동자들은 이 위협에 굴하지않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금광로동자들에게 향하여 파업을 원조하여달라고 호소하였다。 파업은 급속히 전체 렌나금광들에 전파되어 전반적인 파업으로 이행되었다。

렌나금광 로동자들의 성분은 유일하지 않았다。 그들중에는 정치범으로 류형당한자들과 이전에 파업운동에 참가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는 계급투쟁의 학교를 맛보지못한 파산당한 빈농민들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식성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렇지만 로동자들 중에는 볼쉐위크들이 있었다。 이 볼쉐위크들로서 운동은 지도되였다。 모든 금광들에서 파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다음에는 중앙파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파업위원회 위원들은 급속히 전체금광들과 련결을 맺어가지고 렌나회사에 제출할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거기에는 로동자들에 대한 대우개선、로동자들의 주택확장、녀자들에 대한 중로동 및 위험로동 금지、八시간로동제 실시、도급제에 대한 단가(單價) 인상등 기타가 기입되었다。 렌나금광 지배인들은 파업의 확장을 겁내어 로동자들의 요구조건들중에서 가장 중요하지않은 조건들만을 만족시켜주겠다고 언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꾼쓰크현 지사에게 급속히 무장부대를 보낼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자들 중에서 멘쉐위크들은 작업에 착수하면서 자본가들과 교섭을 계속하자고 선동하였다。 중앙파업위원회는 이 파업을 계속하겠는가 그렇지않으면 중지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로동자들에게 직접 해결시키기 위하여

군중대회를 소집하였다。이 군중대회에는 불쉐위크도 멘쉐위크도 출연하였다。군중대회가 끝난뒤에 비밀투표를 하게되었다。투표의 방식은 두개의 큰통을 놓고 그중 한통에는「일하러 나가겠소」라고 쓴 표를 붙이고 다른 한통에는「일하러 안나가겠소」려고 쓴 표를 붙이어놓고 로동자들이 자기가 찬성하는 통에 조약돌을 넣게하였다。투표의 결과를 본다면「일하러 나가겠소」라고 쓴 통에는 불과 十七개의 조약돌이 있었을뿐이고「일하러안나가겠소」라고쓴 통에는 조약돌이 가득 찼다。과업은 이전과같이 전구역에서 계속되었다。은행가들은 경찰부에 대하여 긴급히 가장 결정적 대책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一九一二년 三월三十일에 경찰관구 장관은 일꾸쓰크현 지사에게 파업위원회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四월三일에 경찰대장 쩨레쉰교는 병사부대를 거느리고와서 파업위원회위원들을 체포하여갔다。이것을 안 로동자들은 천여명이상이 수표를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청원서에는 서술하기를 자기들은 자기의 의사로써 파업을 단행한것이고 파업위원회의 충동에 의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지적하면서 체포한 파업위원회 위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이 청원서를 가지고 로동자들은 一九一二년四월四일에 나제르진쓰크금광에 있는 검사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평화적 교섭을 하려고 떠났다。빈손만 들고 평화적으로 교섭하려고 행진하는 이 로동자들을 짜리경찰은 잔인하게 총살하였다。이 결과에 五백명이상이 사상을 당하였다。부상당한 파업위원회위원 한사람은 간신히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여 진행된 이 사변에 대하여 뻬쩨르부르그에 전보를 보내었다。전국은 짜리전제제도의 잔악한 범죄에 대하여 알게되었으며 분노로써 충만되었다。

一九一二년 四월十一일에 국회의 사회민주당 프락치야가 이 만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또 이것을 반드시 심사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국회의 사회민주당 프락치야의 이 질문과 요구에 짜리의 내무상 마까로브는 무례하게「과거에도 그러하였거니와 또는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전국은 렌나총살에 대하여 분노와 격동으로써 대답하였다。불쉐위크의 호소에 의하여 로동자들은 대중적 파업、시위운동 및 대중적 집회등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전국에서 파업에 참가한 수는 단번에 三十만명 이상이 되었다。경찰자체가 자기의 비밀통신에서 지적하기를「렌나학살은 一九〇五년 一월九일에 동궁앞에서 로동자들을 학살한 그때를 회상한다고 많은자들이 말한다」고하였다。불쉐위크 신문「즈베즈다」는 이때에 파업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게재하였으며 또한 렌나강변에서 피해당한 로동자들을 방조하기 위한 의연금 모집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였다。이리하여「즈베즈다」는 파업을 계속하는 렌나로동자들의 투쟁력을 증장시켰다。

사회적 반향에 놀랜 짜리정부는 렌나금광에 특별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그 위원단의 한성원으로 변호사 께렌쓰끼가 있었다。위원단은 나제르진쓰크 금광에 와서 죽은 로동자들에 대하여 추도회를 조직하는것으로서 로동자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그들은 금광에 들어가서 로동자에게 말하기를 짜리에게 헌신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을 하라고 선전하였다。그러나 아직 체포되지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남아있는 불쉐위크들의 선전에 의하여 로동자들은 두주일동안만 일을 하고 렌나금광으로부터 떠나게되었다。광산을 떠나가는 로동자들의 앞길은 아주 암담한것이었다。길은 멀고 험악하였다。그려나 다수의 로동자들은 이 모든 난관들을 헤아리지 않고 떠났다。이와같이 렌나로동자들은 견고성과 자각성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렌나학살은 다른 편으로는 거대한 정치적 의의가 있다。이에 대하여 쓰딸린은「즈베즈다」에 다음과같이 서술하였다。

「렌나의 총소리는 침묵의 얼음을 깨뜨렸다。그리하여 움직이였다……

민중운동의 강물은 움직이였다。현 정치의 모든 해독、고통많은 로씨야가 앓고있던 모든것이 한개의 사실에、즉 렌나사변에 집결되었다。이런때문에 렌나의 총소리는 동맹파업과 시위운동의 신호로 되었던것이다。」

이 죄악적 사변에 대하여 레닌은 파리에서 알게되었다。一九一二년 四월二十七일에 레닌은 파리 불쉐위크지부회의에서 로씨야의 국내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이 보고의 속기는 보전되지않고 다만 간단한 필기가 보전되어있는바 그 필기는 레닌의 론문「혁명적 앙양」(레닌전집 제一五권 제五三三—五三八페지)과 내용상으로 동일하다。레닌은 이 론문에서 우선 파업의 성질을 분석하였다。만약 一九〇五년전에는 해마다 四만 내지 四만三천명이 파업을 일으키였다면 一九〇五년에는 파업운동이 갑자기 향상되어 파업자수가 二七五만이였고 一九〇六년에는 백만명、一九〇七년에는 七十五만명、一九〇八년에는 급속히 저락되어 파업자수가 十七만五천명、一九〇九년에는 다만 五만명이였다。그려나 一九一〇년말에 와서는 약간의 향상을 보게된다。一九一一년에는 로동자들이 점차적으로 진격으로 향하여 그해에는 파업자수가 十만명에까지 도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一九一二년에는 렌나학살의 응답으로 단번에 三十만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이와같은 자료들은 레닌으로 하여금 렌나사격은 전환적 계기라는 결론을、즉 절차적 랑적 축적이 새 질로、다시말하면 혁명적 기

운이 점차적으로 마지막 한해반 사이에 집중되어 혁명적 앙양으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을 짓게하였다。「이 앙양은 전적으로 눈(雪)이 골에 떨어진것과 같은것으로는 되지않는다。그는 벌써 오래전에 모든 로씨야의 생활조건으로써 준비되었다。……렌나학살은 혁명적 대중의 혁명적 기운이 혁명적 앙양으로 이행하는데 관한 신호로 되었다」라고 레닌은 말하였다。(레닌전집 제一五권 제五三三—五三四페지)

렌나학살로 말미암아 시작된 혁명적 앙양은 一九一二년 五월사변으로써 더욱 확장되었다。경찰들은 五월一일 메—데전에 어떠한 대중적 집회든지 금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잔혹한 대책을 취하였다。즉 뻬쩨르부르그에서 대중적 체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들이 뻬쩨르부르그 당위원회를 점령하였다。불쉐위크들이 아무 지도없이 남아있는것 같았으나 불쉐위크들은 여기에서 새 조직적 당구성의 의의를 확연히 보여주었다。즉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각기업소들에서 一九〇七년부터 一九一〇년까지에 세포들이 형성된것이다。뻬쩨르부르그당단체가 통지도없이 있었지마는 세포들이 각기업소들간에서 호상 련결을 지어가지고 五월一일 메—데를 맞이하기 위하여 대중적 집회의 준비、출판할 삐라를 작성하였다。메—데 명절 얼마전에 쓰딸린이 쓴 당중앙위원회의 선포문이 광포되었다。

쓰딸린은 이 시기전에 볼로그다 류형지에 있었다。프라그대표회의가 끝난 즉시로 볼로그다에 있는 쓰딸린에게로 세르고·오르드죠니끼제를 보냈다。세르고는 쓰딸린에게 프라그대표회의의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전달하였으며 또한 쓰딸린이 당중앙위원의 명의로 책임을 진데 대하여 전달하였다。一九一二년 二월말에 세르고와 함께 쓰딸린은 볼로그다 류형지로부터 도주하여 자깝까지야로왔다。바꾸、지프리쓰등지에서 프라그대표회의의 결정서와 기타 불쉐위크당의 지시를 출판할것을 준비하였다。자깝까지야를 다 순회한후 쓰딸린은 모쓰크바를 거쳐 뻬쩨르부르그로왔다。뻬쩨르부르그에서 쓰딸린은 거대한 조직적 사업을 진행하였다。우선 불쉐위크의 일간신문「쁘라우다」를 발간할 기초를 닦아놓았다。이 시기에 쓰딸린이 쓴 선포문이 광포되었다。이 선포문에 쓰딸린은 간단히 또 명백하게 메—데의 력사와 의의에 대하여 밝히었으며 특히 거기에 로씨야의 국내정세와 로씨야로동계급의 과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선포문은 프라그대표회의에서 접수한 표어를 위하여 투쟁하라는 호소로써 끝났다。그러나 그는 자기 사업의 결과를 직접 보지못하게 되었다。그것은 四월二十二일에 그는 또다시 체포되어 류형지로 가게된 까닭이다。

메—데파업에는 전국에서 四十만명 이상의 로동자가 참가하였다。파업은 五월一일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었다。만약 一九一二년의 파업들을 一九〇五년 혁명시기의 파업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一九一二년초의 운동범위는 一九〇五년 혁명의 첫주일보다 훨씬 더 광범하였다。이 파업들에서 볼쉐위크들은 일상적 생활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전반적 정치적 문제와 련결시키었다。파업이 렌나금광에서 로동자들을 학살한 대답으로 그들을 동정하기 위하여 일어났든지、폭동을 일으킨 병사들에 대한 재판을 반대하여 일어났든지 할것없이 이 모든 파업들은 짜리정체의 전복에로 부르는 혁명적 표어밑에서 진행되었다。「볼쉐위크당에서 지도하는 혁명적 파업운동은 로동계급이 부분적 요구나「개혁」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아니라 짜리제도밑에서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보였다。」(조선문「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모쓰크바판 제二七九페지) 앙양되는 파업운동은 자기발전 행정에 있어서 결국 폭동에로 이행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것이었다。그러나 그때에 볼쉐위크들이 즉시로 폭동을 외친것은 아니다。다만 파업운동에 더 광범한 대중을 끌어넣어 가지고 투쟁의 최고형태이며 결정적 형태인 무장폭동에로 나아가기 위한것이었다。

이 시기에 로씨야의 경제적 정세는 아래와같다。스똘리삔반동기에 침체상태에 처하여있던 경제상태가 一九一〇년부터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와 점차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아래와같은 도표가 이것을 확증하여준다。

년도수	석탄채굴 백만뿌드	주철생산 백만뿌드	철도부설 KM
一九一〇	一五二六·三	一八五·八	六六·五八一
一九一一	一七三四·七	二一九·四	六八·〇二七
一九一二	一九〇三·八	二五六·三	六八·九五四
一九一三	二二〇〇·一	二八三·〇	七〇·一五六

주식회사 자본은 一九〇五년에 비하여 근 五〇여 프로센트가 성장되었다。산업앙양은 스똘리삔개혁의 결과에 근본적으로 토호들의 저축과 또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계속적인 계급분렬과 밀접히 련결되었다。레닌이 일찌기 지적한 바와같이 농촌의 계급분렬은 시장의 확대를 환기지킨다。즉 토호들은 생산수단(쇠보습、탈곡기 등등)과 수용품을 많이 요구한다。동시에 파산당한 농민들은 할수없이 수용품을 시장에서 얻게되는것이다。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전 환경이 산업장성에 영

향을 준것이다。산업에 있어서 자본의 집중행정이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산업자본과 은행자본간의 련결행적이 또한 장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독점적 기업소들이 튼튼하여졌다。『쁘로사메트』(철생산품 생산트레스트) 같은 것은 자기 생산부문에 있어서 생산의 거의 전부를 틀어쥐었다。앙양의 시기는 외국자본의 많은 침투로써 특별하다。만약에 一九〇四년부터 一九〇九년까지의 五개년간에 외국인들이 로씨야산업에 六천만 금화루블리를 투자하였다면 다음 四개년간 즉 一九一〇년부터 一九一四년까지에는 외국자본이 근 一억五천만 금화루블리를 투자하였다。외국인들의 회사수의 장성을 본다면 一九一〇년전까지는 四十三개였다면 一九一二년에 와서는 七十四개로 증가되었다。외국자본중에는 영국、불란서、백이의 은행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산업은 비록 광범한 범위로 장성되었지만 국가의 락후성은 퇴치하지 못하였다。一九一二년에 로씨야에서의 전기에네르기야의 생산은 인구에 비하여 나눈다면 한사람에게 차례지는것이 북미합중국보다 十七배나 적었고 독일보다 五배나 적었다。주철생산은 북미합중국보다 十一배나 적었고 독일보다 八배나 적었으며 강철생산도 역시 이러한 형편이였다。이와같이 산업의 앙양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다 그와반대로 국가는 점점 외국자본의 예속에 얽매이게 되었다。

一九一二년에 시작된 로동운동은 농민대중을 각성시키었으며 또 투쟁에 끌어들이였다。지주토지를 댱치지않고 일정한 농민의 한부분을 즉 토호에게 토지로 보장시켜주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려던 스똘리삔의 시도는 파탄되었다。짜리와 지주를 반대하는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유일전선을 스똘리삔은 분쇄시키지 못하였다。토호와 빈농민간의 모순은 심각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주를 반대하는 전반적 농민투쟁도 강화되었다。스똘리삔 개혁의 파탄을 말하는 명백한 표현으로는 一九二〇년에 있은 기근이였다。三천만의 농민이 기아에서 헤매었으며 로동자들의 파업운동의 영향을 받아 많은 농촌에서 혁명적 투쟁이 전개되었다。이것이 곧 스똘리삔의 토지개혁의 결과였다。

혁명적 운동은 기본적으로 보아서 농민출신으로 구성된 군대내에서도 광범히 전개되었다。一九一二년 七월一일에 따쓰껜트부문에서 병사들이 무장적 폭동을 일으켰다。그리하여 이를 진압하려온 군대와 맹렬한 혈전이 진행되었다。이 결과에 폭동은 진압되었고 二백二十八명의 병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군사재판은 十五명의 병사를 사형에 처하였으며 백十二명의 병사를 고역형에 처하였고

거라는 다른 군사적 책벌을 주었다。一九一二년 七월에 세와스또뽈리에서 十六명의 해병들의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알려진 바와같이 그들은 군함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해군들의 혁명적 기운이 어떻게도 성숙되었든지 一九一二년 九월一일 세와스또뽈리는 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거기로 온 해군대신 그리고로위츠는 이에 대하여 출판물에 발표하기를 이는『외적 위험』으로 인하여 실시한것이 아니라『내적、지하적 위험』으로 인하여 실시한것이라고 하였다。

발찍함대에서는 거의 전부의 군함들에서 하급당단체 즉 세포가 조직되었다。一九一二년 七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六十七명의 해병들의 재판이 있었다。이 재판에서 해군들은 폭동을 일으켜 함대를 점령하고 뻬쩨르부르그에 진공하여 짜리를 전복할것을 예정하였던것이 판명되었다。八월一일에는 크론슈따트에서도 역시 전시상태가 선포되었다。十월에 세와스또뽈리에서 또다시 백四十二명의 해군들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은 극비밀리에 진행되었다。그러나『쁘라우다』와『사회민주주의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게재하여 폭로시키었으며 로동자들을 항의에로 호소하였다。이에 대한 첫 응답으로서 十월二十七일에 쁘찔롭공장 八천명의 로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여 그 재판에서 사형언도받은 해군들을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이 사변은 군사적 폭동이 로동자들의 혁명적 운동과 련결될수있는 위험을 지배계급에게 보이어 주었다。

이러한 새 혁명적 앙양의 정세하에서 一九一二년 가을에 제四차국회선거가 진행되었다。볼쉐위크들에게 있어서는 제三차국회와같이 제四차국회선거가 큰 의의가 있었다。국회는 당이 반드시 리용하여야 할 합법적 형식의 하나이었으며 그것을 경유하여 대중들에게 당이 살아있으며 시작되는 혁명운동의 앙양을 령도하기에 준비되어 있다는것을 선언하여야 할것이었다。짜리정부는 모든 정치적 투쟁문제들을 국회선거에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관심을 국회선거에 돌리려고 하였다。제四차국회선거는 이전 국회선거와같이 반렬(班列)에 의하여 즉 지주는 지주꾸리야에서、자본가(대、중부르죠아)는 도시꾸리야의 첫등급에서、소부르죠아는 도시꾸리야의 두번째 등급에서、로동자는 따로 로동꾸리야에서、농민은 농촌꾸리야에서 각각 진행되었다。선거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간접선거였다。농민꾸리야에서의 선거는 四단계、로동자꾸리야에서의 선거는 三단계였다。뻬쩨르부르그、모쓰크바、끄쓰트로마、울라지미르、하리꼽、예까쩨리노슬라브등 구베르니야(縣)에서는 로동자대의원을 직접 선거할 권리를 주었다。짜리청부는 이러한 복잡한 또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선거제로써 근로대중의 선거권리를 최소한도로까지 축소시키었다。이것으로써도 불만족하여 짜리정부는 소위「해석제」라는것으로써 어떻게하든지 인민대중의 선거권리를 더 축소시키었다。 불쉐위크당은 레닌과 쓰딸린의 지도하에서 제四차국회선거준비에 착수하였다。一九一二년 九월 一일 쓰딸린은 류형지에서 다시 탈출하여 뻬쩨르부르그로 와서 선거깜빠니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이 선거 깜빠니야의 중앙에는「쁘라우다」신문이 서있었다。로동자들의 혁명에 대한 관심、로동자들의 회의에서 접수된 결정서들이 매일같이「쁘라우다」신문 편집부에 들어왔다。「쁘라우다」에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성과 짜리정부가 어떻게 교묘한 수단으로써 로동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하는가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매일 게재되었다。 당사는 「쁘라우다」의 역활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쁘라우다」는 제四차국회의 선거를 앞에 두고 선진로동자를 규합하였다。그는 자유주의 부르죠아지와의 협조를 찬성하며「스똘리삔 로동당」을 찬성하는자인 멘쉐위크의 배반적 견지를 폭로하였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모쓰크바판 제二八三페지)

쓰딸린은 당단체들앞에 로동꾸리야에서 볼쉐위크들이 피선될 과업을 내세웠다。선거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층 즉 첫계단에 달리었다。뻬쩨르부르그 전체 구베르니야에서의 전권위원의 수는 八十명이었다。볼쉐위크들은 지방사람들을 자세하게 연구한 후에 이 八十명을 볼쉐위크당에 가까운 사람들로써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람들을 찬성하여 뻬쩨르부르그 로동자들은 거수하라고 호소하였다。

十월五일은 반드시 전권위원회가 소집될것이었다。그런데 十월四일 짜리정부는 불쉐위크적 전권위원을 소위「해석제」로써 八十명중에서 二十二명을 삭제하였다。(삭제당한 二十二명중에는 그전에 혁명사업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는 공민증의 기한이 넘은 사람들、기타 사소한 등등의 일이 있었으므로 짜리정부는 이들을 소위「해석제」로써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짜리정부는 이렇게 八十명중에서 二十二명을「해석」하고서 그와 동시에 전권위원회를 연기시켜주지않고 지정된 十월五일에 그대로 소집하려하였다。그러므로 로동자들은 전권위원권을 박탈당한 二十二명 대신에 다른 전권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十월四일 저녁에 이 사변에 관하여 쓰딸린은 뻬쩨르부르그 당위원회를 소집하여「해석제」를 반대하여 파업을 조직할것과 명부에 남아있는 전권위원들에게 十월五일 회의에 참가하지말라는 의견을 제의하였다。十월五일 볼쉐위크당의 호소에 의하여

뻬쩨뿌찔롭공장 로동자들、네와조선소 로동자들、기타 一만四천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그뒤를 따라「해석제」를 해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다른도시 로동자들도 파업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위력한 항의적 파업에 겁낸 짜리정부는 할수없이「해석제」를 취소하고 박탈한 二十二명의 전권위원의 권리를 회복시키었다。十월十七일에 전권위원회의가 새로 소집되었다。거기에서 쓰딸린이 작성한 뻬쩨르부르그 로동자들이 자기 로동자대의원에게 주는「의탁서」가 랑독되었다。그「의탁서」에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로씨야가 一九〇五년보다 필시 더 심오(深奧)한 래두의 대중적 운동의 전지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바이다。……이 운동의 령수는 五년도와 동일히 로씨야사회의 선진계급인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일 것이다。그리고 그들의 동맹자는 로씨야해방에 절실히 착심하고있는 천신만고(千辛萬苦)에 시달린 오직 농민만이 될수 있는것이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모쓰크바판 제二九〇페지)

「의탁서」는 인민의 장래진출은 응당 짜리정부를 반대하는것과 짜리정체와 협조를 구하는 자유주의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두 전선의 투쟁형태를 취하여야 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레닌은 혁명투쟁에로 로동자들을 부르짖는「의탁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그리하여 로동자들은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결의문으로써 향응하였다。

十一월十五일 제四차국회가 소집되었다。볼쉐위크들은 로동자꾸리야의 전체 六개 구베르니야에서 六명의 볼쉐위크대의원을 피선시킴에 성공하였다。즉 바다예브、뻬뜨롭쓰끼、무라노브、사모일로브、사고브 및 마닐롭쓰끼(나중에 선동음모가로 판명된)들이었다。멘쉐위크들은 七명이였다。그러나 그들은 로동자앞으로써 피선된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도시꾸리야의 제二등급에서 피선되었다。회의첫날에 의장으로는 로드쟝꼬가 피선되었다。그는 전적으로 짜리정부와 협력할데 대한 연설을 하였다。그의 연설은 국회내에서 좌익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만장의 박수를 일으키었다。인민대중들은 十一월十五일 볼쉐위크들의 지도하에서 시위운동을 조직하였다。경찰들은 이 시위운동을 탄압하였다。볼쉐위크국회대의원들은 전제제도를 폭로하는 혁명적 연설을 진술하면서 이 로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대하여 짜리정부에 항의를 제출하였다。 볼쉐위크대의원들은 농민들의 요구를 지시하면서 토지문제의 해결을 내세웠으며 로동문제에 관하여 八시간로동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다。볼쉐위크국회대의원들의 이 모든 요구는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선동적 의의가 있었마。불쉐위크대의원들은 전로씨야의 각지대를 순회하면서 불쉐위크당단체들을 더 공고히 만들었다。

또한 불쉐위크대의원들은 합법적 사업을 비합법적 사업과 모범적으로 련결시키었다。불쉐위크대의원들의 사업은 중앙위원회가 지도하였다。레닌은 지어 불쉐위크국회대의원들이 국회에서 연설할 초안까지 작성하였다。 불쉐위크국회대의원의 사업경험과 또 불쉐위크당의 일년간 사업경험의 총화를 一九一二년 十二월二十八일에 크라쿄브에서 소집된 특별한 중앙위원회에서 하였다。혁명적 앙양 파업 및 당의 파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레닌이 보고하였다。레닌는 또한 청산파에 관한 태도에 대하여서도 보고하였다。이 회의에서 민족적 단체들에 대한 문제 (분드、파란、라트비야사회민주단체들에 관한 문제) 가 토의되였는데 민족문제가 특히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서게 되었다。왜 그러냐하면 대로씨야 민족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을 날카롭게 전개시키었다。

이에 관한 실례로는 유태인 베이리쓰 사건을 볼수 있다。베이리쓰는 끼예브도시의 벽돌공장 판매원이었다。짜리정부가 조직한 도당들은 유태인 학살을 조직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어린아이를 죽여 베이리쓰의 집울안에 버리고서는 베이리쓰가 종교의 관습에 의하여 어린아이의 피를 빼먹었다는 허무한 죄명을 씌워 베이리쓰를 검사국에 넘기였다。베이리쓰는 이를 부인하였다。반동신문들은 베이리쓰를 악독하게 고문하여 그를 시인케 하려고 하였다。

이 심리는 두해반이나 진행되어 一九一三년에 비로소 재판이 개시되었다。 짜리정부는 갖은 음흉한 수단을 다하였으나 이 재판에서 베이리쓰가 죽이지않은것이 증명되었다。그러나 재판은 베이리쓰가 죽이지는 않았으나 다른 유태인이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죽인것이라고 하였다。그리하여 이것으로써 앞으로 유태인 학살을 조직할 근거를 만들었다。

짜리정부가 로씨야민족이 아닌 민족들에 대한 심혹한 정책은 비 로씨야민족들의 대로씨야민족을 반대하는 맹렬한 파도를 일으키었다。이리하여 민족문제에 대하여 분드、파란 사회민주단체 및 기타 소부르죠아적 단체들이 옳지못한 견지에서 자기 력량을 계급적으로 집결시킬 대신에 민족별로 분렬시켜 대로씨야인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견지에 서있게하였다。 이러므로 크라쿄브회의는 민족적 단체들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결정서에 지적하기를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은 대로씨야 민족주의 반동에 결정적 타격을 줄것이며 이와동시에 지방 민족주의의 견해와 투쟁을 전개할것과 사회민주주의 단체들이 유일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

속될것을 지적하였다。 크라쿄브회의의 결정서를 비밀히 출판하여 전파시키었으며 불쉐위크국회대의원들이 각지방으로 다니면서 크라쿄브회의의 보고를 하였다。쓰딸린은 레닌의 의견에 의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이때에 불쉐위크당의 민족문제에 대한 리론을 천재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민족문제에 관한 온갖 기회주의적 견지에 무자비한 비판을 나리운 저명한 자기저서 「맑쓰주의와 민족문제」를 저술하였다。「뿐만아니라 멘쉐위크는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파산자가 되었다。 로씨야의 변강지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은 민족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강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멘쉐위크는 누구라도 만족시킬수없는 분드의 「문화적 자치」를 제외한다면 다른 아무런 강령도 가지지 못하였다。불쉐위크만이 민족문제에 대해서 맑쓰주의적 강령을 가지었는바 강령은 「맑쓰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쓰딸린동지의 론문과 「민족자결권에 관하여」와 「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 각서」라는 레닌의 론문가운데 론술되었다。」 (당사―조선판 二七二폐지)

一九一二년에 시작된 혁명운동의 앙양은 十三년에 와서 계속되었다。 짜리정부는 로동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회를 경유하여 로동자들의 브험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오랫동안 지체된 이 법령은 접수되였으나 로동자들에게는 하등의 실제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이 법령에 의하면 보험은 무직업자들에게는 아무관계가 없고 다만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만 관한것이였다。그것조차 치료비는 로동자들의 월급으로써 지불되었다。 공장주들은 다만 로동자가 지불한 총액의 三분지二만을 지불하였다。로동자들이 작업행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게되는 때에는 아주 어려운 수속을 거쳐서야 겨우 몇푼의 돈을 받을수 있었다。 그 실례로서는 로동자 메이크쉰의 사실을 들수가있다。一九〇八년에 메이크쉰이라는 로동자는 작업행정에서 눈을 상실하여 병신이 되었다。보험은 메이크쉰에게 이에 대한 수당으로써 매월 二원三十六전을 지불할것을 규정하였다。로동자들은 이 수당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위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 九十二원을 메이크쉰이 지불할것을 판결하였다。 四년후에 로동자들의 요청서에 결정하기를 메이크쉰에게 매월분 수당 二원三十六전의 三十六개월분으로써 八十四원九十六전을 지불하고 그에게로부터 소송비용으로써 九十二원을 받게하였다。그리하여 결국은 메이크쉰이 七원四전을 도리어 자기돈으로써 저출하게 되였다。

「쁘라우다」를 경유하여 불쉐위크들은 이 새로운 기만을 폭로시키었다。불쉐위크들은 혁명이 없

이는 전제제도하에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수 없다는것을 선전하였다。

一九一三년에 파업운동은 중앙아세아의 많은 도시들에 전파되였으며 깝까즈、바꾸、그로스니에도 있었다。一九一三년 일년동안에 一백二十七만二천명의 로동자들이 정치적 파업에 참가하였다。

혁명운동의 앙양의 이 총결을 一九一三년九월二十二일 뽀로니노에서 소집된 중앙당위원회(당일군들을 청한 회의)새회의에서 하였다。

뽀로니노회의는 一九一四년 八월에 가서 당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그러나 제一차제국주의전쟁이 개시되였음으로 인하여 소집되지못하였다。) 파업운동에 관한 회의의 결정서에는 파업운동이 전로씨야적 정치적 파업으로 당도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이 회의에서도 역시 민족문제에 관하여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다。이 뽀로니노 회의의 결정서들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여러가지 수단으로써 알려주었다。

一九一四년을 당하여 동맹파업들은 새 위세(威勢)를 떨치고 전개되였다。一월九일에는 二十五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十四만명이 뻬쩨르부르그에서 파업하였다。五월一일에는 五〇만명이상이 파업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二十五만명 이상! 뻬쩨르부르그에서 파업하였다。五월경에 바꾸에서 원유산업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으며 六월二十일에는 二만명의 로동자가 참가한 시위운동이 있었다。경찰은 바꾸로동자들을 반대하여 패악(悖惡)한 탄압책을 썼다。이에 대하여 항의를 표하고 바꾸 로동자들에게 련대감을 표하기 위하여 모쓰크바에서 파업이 시작되어 그것이 다른 지방에 퍼져나갔다。

모든 공장이 소란에 휩싸였으며 처처에서 연설회와 시위운동이 거행되였다。사태는 방색(防塞)을 쌓으려는 시도에 까지 이르렀다。방색을 바꾸와 그로스니에서도 역시 쌓았다。여러곳에서 경찰이 로동자를 사격하였다。운동을 진압함에 정부는「비상」수단을 취하였으며 수도는 전진(戰陣)으로 화하였으며「쁘라우다」는 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국제적 의의를 가진 새 동력—제국주의전쟁—이 무대에 출현되어 그것이 사변의 행정을 기필코 변하게하지 않을수 없었다。마침 七월 사변이 있을때에 불란서 대통령 포안카레는 짜리와 더부러 직면한 전쟁의 개시문제를 담판하려고 뻬쩨르부르그로 왔다。며칠후에 독일은 로씨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짜리정부는 볼쉐위크 조직체를 소멸시키며 또는 로동운동을 진압함에 전쟁을 리용하였다。혁명의 앙양은 세계전쟁에 의하여 중단되였나니 거기에서 짜리정부는 림시적으로 혁명으로부터 구제될 출구를 찾았던것이다。

당 사 업 경 험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내 우리당단체의 사업

김일성종합대학당부 위원장 김 철

우리 공화국의 유일한 민족적 최고학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오늘 조국이 처한 첨예한 정치정세를 옳게 인식하고 어느때보다도 더욱 긴장하여 정치사상적 수준 제고와 조국의 민주건설을 지도할수있는 민족적 장래 간부로 되기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학습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내 우리당단체들의 옳은 협조와 매개당원들의 주도적인 역활에 의하여 전체 학생들은 오늘 그 정치교양수준에 있어서나 학업실력정도에 있어서나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되였다。대학 교육사업이 발전되는 행정에 있어서 우리당단체들은 자체사업을 조직함에 몇개의 계단적 사업과정을 통하여 조직하지않으면 아니되였다。

그 첫째 계단에 있어서 제기되였던 사업은 즉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일반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하는 시기였다。과거 일제의 억압하에서 수학의 길을 박탈 당하였던 수많은 근로자의 자녀들과 또는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제 노예교육의 잔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종합대학에서 선진적인 새 학문들을 배움에 객관적 주관적 많은 곤난성들이 있었다。이리하여 이들의 지식수준과 리해정도는 각양으로 균일치 못하였으므로 당면한 대학의 일정한 강령을 실시하기에는 이들을 시급히 일반적인 학업수준에 올려 놓기위한 문제가 가장 중요히 제기되였다。이러한 시기를 우리당세포들은 옳게 포착하고「한사람의 락오자도 내지말자」는 구호밑에 대학내 사회단체들을 도와 군중적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당 열성적 핵심분자들로 지도책임을 지우는 계층별 학습호조망들을 광범히 조직하여 학업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성의있는 방조를 주며 교수세포들과의 긴밀한 련계로서 자기반 락후생 퇴치에 주력하는 사업들을 활발히 조직하였다。이 호조망을 통하여 경상적으로 학습규률을 강화시키며 특별한 시간조직으로서 교수들이 계통적으로 친밀하게 지도하여 줌으로부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각적 학습의욕을 조성하여 주는데 적지않은 성과들을 가져왔다。또한 이러한 실제사업과정에서 우리당단체들은 광범한 군중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그들에게 우리당의 영향을 침투시키며 우리당원들의 헌신성과 모범성을 보여주는동시에 시기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되는 모든 깜빠니야사업에도 그들을 열성적으로 동원시키며 전체인민들의 지성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학 건설사업에도 적극 참가하는등 학구생활과 사회사업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그들을 실 생활에서 단련되게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이렇게 첫 계단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쟁취한 성과는 첫째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경상적으로 앙양된것이며 둘째로는 진도상 비교적 토대가 박약하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성을 가지게되는 동시에 그들이 자체 학습에 대한 장래전망을 가지게되였고 셋째로 개인리기주의와 퇴폐적이였던 일제잔여의 낡은 학습태도를 일소하고 진실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 헌신하리라는 애국심과 호상방조하는 동지적인 우애심들을 분발하는데 적지않은 성과들을 가져왔던것이다。

또한 이 첫 계단사업과정에서 우리당 각급지도기관사업결산 및 지도기관 선거사업을 맞이하였던 우리종합대학내 당단체들에서는 한층더 고상한 당적책임감 밑에 자체 내부사업을 심각히 분석비판하고 세포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학사업을 방조하는데 새로운 개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던것이다。

대학 당부위원회는 이미 자체 력량이 기본적으로 장성되었을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구적 의욕이 고조로 앙양된 조건하에 지금까지의 학습호조망 방식은 벌써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수없는 지도방식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단계의 사업방향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전체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여주는 문제였다。이 사업의 급속한 개진을 가져오기위하여서는 우선 우리당단체들의 내부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학교행정체와 학교내 사회단체들과의 련계를 한층더 밀접히 가지는 동시에 우리당분세포들의 분포를 재검토하고 전체 반별로 다시

조직을 재편한후 이에 유능한 동무들이 지도기관에 피선되어 학생세포、교수세포、일반직원세포들과의 유기적인 긴밀한 련계를 튼튼히 하는 제반조직적 대책들을 수립할수있었다。전체 성의있는 교수들의 지도적 열의와 고조로 앙양된 학생들의 학습열을 옳게 포착하여 국가와 대학이 요구하는 학문적 수준에 도달하게하는것은 우리학교내 당단체들의 당면한 과업중 하나이다。이에 학생세포들에서는 당세포핵심—열성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이미 첫째 계단사업에서 얻은 기본성과들을 한층더 발전시키며 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기본방향에서 우리 종합대학 학생들을 공화국북반부 학생의 모범이 되게하기 위하여 대학내 당단체들과 전체학생들은 한결같이 결속하게되었다。

우선 학생세포들에서는 민청을 옳게 도와주며 매개 당원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전체 학생들과함께 학습규률을 엄수하며 자체학습의 계획적 실행과 집체적인 쎄미날 및 각종 써클등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또한 민주주의적 애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정치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학생들에게 있을수있는 결석、지각、조퇴등 일체 태만적 경향들을 반대하며 이미 습득한 과학을 자기의 것으로 철저히 소유하며 사상화하는데 조직적 지도사업을 강화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이와동시에 학습을 실지 실력배양의 방향에서 경상적으로 조직하지않고 소위 「시험공부」라고 하는 돌격식 학습태도들에 대하여서는 군중적으로 배격하며 창발력을 마비시키는 기계적 암송식 학습방법도 가장 유해한것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배격하고있다。또한 학업의 실력배양은 반드시 그의 정치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와 또한 학생들을 국제주의적 사상으로 교양시키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는것으로 되어야할것이다。그가 아무리 학과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치수준 즉 국제국내의 정치적 정세를 옳게 분석못하며 반동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될려는 불타는 적개심이 결핍되였다면 그자 진실로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가 되기에 준비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난하다。

그러므로 우리당세포들은 이러한 부면에 예민한 주의를 돌리어 학교교육과 정치교양의 일치성을 보장하는데 실로 선진국가의 대학수준에 우리대학의 수준을 이끌어 올리려고 백방의 노력을 아끼지않고있다。이와같이 자체의 실력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세계적 높은 수준에까지 자기들의 실력을 제고시키기에 노력하고있는것이다。이러한 학생들의 자각적인 학습열을 또한 우리당 교수분세포들에서도 동일한 립장에서 옳게 조직하여 그

들에게 교수제강을 정확히 실시하며 교수의 질적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자체연구사업들을 강화하는 온갖 조직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대학 학생들을 국가와 인민이 요구하는 새형태의 인재로 준비되게 하기위하여 교육을 지도하는 사업은 우리당 교수세포들의 당면 중요과업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수세포들이 대학교육사업을 방조하는데 심중한 주의와 노력을 집중하고있다。

교수세포는 교수사업에 있어서 당원교수들의 핵심적 역할을 높이며 매개교수들의 책임감을 엄격히 수립하고 교수진도표에 예견된 프로그람을 정확히 실시하며 결강을 근절하는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높은 실력배양에 방법적 지도를 강력히 진행할것을 결정 실시하고 있다。특히 매학급에 학급반 주임교수를 배치하고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학생들과 토의하며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세밀하게 성의있게 도와주고 있다。또 경리부문 및 일반직원들의 세포들에서는 대학교육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함에 있어서 교수사업과 연구사업 및 학생들에 대한 학습생활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반 물질적 조건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당적 책임감을 매개당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교수 및 학생세포들에서 학습의 정적제고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업과 호응하여 각종 출판물을 광범히 리용하도록 하는 사업과 모든 기구시설 및 숙사와 식사조건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밑에 이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학교사업을 헌신적으로 방조하고있다。

대학당부위원회는 이상과같은 사업의 조직적 지도의 결과 그의 초보적인 성과로써 지난 一학기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전학년도말 성적 四계단 이상 二五%에 비하여 三三%의 급진적 장성을 보았으며 진급률에 있어서도 八五%로부터 九九%로 향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대학당부 제五차위원회에서와 당부상무위원회에서 자기사업을 심중히 검토한 결과 사업상 적지않은 결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그것은 첫째로 교수사업과 정치교양사업의 일치성이 부족한것이였다。즉 어떤 분야의 학문을 물론하고 그의 계급성을 고수하며 일체 반동적 학설들을 준렬히 비판하여 학생들에게 배워줌으로써 그들이 진실로 생동하는 과학의 소유자로 될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적 실력은 조국 건설의 유력한 동력으로 될것

이며 학문을 통하여 상시로 배양된 그들의 계급성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반동을 타승하는 예리한 무기로 되게할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 비로소 학교 교육과 정치교양의 일치성은 보장될것이다。

그런데 일부 우리교수들은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약하게 진행하였으며 둘째로는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발전할수있도록하는 과외사업 지도가 미약하였으며 다만 학생들의 본신학습에만 편중하는 경향들을 보게되였다。

사회의 저명한 학자 리론가 및 예술인들을 학생교육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 학생들에게 학문적 실력을 창발적으로 발전시킬수있는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셋째로 학생들이 자기의 학과 학습에만 편중하고 자체의 정치사상교양에 노력을 적게 돌리고 있는 형편들을 보게되었으며 다만 「공부만하면 된다」는 편중된 결함들을 볼수있었다。이상과같은 결함들에 대하여 우리당단체들은 무자비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초위에서 상급당의 올바른 지도밑에 이 부족점들을 급속히 제때에 시정하고있다。이리하여 오늘 종합대학의 교육부문사업은 우리당단체들의 성의있는 방조로써 강좌사업은 그의 조직적 력량을 강화하여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오고있으며 학생들의 고도로 앙양된 학습열은 자체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들을 정확히 수립하고 높은 정과의 쟁취를 목표로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전개하고있다。

국제보도

서반아에서의 빨찌산 운동

금년 六월초에 프랑코 장군은 바르세로나를 방문하였다. 카타로니야의 수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들 영접하였던것이다. 며칠동안에 이 도시에서는 一五건 이상의 폭발사건이 조직되였던바 그중에서 여덟건은 프랑코가 머물러있었던 궁전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한건은 프랑코가 참석하였던 례배당에서 리배식(禮拜式) 도중에 발생하였던것이다. 이러한 폭발 사건은 많은 다른사건들과 함께 평화애호적인 서반아인민들은 자기들이 증오하는 팟쇼독재자들을 반대하여 확고불패의 투쟁을 의연히 계속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세계여론은 오늘날까지 서반아 애국주의자들의 투쟁에 관하여 잘 보도하지않았었다. 이는 서반아에서의 항쟁운동을 둘러싸고 커다란 침묵의 음모가 있다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는것이다. 프랑코도배들은 데르와 자기들의 완전한 관리하에 있는 출판물기관 및 라디오를 리용하여 위부에 대하여 서반아인민들의 투쟁을 감추고 지방과 도시를 유리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빨찌산이 자기들의 선전삐라에 쓰고있는바와같이 『파시스트들은 빨찌산의 행동에 관한 보도가 빨찌산 행동지구 밖에 나오지 않는것을 원하고있다』

런던 파리 및 워싱톤의 반동적 출판물들도 자기들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위한 서반아 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출판물들은 서반아에서는 항쟁부대 소위 프랑코도배의 표현을 빌리면 『비적』 정당이 철저히 청산되어 마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고있는듯한 프랑코도배의 선언서를 그대로 선전하고 있는것이다. 우익 자회주의 자들과 망명분자들은 프랑코를 방조하고있다. 마드릿트정부와 약간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비밀 기금층에서 융자를 받고있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신문은 서반아 인민들의 투쟁의 실정에 대하여서는 굳은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들은 이에 관하여 침묵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할때에는 사건의 진상을 의곡하려고 애쓴다. 그러고 투쟁은 프랑코정체에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기관이 있는 조건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짖거리면서 인민들에게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고있다.

서반아 애국주의자들의 투쟁을 둘러싼 침묵의 음모의 목적은 아주 명백한것이다. 그 목적은 서반아의 실정에 대한 세계 여론을 기만하고 공화당 진영의 배반자들의 [illegible]적인 [illegible]활동을 촉진시키고 서반아인민들의 약간의 계층에 대하여 퇴폐적인 영향을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국제반동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반아의 항쟁세력은 날로 확대되고 공고화되고 있다. 서반아의 [illegible] 주(州)가 빨찌산해방투쟁의 불길속에 있다.

빨찌산운동의 력량에 관하여서는 빨찌산과의 투쟁을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민위군(民衛軍)이 [illegible]하고있다는 사실자체가 증명하고있는것이다. 특히 가리시야, 아라곤, 신(新)카스치리야, 카타로니야, 안다루지야, 애스트라마두라 및 나비라의 제주(諸州)에서의 빨찌산 운동은 대규모적이다. 一九四七년에 피사로장군의 지휘밑에 프랑코도배들이 수행하였던 서반아의 동부지구인 레반트의 빨찌산에 대한 총공격은 완전한 패배로써 끝났다. 대포 및 비행기를 포함한 현대식 무기로써 무장된 二만五천명의 악당(惡黨)들은 비교적 잘 무장되지못한 빨찌산을 타승할수 없었다. 이때문에 레반트의 빨찌산만하여도 一九四七년도에 프랑코도배들을 반대하는 一七○회의 성과적 전투를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최근에만도 서반아빨찌산들은 八十회의 전투에서 二七○명의 프랑코의 병사 및 장교들을 소탕하였고 군사적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一九四八년 초기에는 프랑코도배들이 류혈적 강제 징발(徵發)로써 농민에게서 몰수한 재물들을 실은 一六六개의 화차와 二六개의 기관차를 파괴하였다.

빨찌산은 서반아 인민들에게 격문을 발송하였다. 이 격문에서 『우리들은 서반아가 완전히 해방되는것을 보기전에는 무기를 놓지않을것을 약속한다. 우리들은 또 우리들중의 한명이라도 무기를 쥐고있는 동안에는 프랑코가 평안하지못할것을 단언한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희생과 서반아인민들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동정과 신망은 만일 필요만하다면 아직 十년이나 더 싸울수 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산중에서 싸우는것을 멈추지않는다. 우리들은 자신을 기만하지않을것이며 자기들앞에 나선 모든 과업을 해결한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하여야할 과업은 공화국을 부흥시키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다시 찾는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서반아의 빨찌산들이 자기들의 서약에 충실하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서반아 공화당원들의 지하방송국이 보도한바와 같이 그들은 피의 프랑코정체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항쟁 투사들은 작년도에 그시우다드·레알부근에 있는 민위군(民衛軍)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는바 민위군은 조급히 퇴각하지않을수 없었다. 빨찌산들은 다음에 민위군에게 보내는 무기를 실은 렬차의 전복을 조직하였는바 이에있어 무기는 소탕되었고 엘·페르로리와 베딴소스 간의 렬차의 운행은 四八시간이나 중단되였다. 빨찌산들은 아스투리야, 마라가, 테루엘주(州)와 그레나드 구(區)에서 형리들에게 대타격을 주었다. 빨찌산과 민위군(民衛軍)간의 부분적 충돌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경찰을 강화하기위한 군사부대를 파견하게 하였다.

빨찌산들은 코르도비·오비에도 및 시에라·네바다구(區)에서 민위군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 렐메즈촌(코르도비 부근)에서 빨찌산부대는 프랑코도배인 후안·고메스의 령지(領地)를 파괴하였고 인민재판에 의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바렌시야에서는 한 빨찌산부대가 선전 목적을 가진 용감한 작전을 성과있게 수행하였다. 빨찌산들은 다이라촌(村)을 점령하고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항쟁운동의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아이라주민들은 빨찌산의 연설을 듣고 그들에게 다량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금년 三월에 빨찌산들은 민위군 부

대들과의 많은 대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빨찌산들은 민위군을 맹렬히 추격하였다。

최근에 있어서 서반아 빨찌산들은 공산당의 지시에 의기하여 농촌주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선전사업에 주요한 주의를 집중하였다。 현재 각 빨찌산지휘관들은 농민의 지도자이며 그들의 정치적 교사이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전원이며 농민들의 리익을 쟁취하는 투쟁을 위한 농민대중의 조직자로 되고있다。

프랑코 정체에 대한 항쟁운동의 선봉대는 광범한 서반아의 근로대중이 그들에게 표시하는 정신적―정치적 지지로부터 힘을 얻고있는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표시할만한것은 二년동안에 서반아의 제 지방에 있어서 二백건 이상의 동맹파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동맹파업에는 약四〇만명의 공업로동자들이 참가하였던것이다。

농민도 프랑코정체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식량공출 납세 및 기타를 태공한다。 뿐만아니라 농민들은 빨찌산에게 직접적 방조를 주고있으며 그들에게 식료품 및 의복을 공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특히 주목할것은 이전부터 서반아 반동의 가장 기대할만한 근거지로 인정되어있던 지방들이 빨찌산운동의 주요한 전략적 기지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민들이 프랑코정권의 폭력과 불공정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우수한 옹호자들을 빨찌산속에서 보고있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서반아의 빨찌산과 농민간의 동맹의 견고성에 관하여서는 프랑코정권이 一년동안에 一천五백명의 주민이 항쟁투사들 방조하였다는 죄로 탄압되었다는것으로도 판단할수 있는것이다。 그 실례로는 서반아의 동부지구의 농촌을 들수있다。 례컨대 세르피에르(테루앨)와 같은 이러한 농촌의 약간의 주민들은 전체금을 二배나 증납하는 집단적 처벌을 받았다。 베나헤베르(바렌시야)에 있었던바와 같이 다른 농촌들에서도 백명 또는 그 이상의 남녀가 검거되었고 이에 있어 一〇명중의 한명은 야수적인 처형을 받았다。 각지방에서는 빨찌산에게 방조를 준다는 혐의로 농민들이 강제로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고있다。 그리하여 농촌은 무서운 곤궁에 빠지고 있다。

혼타네베、아타아가、카스텔오레 및 기다 주민들의 운명은 이러하다。 시민들은 프랑코정권들의 류혈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빨찌산을 도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방조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고있다。 주민들은 빨찌산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상자 및 기타를 숨기어주고 또 치료하여 주고있다。 주민들은 프랑코의 탐관오리들의 폭행을 참지못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빨찌산부대의 대렬을 보충하고있다。 이에 관련하여 현 지자 메두앨야는 심지어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나는 빨찌산을 고립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전주민을 주(州)로부터 이주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서반아의 항쟁운동은 서반아 공산당이 지도하고있다。 서반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자기들의 대표와 출판물 기관지를 통하여 빨찌산 그루빠에 대한 상시적 련결을 지지하고있다。 공산당은 빨찌산에게 매일같이 지시를 내리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고있고 빨찌산들은 이 지도대로 따라가고있다。 이리하여 금년 五월二十六일부의 서반아 공산당 중앙기관지

『둔도·오브레로』에는 대반르 및 다라곤 빨찌산의 서한이 발표되었었다。 동기관지가 빨찌산 운동에 대하여 일상적 정치적 방조와 지도를 준데 대하여 자의를 표하였고 서반아 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투쟁을 계속하여 승리하겠다고 자기들의 굳은 결심을 표명하였다。 가리시야 산(山)에서 전투를 하였던 과씨오나리야의 이름을 가진 제一빨찌산 군단의 병사들은 금년 三월三十一일부의『둔도·오브레로』지에 발표된 도로레스이바루리에 보내는 자기들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존경하는 도로레스시여! 우리들은 적에 대한 타격을 증가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붙일만하게 훌륭하게 될것을 약속합니다。』

팟쇼정체에 대한 항쟁부대의 단결과 조직성의 강화는 서반아인민들의 앞으로의 해방운동의 성공에 대한 담보이다。 서반아 인민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에 모든 반 팟쇼력량을 통합하고 프랑코주의에 대하여 전체적 전투를 할수있고 서반아에 민주주의 정체를 부흥하고 국가의 민족적 독립을 옹호하려고 애쓰는 공산당의 뒤를 앞으로 따라갈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김 광 호

제二차 세계전쟁이 끝난후 라틴·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는 나날이 강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의 근로대중의 형편은 세계에서 가장 락후한 식민지 국가들과 매조할수있는것이다。 외국 독점자본가들과 민족 부르죠아지 및 지주들의 광대한 농장에서 토지없는 농민들과 수백만명의 뻬온들(라틴·아메리카에서의 계절적인 머슴일군들)이 무자비한 착취를 받고있는것이다。

유전(油田) 및 광산에서는 인도인 및 흑인들에 대한 강제 로동과 강제 징모가 적용되고있다。 특히 토착인들에 대한 비 인간적 착취는 혹심한것이다。 이곳에서 로동시간은 무제한적이며 몇푼 안되는 로동임금은 최소한도로 저하되어있다。 그리고 또 벌금제도가 광범히 파급되어 있는것이다。 절상가장으로 고용일군들에게 대한 로동임금의 얼마남지않은 잔금이나마 현금으로써가 아니라 상품전표로써 교부되는것이 항례인바 고용일군들은 이 상품전표로 외국회사가 소유하고있는 상점에서 썩은 상품들을 二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않으면 아니되는것이다。

우루과이 공산당의 활동가이며 국회의원인 아르쓰멘지는 최근 발간된『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딸라의 침입』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정세를 명백히 특징지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하고 무진장한 지하자원은 실지에 있어서 딸라의 기대한 세습령지(世襲領地)인것이다。 틴광

과 광산에서는 미국독점단체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업소에서 제련될 광물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수十만명의 로동자들이 죽고있다。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의 이러한 상회들의 전체적 지배권은 인모인들의 고혈에 의존하고있는것이다』。

미국정부는 자기들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이들 국가에게 그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조건을 지시하고、이들 국가에 있는 팟쑈 및 중며분자들과 심지어는 그곳에 있어서의 반동적인 군사적 변혁 및 정치적 살해의 조직까지도 지지하면서 침략정책을 로골화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칠리와 브라지르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월가의 앞잡이들은 워싱톤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어떠한 리유도 없이 쏘련과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렸다。미 국무성은 금년 六월에 아르젠찐과 영국간의 관계를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는바 이에 있어 그는 이들 량국이 그들에게 유리한 五개년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지않을것을 지시하며고 거하였던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정은 아르젠찐에 대한 미국의 석유 기재 및 기타 기재품(旣製品)의 수출과 영국에 대한 농산품의 수출을 위협하고 있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 지향(志向)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며 미국에 있어서의 박두하는 경제공황때문인것이다。그러나 영국정부와 아르젠찐정부는 미국의 지시를 어기고 금년 六월二十七일에 이 조약에 서명을 하였던것이다。

최근의 베네주엘라의 군사적 변혁은 특징적인 사건이다。一九四八년 十一월에 베네주엘라의 륙군총감 마리오·바르가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미국군사 아따쉐의 방조밑에서 새로 피선된 대통령 로물·할에고스를 타도하고 국외로 추방시키고 그런후에 첫째로 미국사람들의 수중에 베네주엘라의 모든 석유산지를 넘겨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은 큐비 근로자들의 계급투쟁의 첨예화와 관련하여 헤수스·메넨데스、아라시라오·이그라시아스、페르나메스·로이그 및 기타와 같은 사랑수수 농장로동자 및 부두로동자직맹지도자들을 암살하였었다。

위선자들은 직접적 무력간섭 및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정책을『무욕한 원조』또는 미국 자본가들의『관대성』처럼 가장(假裝)하고 있으나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무욕한 원조』의 실정을 알아채린지는 이미 오랜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반제국주의투쟁이 견결히 일어나고 있는것이다。그들은 외국、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자기들의 칼끝을 내대고있다。평화옹호 세계대회가 혁혁한 성과를 거둔 이후 거의 전부의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는 가까운 시기에 평화옹호 라틴·아메리카 대회를 조집하고 이들 국가의 평화와 자유와 민주와 민족적 자립과 독립권을 위한 반제국주의적 통일 투쟁전선을 창건할 광범한 근로대중들의 강력한 운동이 대두하게되었다。평화와 자유를 위한 이 투쟁의 선두에는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전투적인 지하 및 비합법적 공산당들이 서있는것이다。二○만명의 당원을 가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가장 커다란 공산당인 비합법적인 부라지르 공산당을 대표하여 총비서 루이스·카르로스·프레스떼스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타격을 줄수있으며 이럼으로써 새로운 전쟁을 방지할수있는 것이다。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쏘련을 반대하여 결코 무기를 들지않겠다。』

라틴·아메리카의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의 한사람인 비크토리오·코도빌야는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간된 저서에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우리들의 투쟁의 주요 목적은 인민들의 행복과 조국의 독립이다。우리들은 여전히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고 인민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어제 우리들은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웠으며 오늘 우리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전쟁 방화자들과 인민들의 압제자들의 선두에 서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것이다。』

아르젠찐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만일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전쟁이 도발된다면 우리들은 영 미 침략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을 철저히 반대하며 군사적 침략을 급속히 청산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자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자기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산당과 진보적 단체들도 이와 같은 성명을 하였던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힘있는 직맹단체이고 六백만명 이상의 조직된 로동자들을 대표하는 라틴·아메리카 로동련맹은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세력을 반대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투쟁할것이고 또한 문명을 옹호하는 위대한 투쟁에로 라틴·아메리카의 근로자들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성명하였다。라틴·아메리카로동련맹의 지도자인 롬바르도·토레다노는 파리 평화옹호 세계대회에 대하여 『우리들은 전세계 앞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평화옹호자들이 전쟁 방화자들 및 인민들의 진보 및 독립에 대한 원쑤들에 비하여 막대하고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언명하는 바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공산당원들이 령도하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라틴·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대중과 유명한 정치가、직맹지도자、진보적 작가、예술인、우수한 진보적 인테리겐챠、애국주의적 근로자단체 및 학생、청년、녀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평화옹호 세계대회 상임위원회 사무국 성원에는 전 멕시코 대통령 라싸로·카르데나스가 피선되었고 위원회 성원에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제국 대표들이 선출되었다。즉 부라지르로부터는 유명한 작가 호르즈·아마도、반팟쑈 녀성운동자 애헤크·프라도 교수 파우로·포레스카、 치리로부터는 아메리카의 유명한 시인 파브로·네루다、큐바로부터는 작가이며 공산당 출신 상원 의원인 후안·마리넬로、과테말라로부터는 기자 호세|마누엘이·포르트너、멕시코로 부터는 라틴·아메리카 로동련맹 위원장 롬비르도·톨레다노、우루과이로 부터는 유명한 반팟쑈 녀성운동자이며 공산당 출신 상원 의원인 훌리야·아로발로、베네주엘라로

부터는 시인이며 평론가인 미겔·오테로·실바가 각각 피선되었던것이다. 현지에서는 또 수많은 다른 유명한 사회활동가 진보적 과학인 및 문화인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대회 소집에 관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미국정부가 가하는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약간명의 라틴·아메리카의 대표들은 미국의 과학인 및 문화인들이 평화옹호 대회에 참가 할수 있었고 이 대회에서는 탁월한 큐바의 시인 니코라이·길엔의 다음과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쟁은 그 자신이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것이다. 사실 전쟁은 거대한 실업(實業)이며 인민들의 피와 때와 생명을 희생으로하는 리윤획득이 아닌가? 어느때도 참호속에 떨어져 들어가고 전쟁터에 나가지않는 자들만이 전쟁에 의하여 리윤을 획득하는것이다. 증오와 우매와 탐욕의 세력이나 또는 범죄 다시금 주식취인소에서 인간의 생명을 매매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이 새로운 세계전쟁을 도발하고 있는것이다』

치리의 자기고향에서 반동분자들의 박해를 받고있는 빠브로·네루다는 평화 옹호대회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하에 있는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배하고있는 떼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회합에서 애국주의자들을 총살하고있는 그러한 이른바 『서부문화옹호자』들이 파라파이의 근로자들의 일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을 투옥시키고있으며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또는 서반아인의 로동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는것이다. 제국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에서의 새로운 생산적 사회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 정신병자들에게나 입히는 옷을 입히려고한다.

인민 대중들은 딸라에 매수된 통치자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자기나라의 로동계급과 진보적 인테리겐차의 전위대의 호소를 받으며 전쟁 방화자를 반대하고 식민지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와 민족적 독립을 옹호하기위한 투쟁에 견결히 나서고 있다. 리오데자네로에서는 평화옹호 전국대회에 참집하여온 대표들을 경축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부라씨르의 월가 앞잡이들은 군중대회를 습격하고 대회를 개최하였던 건물에 점입하고 대표들을 직사(直射)하였었다. 이때문에 평화를 위한 투사들이 수백명이나 부상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허수아비인 두트라·디치 대통령은 물론 그의 주인들에 대한 부라지르 인민들의 증오를 더욱 격앙시켰을 뿐이다.

아르젠친에서는 경찰이 파리평화옹호대회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로동자들의 단결시위 군중대회를 해산시켰다. 살스토시(市)에서는 직업동맹들이 영미 리권소유자들의 기업소에서의 동맹파업을 선언하였고 제국주의적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평화의 구호를

들고 가두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독점단체들의 비밀경찰은 광장에 모인 로동자들을 사격하여 네명을 살해하였고 수十명을 부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젠친의 평화옹호운동은 미증유의 규모를 띠였었다. 금년 四월만 하더라도 백만명이상이 평화옹호 세계대회지지의 명부에 서명하였다. 멕시코의 교원 직맹은 라사로·카르데나스에 전보를 보내였는바 그들은 그 전보에서 멕시코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류혈전쟁에 끌어넣으려고하는 반동과 제국주의분자들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동의를 표명하였다. 멕시코의 교원들은 전력을 다하여 평화를 위하여 싸우겠다는것을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베네주엘라의 석유공업로동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끌어넣는것을 허용하지않을것을 언명하였다. 우르과이、코롬비야를 비롯하여 니카라구아、파나마 및 기타와 같은 제국주의의 압착기에 끼워있는 그러크지않은 라틴·아메리카제국으로 부터도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사들의 용감하고도 고상한 투쟁에 관한 보도가 들어오고있는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도 다른 모든나라에서와 같이 민주와 평화와 진보의 력량이 나날이 장성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나라들의 인민이 세계 다른나라 인민들과 같이 어느때도 영미 제국주의의 욕란으로 되는것을 동의하지않고있다는것을 력력히 증명하는것이다.

박 정 대

一九四九년八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八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五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 (二〇번)

제ㄱ—13690